

# 호고가의 유령 이야기

Ghost Stories of an Antiquary

M.R. 제임스 (M.R. James) (1862-1936)

1904년 발표 · 한국어 번역 · 2026-06-12

vLLM Qwen3.6-35B-A3B AI 번역

## 책 정보

---

### 원전

M.R. 제임스 (M.R. James), "Ghost Stories of an Antiquary" (Edward Arnold 1904)

### 저자

M.R. 제임스 (M.R. James) (1862-1936)

### 원전 출처

Project Gutenberg #8486 (퍼블릭 도메인)

### 번역

vLLM Qwen3.6-35B-A3B FP8 (GB10 로컬)

### 발행

sosig.shop/book · 2026-06-12

## 번역 정책

가독성을 우선해 옮기되 코스믹 호러 특유의 음산한 격조를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옮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삽화]

M. R. 제임스

이 이야기들은 제각기 다른 시기에 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준 모든 이들에게 바친다.

목차

캐논 알베릭의 스크랩북 잃어버린 심장 메조틴트 물푸레나무 13호  
맥너스 백작 "오, 휘파람을 불면, 나는 너에게 가리, 젊은이여" 아봇 토  
마스의 보물

만약 내 고향 배경에 대해 궁금해하는 이가 있다면, 생베르트랑 드  
코맹주와 비보르가 실재하는 곳임을 밝혀둔다. 또한 「오, 휘파람을  
불면, 나는 너에게 가리」에서는 펠릭스토를 의식했다.

내 글 속에 흩어진, 겉보기에 학식이 있어 보이는 단편들은 거의 전  
부가 순전히 내 창작물이다. 「아봇 토마스의 보물」에서 인용한 것과  
같은 책은 당연히 존재한 적이 없다.

「캐논 알베릭의 스크랩북」은 1894년에 집필되어 곧바로 《내서  
널 리뷰》에 실렸고, 「잃어버린 심장」은 《펠 맥 매거진》에 실렸  
다. 그다음 다섯 편의 이야기 중 대부분은 케임브리지 킹스 칼리지에서  
크리스마스 시기에 친구들에게 읽어주었던 것들이다. 그중에서는  
「13호」를 1899년에 썼다는 것만 기억나고, 「아봇 토마스의 보물」  
은 1904년 여름에 쓰여졌다.

M. R. 제임스

### 캐논 알베릭의 스크랩북

생베르트랑 드 코맹주는 피레네 산맥 기슭에 자리 잡은 쇠퇴한 마을이다. 툴루즈에서 그리 멀지 않으며, 바니에르드뤼송에는 더 가깝다. 이 마을은 프랑스 혁명까지 주교좌가 있던 곳이며, 지금도 일부 관광객이 찾는 대성당이 남아 있다.

1883년 봄, 한 영국인이 이 구시대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곳으로 찾아왔다. 인구가 천 명도 채 되지 않아 도시라 부르기조차 민망한 곳이었다. 그는 케임브리지 출신으로, 생베르트랑 성당을 보기 위해 툴루즈에서 특별히 온 것이었다. 자신보다 고고학에 덜 열정적인 두 친구는 툴루즈의 호텔에 머물게 했고, 다음 날 아침에 합류할 것을 약속했다. 성당에서 반 시간만 있으면 그들을 만족시킬 수 있었고, 세 사람은 이후 오슈 방향으로 여행을 계속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 영국인은 당일에 일찍 도착해, 코맹주의 작은 언덕을 지배하는 놀라운 성당의 모든 구석을 설명하고 사진으로 찍으며 노트를 가득 채우기로 마음먹었다. 이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하루 종일 성당의 사제보조(버저)를 독점해야 했다. 사제보조 또는 성물 관리인(사실상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후자를 선호한다)는 ‘샤포 루주’ 여관을 운영하는 다소 무례한 안주인의 부름을 받아 왔다. 그가 도착하자, 영국인은 그를 뜻밖에도 흥미로운 연구 대상으로 발견했다.

흥미의 핵심은 그 작고 마른, 주름진 노인의 외모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프랑스의 다른 수많은 성당 수호자들과 정확히 닮았기 때문이다. 그의 흥미를 끈 것은 그가 품기던 기이한 은밀함, 혹은 더 정확히 말해 쫓기는 듯한, 눌린 듯한 분위기였다. 그는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며 눈치를 살폈다. 등허리와 어깨의 근육은 끊임없는 신경성 경련처럼 움츠러져 있었다. 마치 언제라도 적의 손아귀에 잡힐 것처럼 긴장한 상태였다.

영국인은 그를 고정된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볼지, 양심의 가책에 눌린 사람으로 볼지, 아니면 건디기 힘들게 아내에게 시달리는 남편으로 볼지 고민했다. 확률을 따져보면 확실히 마지막 가능성이 높았지만, 그가 품기는 인상만은 형용할 수 없이 난폭한 아내보다 더 무서운 박해자에 의한 것 같았다.

하지만 영국인, 다시 말해 데니스턴은 곧 노트에 깊이 몰두하고 카메라를 다루느라 바빠져, 성물 관리인에게는 이따금 시선을 던질 뿐이었다. 그가 노인을 바라볼 때마다, 노인은 멀지 않은 곳에서 벽에 몸을 바싹 붙이고 웅크리거나 화려한 성가대석 중 하나에 몸을 구부리고 앉아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데니스턴은 점점 안절부절못하게 되었다. 자신이 노인의 점심 식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은 자신이 성 베르트랑의 상아 주교장(主教杖)이나 세례반 위에 걸린 먼지투성이 박제 악어를 훔쳐 달아날 만한 자로 여겨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뒤섞인 의심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가시지 않겠습니까?" 그가 마침내 말했다. "저 혼자서도 노트를 충분히 마칠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안에 가두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최소한 두 시간은 더 머물러야 할 텐데, 당신께서는 추우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작은 남자가 말했다. 그 제안은 그를 설명할 수 없는 공포에 빠뜨린 듯했다. "그런 생각은 잠시도 할 수 없소. monsieur를 교회에 혼자 두다니? 안 돼, 안 된다고. 두 시간, 세 시간이 지나도 나에겐 다 같소. 나는 이미 아침을 먹었고, 출지도 않소. monsieur에게 감사하오."

"좋아, 작은 놈아." 데니스턴이 속으로 중얼거렸다. "너는 이미 경고를 받았으니,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두 시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성가대석, 거대하고 납아빠진 오르간, 존 드 몰레옹 주교의 성가대 가림막, 유리 조각과 태피스트리의 잔해, 그리고 보물고의 물건들이 모두 꼼꼼히 검사되었다. 그동안에도 성물 관리인은 여전히 데니스턴의 발뒤꿈치에 바짝 붙어 다녔고, 거대하고 텅 빈 건물을 어지럽히는 이상한 소리들 중 하나가 그의 귀에 들릴 때마다 마치 쏘인 듯 획 뒤를 돌아보곤 했다. 그 소리들은 때때로 정말 기이한 것이었다.

"한 번은," 데니스턴이 내게 말했다. "저 탑 꼭대기에서 날카롭고 금속성 같은 웃음소리가 들린 적이 있어. 나는 성물 관리인에게 의아한 눈빛을 던졌다. 그는 입술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 사람이다—아니,

아니야. 아무도 없어. 문은 잠겨 있어.’ 그가 한 말은 이것뿐이었고, 우리는 꼬박 1분 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데니스턴은 또 다른 작은 사건 때문에 꽤나 당황했다. 그는 제단 뒤에 걸려 있는 어두운 대형 그림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이는 성 베르트랑의 기적을 묘사한 연작 중 하나였다. 그림의 구도는 거의 판독할 수 없을 정도였지만, 아래에는 라틴어 명문이 새겨져 있었다. 내용은 다 음과 같았다.

성 베르트랑이 악마가 오랫동안 목 졸라 죽이려던 한 남자를 어떻게 구원했는가.

데니스턴은 미소와 함께 농담을 입에 담고 성물 관리인 쪽으로 몸을 돌렸다. 하지만 그는 깜짝 놀랐다. 노인이 무릎을 꿇고, 고통에 찬 간청자의 눈으로 그림을 응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손은 짝 맞잡았고, 뺨에는 눈물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있었다.

데니스턴은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했다. 하지만 의문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왜 이런 초라한 그림이 누군가를 이렇게 강하게 흔들까?”

그는 자신이 그날 내내 그를 괴롭혀 온 낯선 표정의 이유를 조금씩 파악해 가고 있는 것 같았다. 그 남자는 아마도 편벽된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일 것이다. 하지만 그의 그 편벽된 생각은 무엇일까?

다섯 시가 다 되어갔다. 짧은 낮이 저물어 가고, 교회 안은 그림자로 채워져 갔다. 종일 들리던 수상한 소음들, 즉 발소리나 멀리서 들려오

는 사람들의 수군거림 같은 것들이 더 빈번하고, 더 강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물론 이는 빛이 어두워지고, 그에 따라 청각이 예민해졌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성물 관리인이 처음으로 조바심과 안달 섞인 기색을 드러냈다. 카메라와 노트가 드디어 수납되어 정리되자,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데니스턴을 향해 성당 서쪽 문, 즉 탑 아래 쪽으로 재촉하듯 손짓했다. 양겔루스 종을 울릴 시간이 된 것이다.

거슬리는 밧줄을 몇 번 당기자, 탑 꼭대기에 걸린 대형 종 ‘베르트랑 드’가 드디어 울리기 시작했다. 종소리는 소나무 숲 사이로 올라가고 계곡으로 내려갔다. 산골짜기의 시냇물 소리처럼 울림이 컸다. 외로운 언덕에 사는 이들에게 천사가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된 자’라 불렀던 그 여인에게 경의를 표하라고, 기억하고 되풀이하라고 부르는 소리였다.

그 종소리와 함께, 그날 처음으로 깊은 정적이 작은 마을 전체를 덮었다. 데니스턴과 성물 관리인은 성당을 나섰다.

그들은 현관문 앞에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선생께서는 성구실의 낡은 성가집에 관심을 보이시는 것 같더군요."

"물론이지요. 제가 묻고자 했던 것은 이 마을에 도서관이 있는지 여쭙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요, 몽시예요. 과거에는 성당 회의소 소속의 도서관이 있었을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다지 큰 곳이 아니라서……”

그때 그가 잠시 망설이는 듯한 기이한 침묵을 흘렸다. 그러고는 마치 결심이라도 한 듯, 곧장 말을 이었다.

“하지만 몽시예가 옛 책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집에 몽시예께 흥미를 끌 만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집까지 백 야드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데니스턴은 프랑스의 미개척된 구석에서 값진 사본을 발견하리라 믿었던 자신의 간절한 꿈이 순간적으로 떠올랐다가, 이내 다시 사그라드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아마도 1580년경 플랑탱의 인쇄소에서 찍은 평범한 미사본일 터였다. 툴루즈에 그렇게 가까운 곳이 오래전부터 수집가들에 의해 털리지 않았을 리가 없었다.

그렇지만 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은 일이었다. 만약 거절한다면 그는 평생 후회하게 될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떠났다.

길에서 성물 관리인의 묘한 주저함과 갑작스러운 결단력이 데니스턴의 머리를 스쳤다. 그는 부끄러운 듯이 스스로에게 물었다. 자신이 부자 영국인으로 오인받아 어딘가로 유인해 죽이려는 함정에 빠뜨려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그는 가이드와 대화를 시작하는 한편, 어색한 듯이 내일 아침 두 친구가 합류할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 말은 성물 관리인이 안고 있던 불안감을 즉각 덜어주었다.

“좋은군요,” 그는 매우 밝은 어조로 말했다. “무슈는 친구들과 함께 여행하시겠군요. 그들은 항상 무슈 곁에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여행하는 것은 때때로 좋은 일입니다.”

마지막 단어는 부연 설명처럼 덧붙여진 듯했다. 그것은 불쌍한 작은 남자에게 다시 어둠이 찾아오게 했다.

그들은 곧 그 집 앞에 다다랐다. 이웃집들보다 약간 더 큰 그 집은 돌로 지어졌으며, 문 위에는 방패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알베리크 드 모를롱(Alberic de Mauléon)의 문장이었는데, 데니스타운이 내게 말한 바로는 그는 존 드 모를롱 주교의 방계 후손이었다. 이 알베리크는 1680년부터 1701년까지 코밍즈의 참사회원이었다. 저택의 위층 창문들은 판자로 막혀 있었고, 코밍즈의 다른 곳들이 그리하듯 집 전체에 쇠락해 가는 노년의 기운이 어려 있었다.

자기 집 문턱에 다다른 성구지기는 잠시 멈춰 섰다.

“아마도,” 그가 말했다. “아마도, 결국에는, monsieur께서는 시간이 없으신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시간이 얼마든지 남아 있죠. 내일까지 할 일이 아무 것도 없으니까요. 자, 당신이 가지고 온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봅시다.”

그때 문이 열리며 한 얼굴이 내다보았다. 성구지기보다 훨씬 어린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그와 비슷한 괴로운 기색을 띠고 있었다. 다만 이 경우엔 자기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라기보다는 다른 누군가를 향한 날카로운 근심의 표지처럼 보였다. 그 얼굴의 주인은 분명 성구지기의

딸이었고, 내가 묘사한 그 표정만 아니었다면 충분히 예쁘장한 처녀였다. 아버지가 건장한 낯선 손님과 함께 오는 모습을 보자 그녀의 얼굴은 눈에 띄게 환해졌다. 아버지와 딸 사이에 몇 마디가 오갔지만, 데니스타운이 알아들은 것은 성구지기가 한 다음 한마디뿐이었다. "저 사람이 교회에서 웃고 있었어." 그 말에 딸은 그저 공포에 질린 눈빛으로 답할 뿐이었다.

하지만 곧이어 그들은 그 집의 거실로 들어섰다. 그곳은 돌바닥이 깔린 작고 천장이 높은 방으로, 커다란 벽난로에서 일렁이는 장작불 그림자가 사방에 어른거리고 있었다. 한쪽 벽에는 천장에 닿을 듯한 큰 십자가상이 서 있어 방에는 어딘가 경당(經堂) 같은 분위기가 감돌았다. 십자가에 달린 형상은 자연스러운 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십자가 자체는 검은색이었다. 그 아래에는 어느 정도 오래되고 견고한 궤가 놓여 있었다. 등불을 들여오고 의자를 놓자, 성구지기는 그 궤로 다가가, 데니스타운이 보기엔 점점 흥분과 초조가 더해 가는 모습으로, 흰 천에 싸인 큰 책 한 권을 꺼냈다. 천 위에는 붉은 실로 거칠게 수놓은 십자가가 있었다. 포장이 풀리기도 전에 데니스타운은 책의 크기와 모양에 이미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 '미사경으로는 너무 크고, 안티포너(교송 성가집)의 모양도 아니야. 어쩌면 정말 관참은 물건일지도 몰라.' 다음 순간 책이 펼쳐졌고, 데니스타운은 마침내 자신이 '관참은' 정도를 한참 넘어서는 무언가에 다다랐음을 느꼈다. 그의 앞에 놓인 것은 17세기 후반쯤에 제본된 듯한 큰 폴리오 책이었으며, 양 표지에는 참사회원 알베리크 드 모를롱의 문장이 금박으로 찍혀 있었다. 책 안에는 종이가 약 백오십 장쯤 있었고, 거의 모든 장에 채식(彩飾) 필사본의 한 낱장

이 붙어 있었다. 데니스타운은 가장 거친 상상 속에서도 이런 수집품은 꿈꿔본 적이 없었다. 여기에는 창세기 사본에서 떼어낸 열 장이 있었는데,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그 제작 시기는 아무리 늦어도 서기 700년을 넘기지 않을 만한 것이었다. 더 뒤에는 13세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빼어난 종류의, 영국에서 제작된 시편집(Psalter)에서 나온 그림 전질이 있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중에서도 최고인 것은, 라틴어로 된 안셜체(uncial) 필사 스무 장이었는데, 여기저기 보이는 몇 마디 단어 만으로도 그는 그것이 매우 이른 시기의 알려지지 않은 교부 논고에 속한 것임을 단번에 알아챘다. 혹시 이것이 12세기까지 님(Nîmes)에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진 파피아스의 『주님의 말씀에 관하여』 사본의 일부는 아닐까? 어쨌든 그의 마음은 정해졌다. 저 책은 반드시 자신과 함께 케임브리지로 돌아가야 했다. 은행 잔고를 모두 인출하고 돈이 도착할 때까지 생베르트랑에 머물러야 한다 해도 말이다. 그는 슬쩍 성구지기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이 책이 팔릴 물건임을 암시하는 기색이라도 있는지 살폈다. 성구지기는 창백했고, 입술은 떨리듯 움직이고 있었다.

우리는 이제 이 낱장들이, 비록 바로 그 사본 자체는 아닐지라도, 그 저작의 상당한 단편을 실제로 담고 있었음을 안다.

"무슈께서 끝부분까지 넘겨 보시지요." 그가 말했다.

그래서 무슈는 책장을 넘겨 갔고, 한 장을 들어 올릴 때마다 새로운 보물들과 마주쳤다. 그리고 책의 끝에 이르렀을 때, 그는 지금까지 본 어느 것보다도 훨씬 최근에 만들어진 종이 두 장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그를 적잖이 당황시켰다. 그는 이것들이 분명 그 비양심적인 참사회원 알베리크와 동시대의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 참사회원은 틀림없이 생베르트랑 참사회 도서관을 약탈해 이 값을 매길 수 없는 스크랩북을 꾸민 자였다. 첫 번째 종이에겐 평면도가 한 장 그려져 있었는데, 그곳 지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즉각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정성껏 그려진 생베르트랑 성당의 남쪽 측랑과 회랑(클로이스터)의 도면이었다. 행성 기호처럼 보이는 기이한 표시들이 있었고, 모서리에는 몇몇 히브리어 단어가 적혀 있었으며, 회랑의 북서쪽 모서리에는 금색 페인트로 그려진 십자가가 있었다. 도면 아래에는 라틴어로 된 몇 줄의 글이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1694년 12월 12일의 응답.

질문: 내가 그것을 찾아내겠는가? 답변: 찾아낼 것이다.

질문: 내가 부자가 되겠는가? 답변: 그러할 것이다.

질문: 내가 부러움의 대상으로 살겠는가? 답변: 그러할 것이다.

질문: 내가 내 침대에서 죽겠는가? 답변: 그러할 것이다.

“보물 사냥꾼의 기록을 잘 보여주는 표본이군. \_올드 세인트 폴스\_의 마이너 캐넌 퀘트레마인 씨를 연상케 한다.” 데니스타운이 평하며 페이지를 넘겼다.

그가 그때 본 것은, 그가 내게 자주 말해 주었듯이, 어떤 그림이나 드로잉이 사람에게 줄 수 있다고 그가 상상할 수 있던 그 어떤 인상보

다도 더 깊은 인상을 그에게 남겼습니다. 그가 본 그 그림 자체는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지만, 제가 소장하고 있는 그것의 사진 한 장이 그 진술을 충분히 뒷받침해 줍니다. 문제의 그림은 17세기 말의 세피아 드로잉으로, 처음 보면 성경의 한 장면을 그린 것 같았습니다. 건축(그림은 실내를 묘사한 것이었습니다)과 인물들이, 200년 전 화가들이 성경 삽화에 어울린다고 여겼던 그 반(半)고전적 분위기를 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른쪽에는 한 왕이 왕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왕좌는 열두 단의 계단 위에 솟아 있었고, 머리 위에는 천개(단집)가 덮여 있었으며, 양옆에는 병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분명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홀(笏)을 앞으로 내뻗으며 명령하는 자세로 몸을 숙이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혐오가 어려 있으면서도 동시에 위엄 있는 명령과 흔들림 없는 권능의 표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림의 왼쪽 절반이 가장 기묘했습니다. 흥미는 분명히 그쪽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왕좌 앞 바닥에는 네 명의 병사가 모여 곧 묘사할 웅크린 형상 하나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병사는 바닥에 죽어 쓰러져 있었으며, 그의 목은 비틀어졌고 두 안구는 머리에서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그 형상을 둘러싼 네 호위병은 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공포의 감정이 한층 짙어져 있었고, 실제로 그들이 도망치지 못하는 것은 오직 주군에 대한 절대적 신뢰 덕분인 듯 보였습니다. 이 모든 공포는 분명 그들 한가운데 웅크리고 있는 그 존재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 형상이 그것을 본 사람에게 남기는 인상을 어떤 말로 전달할 수 있을지, 저는 완전히 단념합니다. 한 번은 이 드로잉의 사진을 형태학을 강의하는 한 강사에게 보여준 적이 있는데, 거의 비정상적이라 할 만큼 지나치게 멀쩡하고 상상력이라곤 없는 정신의 소유자라고 말해

도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날 저녁 내내 절대 혼자 있으려 하지 않았고, 나중에 제게 말하기를 그 후로도 여러 밤 동안 잠들기 전 불을 끌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 형상의 주된 특징만은 적어도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거칠고 형클어진 검은 머리카락 덩어리만 보입니다. 곧 그 머리카락이 무시무시할 정도로 가느다란 몸, 거의 해골과 다름없지만 근육이 철사처럼 도드라진 몸을 덮고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손은 거무스름하게 창백한 빛을 띠었고, 몸과 마찬가지로 길고 거친 털로 덮여 있었으며, 흉측한 발톱이 돌아 있었습니다. 두 눈은 불타는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그 안의 동공은 검디검었으며, 짐승 같은 증오의 눈빛으로 옥좌의 왕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남아메리카의 그 무시무시한 새 잡는 거미(bird-catching spider) 중 한 마리가 인간의 형상으로 옮겨지고 인간보다 약간 못한 정도의 지능을 부여받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끔찍한 형상이 불러일으키는 공포의 일단을 어렵פות이나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여준 사람들은 누구나 한결같이 한마디를 합니다. "이건 실물을 보고 그린 거다."

억누를 수 없는 공포의 첫 충격이 가라앉자마자, 데니스타운은 슬쩍 자기 주인들을 훑쳐보았다. 성구지기는 두 손으로 두 눈을 가리고 있었고, 그의 딸은 벽의 십자가를 올려다보며 열에 들떠 목주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마침내 누군가 물었다. “이 책, 팔고 계신가요?”

그는 전에 눈여겨봤던 그 똑같은 망설임과, 그 똑같이 단호한 결단의 내뱉음을 다시 보았다. 그러더니 반가운 대답이 들려왔다. "무슈께서 좋으시다면요."

“그것을 얼마에 파시려 하십니까?”

“나는 이백 오십 프랑을 받겠습니다.”

이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수집가의 양심조차 때로는 흔들리곤 하는데, 데니스타운의 양심은 그 어떤 수집가보다도 더 예민했기 때문이다.

“이보게!” 그는 거듭 말했다. “당신의 책은 이백 오십 프랑 따위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어. 내 말 믿게.”

그러나 대답은 늘 같았다. “이백 오십 프랑입니다. 더 이상은 아닙니다.”

이런 기회를 거절할 도리는 전혀 없었다. 돈이 건네지고, 영수증에 서명이 이루어졌으며, 거래를 기념해 와인 한 잔이 나뉘어 마셔졌다. 그러자 성물 보관인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 그는 곧게 몸을 일으켰고, 뒤를 돌아보며 던지던 수상쩍은 시선을 멈췄다. 그는 심지어 웃기도 했고, 웃으려 애쓰기도 했다. 데니스타운은 일어나 떠날 준비를 했다.

"제가 모니외르를 호텔까지 모셔다 드리는 영광을 누리도 되겠습니까?" 성물 보관인이 물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백 야드도 안 되거든요. 길이 아주 잘 보이고 달도 밝으니까요.”

세 번, 네 번, 제안이 반복됐다. 하지만 거절도 그 수만큼이나 단호했다.

“그럼, 모니외르는 필요할 때 저를 부르시면 됩니다. 만약 그럴 기회가 생긴다면요. 길 한가운대를 걸으셔야 합니다. 양옆이 너무 거칠거든요.”

“물론이지, 물론.” 데니스타운이 말했다. 그는 자신의 보물을 혼자 자세히 살펴보고 싶어서 안달이었다. 책 한 권을 팔에 끼고 복도로 나갔다.

그곳에서 그는 딸을 만났다. 딸은 자신의 장사를 조금이라도 해보려는 듯했다. 아버지가 봐준 이방인으로부터 무언가를 챙기려는 것이었다. 마치 게하시처럼.

“목에 걸 십자가와 사슬, 은으로 된 것이지요. 모니외르, 받아 주시겠습니까?”

정말이지, 데니스타운에게 이런 물건은 별 쓸모가 없었다. 마드무아젤은 그 대가로 무엇을 원했을까?

“세상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니외르께서는 이걸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이와 더 많은 말이 담긴 말투는 의심할 여지 없이 진심이였기에, 데니스타운은 감사의 말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고, 목에 사슬을 걸어주는 것도 받아들였다. 마치 그가 그 부녀에게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를 만큼 큰 은혜를 베푼 것 같았다. 그가 책을 들고 길을 나서자, 그들은 문 앞에 서서 그의 뒤를 바라보았다. 그가 샤프 루주의 계단에서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넬 때까지도, 그들은 여전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식사는 끝났다. 데니스타운은 자신의 방에 혼자 앉아, 그가 얻어온 그 물건과 함께 있었다.

그는 방금 성물 보관인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낡은 책 한 권을 사왔다고 말한 이후부터, 여관 안주인이 그에게 유별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또한 그는 식당(salle à manger) 밖 복도에서, 여관 안주인과 그 성물 보관인 사이에 오가는 다급한 대화 소리를 들은 것 같기도 했다. 대화는 "피에르와 베르트랑이 이 집에서 잘 것이다"라는 말로 끝났다.

이 모든 시간 동안 그는 점점 커져만 가는 불편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 아마도 자신의 발견으로 인한 기쁨에 대한 신경성 반응이었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는 결국 자신이 뒤쪽에 누군가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고, 벽을 등에 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안락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그가 획득한 컬렉션의 명백한 가치에 비하면 가벼운 무게로 여겨졌다. 그리고 이제, 내가 말했듯이, 그는 자신의

침실에서 혼자서 알베릭 사제의 보물들을 점검하고 있었는데, 그 보물들은 매 순간마다 더 매력적인 무언가를 드러내고 있었다.

“알베릭 신부님을 축복하리!” 데니스타운이 중얼거렸다. 그는 늘 혼자 중얼거리는 습관이 있었다. “지금 저분이 어디 계실까? 어머니! 그 안주인이 좀 더 명랑하게 웃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군. 지금 그 웃음소리는 집안에 죽은 사람이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들게 하거든. 파이프를 반 개 더 피우는 게 어떻겠냐고? 아, 맞군. 당신 말이 옳은 것 같아. 저 젊은 여자가 꼭 내게 주려고 했던 십자가가 뭐지? 아마 18세기 것일 거야. 음, 그럴 수도 있지. 목에 걸고 다니기에는 좀 무거운 게 단점이지. 아마도 그 여자의 아버지가 오랫동안 착용하고 있었겠지. 치워두기 전에 좀 닦아둘까.”

그가 십자가를 벗겨 식탁 위에 올려놓았을 때, 그의 시선은 왼쪽 팔꿈치 바로 옆 붉은 천 위에 놓인 한 물체에 사로잡혔다.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이 번개처럼 그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펜 닦는 천? 아니, 집에는 그런 게 없어. 쥐? 아니, 너무 검어. 큰 거미? 천만에—아니야. 주님의 이름으로! 그 그림 속의 손과 똑같은 손이야!”

그는 또 한순간의 빛에 모든 것을 파악했다. 창백하고 탁한 피부는 뼈와 소름 끼칠 만큼 강한 힘줄만 감싸고 있었다. 거친 검은 털은 인간의 손에서 자라는 것보다 더 길었다. 손끝에서 올라온 손톱은 날카롭게 아래로 그리고 앞으로 굽어 있었는데, 회색이고 각질처럼 단단하며 주름져 있었다.

그는 죽음보다 더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공포에 휩싸여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공포가 그의 심장을 움켜쥐었다.

왼손은 테이블 위에 짚은 채, 그 형체는 그의 의자 뒤에서 똑바로 일어서고 있었다. 오른손은 그의 머리 위에서 갈고리처럼 굽어 있었다.

그 주위에는 검고 너털너털한 천이 감겨 있었다. 거친 털은 앞서 묘사된 그림과 똑같이 그 몸을 뒤덮고 있었다. 아래턱은 얇았다. 무엇이랴 불러야 할까. 짐승의 턱처럼 얇았다. 검은 입술 뒤로 이빨이 드러나 있었다. 코는 없었다.

눈은 불꽃 같은 노란색이었고, 그 위로 동공이 검고 강렬하게 도드라져 있었다. 거기서 빛나는, 의기양양한 증오와 생명을 파괴하려는 갈망이야말로 이 모든 광경 중 가장 끔찍한 특징이었다.

그 눈에는 일종의 지성이 담겨 있었다. 짐승의 그것은 넘었으되, 인간의 그것에는 미치지 못하는 지성이었다.

데니스타운을 사로잡은 공포는 신체적 차원의 극한 공포와 정신적 차원의 깊은 혐오감이었다. 그는 무엇을 했을까. 어찌할 수 있었을까.

그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그는 지금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다만 말을 했다는 것, 손이 본능적으로 은십자가를 움켜쥐었다는 것, 악마가 자신 쪽으로 다가오는 움직임을 의식했다는 것, 그리고 끔찍한 고통에 신음하는 짐승의 비명을 질렀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피에르와 베르트랑, 두 튼튼한 하인이 달려들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다만 그들 사이로 무언가가 빠져나가며 자신들을 옆으로 밀치는 것을 느꼈을 뿐이었고, 그들은 데니스타운이 기절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그 밤 그의 곁을 지켰고, 그의 두 친구는 다음 날 아침 아홉 시에 생 베르트랑에 도착했다. 데니스타운 자신은 여전히 떨리고 신경이 곤두서 있었지만, 그 무렵에는 거의 평상시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친구들에게 신빙성을 얻었으나, 그것은 그들이 그림을 보고 성물 보관인과 이야기를 나눈 뒤에야 가능한 일이었다.

해가 뜨기 직전, 작은 남자가 어떤 구실로 여관에 찾아와 있었다. 그는 여주인의 이야기를 깊은 관심으로 경청했다. 그는 놀란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가 맞다. 바로 그다. 내가 직접 봤다.” 이것이 그의 유일한 대답이었다. 나머지 모든 질문에 대해 그가 건넨 말도 단 하나뿐이었다.

“두 번이나 그를 보았다. 천 번이나 그를 느꼈다.”

그는 책이 어디서 왔는지, 자신의 경험이 어떤 것이었는지 단 한 마디도 밝히려 하지 않았다.

“나는 곧 잠들 것이다. 내 심은 달콤할 것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괴롭히려느냐?”

그해 여름, 그는 세상을 떠났다. 딸은 결혼해 생트파울에 정착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집착’했던 사건의 정황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다.

그가, 혹은 알베리크 드 몰레옹 사제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는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그 운명적인 그림의 뒷면에는, 당시 상황을 짐작케 해 줄 몇 줄의 글이 적혀 있다.

솔로몬과 야간 악마의 논쟁. 알베리쿠스 드 몰레옹이 그림. V. 주여, 속히 도우소서. 시편 '거하는 자'. 성 베르트랑, 악마들을 쫓아내시는 자여, 지극히 비참한 저를 위해 중재해 주소서. 1694년 12월 12일 밤 처음 보았노라. 곧 마지막을 보리라. 나는 죄를 지었고 고난을 받았으며, 더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라. 1701년 12월 29일.[3]

즉, ‘솔로몬과 밤의 악마 간의 논쟁’이다. 알베리크 드 몰레옹이 그린 그림이다.

[경문] 주여, 속히 도우소서. [시편] 제91편. 성 베르트랑, 마귀들을 쫓아내시는 성자여, 지극히 불행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옵소서.

나는 이를 1694년 12월 12일 밤 처음 보았다. 곧 이것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나는 죄를 지었고 고통을 받았으며, 아직 더 큰 고통을 겪어야 한다.

1701년 12월 29일.

『갈리아 크리스티아나』는 사제의 사망일을 1701년 12월 31일로 기록하고 있다. “침상에서 갑작스러운 발작으로”. 이러한 세부 사항은 사마르타니(Samarthani)의 대작에서는 흔치 않다.

데니스타운이 내가 말한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나는 여전히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한 번 성서 외경인 『시라크』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말했다. “보복을 위해 창조된 영들이 있으니,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치명타를 가한다.”

또 다른 날에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이사야는 매우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빌론의 폐허에 사는 밤의 괴물들에 대해 말하지 않았나요? 이런 일들은 현재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큼니다.”

그의 또 다른 태도도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나는 그에게 공감을 표했다.

작년, 우리는 코망즈(Comminges)로 가서 알베리크 사제의 묘지를 찾아갔다. 거대한 대리석 묘비에는 가발을 쓰고 수단(soutane)을 입은 사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고, 그 아래로는 그의 학문에 대한 정교한 찬사가 적혀 있었다.

우리가 떠나기 직전, 데니스타운이 생베르트랑의 신부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았다. 우리가 말을 몰고 떠나자, 그가 나에게 말했다.

“잘못된 생각은 아닐 거야. 너도 알다시피 나는 장로교 신자이지만—그래, 알베리크 드 몰레옹의 안식을 위해 미사를 올리고 애가를 부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는 이어 북부 영국 특유의 어조를 섞어 덧붙였다.

“그런 의식이 이렇게 비싸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군.”

그 책은 케임브리지의 웨스트워스 컬렉션에 소장되어 있다. 그 그림은 사진으로 찍힌 뒤, 데니스타운이 첫 방문을 마치고 코망즈를 떠나던 날 그에 의해 불태워졌다.

### 잃어버린 심장들

내가 확인할 수 있는 한, 1811년 9월의 어느 날이었다. 링컨셔의 한 가운데에 자리한 아스워비 홀(Aswarby Hall) 앞에 역마차 한 대가 멈춰 섰다. 마차에는 어린 소년 한 명만이 타고 있었는데, 마차가 멈추자마자 뛰어내린 그는 종을 울리고 현관문이 열리기까지의 짧은 사이에 더없이 예리한 호기심으로 주변을 살펴보았다.

그는 앤 여왕 시대에 지어진 키가 크고 네모반듯한 붉은 벽돌 집을 보았다. 거기에 1790년의 더 순수한 고전 양식으로 돌기둥 현관이 덧붙여져 있었다. 집의 창문은 수가 많고 길고 좁았으며, 작은 유리 창살로 나뉘어 있고 두꺼운 흰색 목재 틀로 둘러져 있었다. 정면 위에는 둥근 창이 뚫린 페디먼트(삼각형 박공)가 얹혀 있었다.

중앙 동(棟)의 좌우에는 부속 동(棟)이 있었는데, 기둥 회랑이 떠받치는 묘한 유리 회랑이 그 부속 동들과 중앙 동을 연결하고 있었다. 이 부속 동들에는 분명히 마구간과 헛간 같은 부속 시설이 들어 있었다. 각 부속 동 위에는 금도금된 풍향계가 달린 장식용 작은 돔이 얹혀 있었다.

저녁 노을이 건물에 내려앉아 창문 유리를 수없이 많은 불꽃처럼 빛나게 했다. 홀 앞쪽으로는 평평한 공원이 펼쳐졌고, 그 위에는 참나무가 듬성듬성 서 있었으며 가장자리에는 전나무들이 줄지어 하늘을 배경으로 뚜렷이 드러나 있었다. 공원 가장자리의 나무들 사이에 파묻혀 황금빛 풍향계만이 빛을 받아 반짝이는 교회 탑의 시계가 여섯 시를 알리고 있었고, 그 소리는 바람을 타고 부드럽게 밀려왔다. 그것은 초가를 저녁에 어울리는 그런 종류의 우울감이 섞여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기분 좋은 인상이었다. 그리고 그 인상은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현관에 서 있던 소년의 마음속으로 그대로 전해졌다.

역마차는 그를 워릭셔에서 데려왔는데, 그곳에서 약 6개월 전 그는 고아가 되었다. 이제 노년의 사촌 에이브니 씨의 관대한 제안 덕분에 그는 아스워비에 와서 살게 되었다. 이 제안은 뜻밖의 일이었다. 에이브니 씨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모두 그를 다소 엄격한 은둔자로 여겼고, 그의 차분하고 규칙적인 가정에 어린 소년이 들어오는 것은 새롭고 어울리지 않는 요소를 들이는 일로 보였기 때문이다. 사실 에이브니 씨의 관심사나 성품에 대해 알려진 바는 거의 없었다. 케임브리지의 그리스어 교수는 후기 이교 종교의 신앙에 대해 아스워비의 주인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분명 그의 서재에는 신비제(Mysteries), 오르페우스 시가(詩歌), 미트라 숭배, 신플라톤주의에 관한 당시 구할 수 있는 모든 책이 갖춰져 있었다. 대리석이 깔린 현관에는 미트라가 황소를 죽이는 훌륭한 군상(群像)이 놓여 있었는데, 이는 주인이 큰 비용을 들여 레반트(동지중해 지방)에서 들여온 것이었다. 그는 이 조각에 대한 글을 〈Gentleman's Magazine〉에 기고했

고, 후기 로마 제국 로마인들의 미신에 관한 주목할 만한 연재 기사를 〈Critical Museum〉에 썼다. 요컨대 그는 책에 파묻혀 사는 사람으로 여겨졌고, 그가 고아가 된 사촌 스티븐 엘리엇의 존재를 들어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웃들에게는 큰 놀라움이었으며, 자진해서 그를 아스워비 홀의 식구로 들이겠다고 한 것은 더더욱 놀라운 일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짐작했는지언정, 확실히 에이브니 씨는 마땅히 젊은 사촌을 친절하게 맞이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듯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그는 연구실로부터 재빨리 뛰쳐나와, 기쁨에 찬 표정으로 손을 비비며 반겼다.

"잘 지내느냐, 애야? — 잘 지내느냐? 몇 살이지?" 그가 물었다. "그러니까, 여행에 너무 지쳐서 저녁을 못 먹을 정도는 아니길 바란다."

"아니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엘리엇 도련님이 말했다. "저는 꽤 좋습니다."

"착한 녀석이로구나," 에이브니 씨가 말했다. "그래, 몇 살이라고 했지, 애야?"

그가 서로를 알게 된 지 단 이 분 동안에 같은 질문을 두 번이나 했다는 사실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다.

"내 생일이 지나면 열두 살이 됩니다, 선생님." 스티븐이 말했다.

“생일이 언제지, 사랑하는 아이야? 9월 11일이로군? 음, 좋군. 아주 좋구려. 거의 1년 뒤라, 그래? 나는 이런 것들을 내 책에 적어두는 게 좋아. 하, 하! 확실히 12살이지? 틀림없나?”

“네, 확신합니다, 선생님.”

“좋아요, 좋아요. 파크스, 그를 번치 부인 방으로 모시고 가세요. 차든 저녁이든, 뭐든 먹일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차분한 태도의 파크스 씨가 대답하며 스티븐을 아래로 안내했다.

번치 부인은 스티븐이 아스워비에서 그때까지 만난 사람들 중 가장 편안하고 인간적인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가 완전히 집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 주었고, 그들은 15분 만에 절친한 사이가 되었으며, 그 우정은 변함없이 이어졌다.

번치 부인은 스티븐이 도착하기 약 55년 전 이 지역에서 태어났고, 홀에서의 거주 기간만도 이미 20년에 달했다. 따라서 집안 사정과 동네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 번치 부인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아는 것을 알려 주기를 결코 꺼리지 않았다.

물론 모험심 많고 호기심 가득한 성격의 스티븐은 홀과 그 정원에 관해 설명을 듣고 싶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월계수 길 끝에 있는 신전은 누가 지었어요? 계단에 걸린 그림 속, 책상 앞에 앉아 손 아래에 해골을 두고 있는 노인은 누구예요?" 이런 물음들과 비슷한 많은 점들이 번치 부인의 명석한 두뇌가 가진 정보 덕분에 해소되었다.

그러나 그중에는 그녀의 설명이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한 것들도 있었다.

11월의 어느 저녁, 스티븐은 가정부 방에서 난롯가에 앉아 자신의 주변 환경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에이브니 씨는 좋은 분이세요? 그리고 천국에 가실까요?" 그가 갑자기 물었다. 아이들은 이런 질문들의 판결이 다른 곳의 법정에 맡겨져 있다고 믿으면서도, 어른들이 그것을 척척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는 특유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법이다.

"좋다니요? — 아이를 축복하소서!" 번치 부인이 말했다. "주인님은 제가 본 적이 있는 그 누구보다 자애로운 분이세요! 일곱 해 전쯤, 말하자면 길거리에서 주인님이 거두신 그 어린 소년 이야기를 제가 한 번도 안 해 드렸던가요? 그리고 제가 이 집에 처음 온 지 두 해 뒤에 (주인님이 거두신) 그 어린 소녀 이야기도요?"

"아니요. 부디 그 일들에 대해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번치 부인. 지금 당장요!"

"음, 그 여자아이에 대해서는 제가 그리 많이 기억나지 않네요." 번치 부인이 말했다. "다만 주인님이 어느 날 산책에서 돌아오시며 그 아이를 데리고 오신 일은 알고 있어요. 그때 가정부였던 엘리스 부인에게 그 아이를 각별히 잘 돌봐 주라고 명하셨죠. 그 가엾은 아이는 가족이 아무도 없었어요 — 본인이 직접 제게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렇게 우리 집에서 한 삼 주쯤 지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 아이 피

에 집시 피라도 섞여 있었던 건지 어쨌는지, 우리 가운데 누구도 눈을 뜨기 전에 침대에서 빠져나가더니, 그 뒤로는 자취도 흔적도 본 적이 없어요. 주인님은 무척 당황하셔서 연못이란 연못은 모두 끌어 훑게 하셨습니다요. 제 생각엔 그 집시들이 데려간 거예요. 아이가 사라진 그날 밤, 한 시간이나 집 주변에서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리고 파크스도 그날 오후 내내 숲속에서 그들이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단언하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묘한 아이였어요, 그렇게 모든 행동이 조용했으니. 하지만 어찌나 집 안 생활에 잘 적응하던지 — 정말 놀라울 정도로 — 저는 그 아이에게 폭 빠져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소년은요?" 스티븐이 물었다.

"아, 그 불쌍한 아이!" 번치 부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 아이는 외국 아이였어. 스스로를 ‘제바니’라고 했지. 어느 겨울날, 그 아이는 ‘허디거디’를 돌리며 진입로 주변을 이리저리 다니고 있었는데, 주인님이 그 즉시 안으로 들이시고는 어디서 왔는지, 나이는 몇인지, 어떻게 먹고사는지, 친척은 어디 있는지 등을 더할 나위 없이 자상한 마음씨로 다 물어보셨어. 하지만 그 아이도 똑같이 뻘단다. 외국 사람들은 다루기 힘든 무리야, 내 생각엔. 그 소녀와 똑같이 어느 맑은 아침에 그냥 사라져 버렸지. 그 아이가 왜 떠났고 무슨 일을 했는지는 그 후로도 거의 일 년이나 우리 모두의 의문거리였단다. 자기 ‘허디거디’도 가져가지 않았거든. 지금도 선반 위에 그대로 놓여 있어."

밤의 나머지 시간은 스티븐이 번치 부인을 상대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며 보냈다. 그는 허디거디(원반 현악기)에서 멜로디를 끄집어내려 애썼다.

그날 밤, 그는 묘한 꿈을 꾸었다.

집 꼭대기 층, 그의 침실이 있는 복도 끝에는 오래되고 쓰이지 않는 욕실이 하나 있었다. 문은 항상 잠겨 있었지만, 문 위쪽 반은 유리로 되어 있었다. 예전에 걸려 있던 무스린 커튼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기에, 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안쪽 오른쪽 벽에는 납으로 안감 처리된 욕조가 고정되어 있었다. 욕조의 머리 부분은 창문을 향해 있었다.

내가 말하고 있는 그 밤, 스티븐 엘리엇은 자신이 유리가 달린 문을 통해 무언가를 응시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비쳤고, 그는 욕조에 누운 한 인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본 것에 대한 묘사는, 내가 더블린의 세인트 미한 성당의 유명한 지하 납골소에서 직접 본 것을 떠올리게 한다. 그곳은 시신을 수세기 동안 부패로부터 보존하는 끔찍한 성질을 지닌 곳이다. 형언할 수 없이 야위고 가련한, 먼지 낀 납빛의 형상이 수의 같은 옷에 싸여 있었고, 얇은 입술은 희미하고도 무서운 미소를 띤 채 비스듬히 휘어 있었으며, 두 손은 심장 부위를 단단히 누르고 있었다.

그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입술 사이로 멀리서, 거의 들리지 않을 듯한 신음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그리고 팔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광경이 던진 공포에 질려 스티븐은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실제로 달빛이 가득한 복도의 차가운 널판지 바닥에 서 있다는 사실을.

그의 나이 또래 소년들에게 흔치 않을 용기를 내어, 그는 욕실 문으로 다가가 꿈속의 형체가 정말로 그곳에 있는지 확인했다.

그 형체는 없었다. 그는 다시 침대로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 번치 부인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심지어 그녀는 욕실 유리문 앞에 무명 커튼을 다시 걸어두기까지 했다.

아침 식사 때 아브니 씨에게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자, 아브니 씨도 크게 흥미를 보였다. 그는 이를 '내 책'이라고 부르는 노트에 그 일을 기록해 두었다.

봄의 춘분이 다가오고 있었다. 아브니 씨는 사촌에게 이 사실을 자주 상기시켜 주며, 고대인들이 이를 젊은이들에게 있어 중요한 시기라고 여겨왔다고 덧붙였다. 스티븐이 자신을 조심하고 밤에는 침실 창문을 닫아야 한다고 조언했으며, 센소리누스도 이 주제에 대해 가치 있는 견해를 남겼다고 말했다. 이 무렵 두 가지 사건이 발생했고, 이는 스티븐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평소보다 훨씬 불안하고 답답한 밤을 보냈다. 하지만 그 밤에 꾸었던 구체적인 꿈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다.

다음 날 밤, 번치 부인은 그의 잠옷을 고치고 있었다.

"세상에나, 스티븐 도련님!" 그녀가 다소 짜증 섞인 어조로 외쳤다. "어쩔 이렇게 잠옷을 갈기갈기 찢어 놓으셨어요? 도련님 뒤통다꺼리로 집고 꺾매야 하는 가엾은 하인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좀 보세요!"

옷감에는 참으로 파괴적이고, 겉보기에 무의미한 일련의 찢어짐이나 굽힌 자국이 있었다. 이를 고치려면 정말 손재주가 뛰어난 바느질 솜씨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 자국은 가슴 왼쪽 면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길이가 약 여섯 인치쯤 되는 긴 평행선들이었고, 그중 일부는 린넨 조직을 완전히 뚫지 않고 표면만 파고든 듯했다. 스티븐은 이 자국의 정체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다만 어제 밤에는 분명히 그런 자국이 없었다는 사실만은 확신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가 말했다. “번치 부인, 그 자국들은 제 침실 문 바깥쪽에 난 굽힌 자국들과 똑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런 걸 만든 적이 없다는 건 확실해요.”

번치 부인은 입을 벌린 채 그를 응시했다. 그러더니 촛대를 급히 집어 들고는 방을 빠져나갔고, 계단을 올라가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몇 분 후, 그녀가 다시 내려왔다.

"음, 스티븐 도련님,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저 자국과 굽힌 흔적이 어떻게 저렇게 높은 곳에 생겼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네요. 고양이나

개도 닿을 수 없는 높이고, 쥐라면 더 말할 것도 없죠. 마치 중국인의 손톱 같다니까요. 우리가 어릴 적 같이 자라던 시절에, 차 무역을 하하던 제 삼촌이 들려주시던 그런 손톱 말이에요. 제가 도련님이라면 주인님께는 아무 말씀도 안 드릴 거예요. 그리고 잠자리에 드실 때는 꼭 문에 자물쇠를 채워두세요."

"저는 항상 그러죠, 번치 부인. 기도 끝나는 대로요."

"아, 참 착한 아이구나. 항상 기도하고 있으면 아무도 너를 해칠 수 없단다."

번치 부인은 상처 입은 잠옷을 고치는 일에 매달렸다. 중간중간 명상에 잠기기도 했지만, 결국 밤이 되어 침대에 눕기 직전까지 그 작업을 이어갔다. 그날은 1812년 3월의 어느 금요일 밤이었다.

다음 날 저녁, 평소처럼 스티븐과 번치 부인이 나누던 이중주에 갑자기 집사 파크스 씨가 끼어들었다. 평소엔 자기 식기실에 틀어박혀 좀처럼 남들과 어울리지 않던 사람이었다. 그는 스티븐이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게다가 평소보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말투도 평소처럼 느릿하지 않았다.

"주인님께서 저녁에 와인을 드시려거든 직접 가지러 가셔야겠습니까." 그의 첫 마디였다. "저는 낮에 하거나, 아니면 아예 안 하겠습니까, 번치 부인. 정확히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쥐 때문이거나 지하 저장실로 바람이 들이친 탓이겠지요. 하지만 저도 예전만큼 젊지 않아서, 예전처럼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파크스 씨, 그 홀이 쥐들한테는 놀라운 장소란 말입니다.”

"부정하진 않습니다, 번치 부인. 사실 조선소 사람들한테서 말할 줄 아는 쥐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지요. 전에는 그런 말을 한 번도 믿지 않았습시다만, 오늘 밤만은 만약 제가 체면 차리지 않고 안쪽 와인 저장칸 문에 귀를 대고 있었다면, 그놈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 거의 다 알아들었을 겁니다."

"오, 정말이지 파크스 씨, 당신의 그런 망상에는 도무지 참을성이 없어요! 와인 저장고에서 쥐들이 말을 한다니요!"

"좋습니다, 번치 부인. 당신과 논쟁할 생각은 없어요. 다만 한 마디 하자면, 만약 안쪽 와인 저장칸까지 가서 그 문에 귀를 대 보신다면, 제가 한 말이 사실인지 지금 이 순간에도 확인하실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파크스 씨,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시는군요. 아이들이 듣기에 적절치 않아요. 그러다 저기 계신 스티븐 도련님이 깜짝 놀라 정신이 다 나가시겠어요."

"뭐라고요! 스티븐 도련님이라고요?" 파크스가 그제야 소년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했다. "스티븐 도련님이야 제가 번치 부인과 농담을 주고받고 있다는 걸 잘 아시지요."

사실 스티븐 도련님은 파크스 씨가 처음부터 농담을 하려던 게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이 상황에 흥미를 느꼈으나, 그 흥미는 결코 유쾌한 종류만은 아니었다. 그러나 아무리 캐물어도,

그는 와인 저장고에서 겪은 일에 대해 집사로부터 더 자세한 이야기를 끌어내지는 못했다.

이제 우리는 1812년 3월 24일에 이르렀다. 스티븐에게는 묘한 체험으로 가득한 하루였다. 바람이 거세게 불고 시끄러운 날이어서, 집 안과 정원에는 안절부절못하는 듯한 기운이 가득 차 있었다.

스티븐이 영지 울타리 옆에 서서 공원 쪽을 내다보고 있을 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끝없는 행렬이 바람을 타고 자기 옆을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다. 그들은 거역할 수 없는 힘에 떠밀려 정처 없이 휩쓸려 가면서, 자신들의 흐름을 멈추려 헛되이 발버둥치며, 무언가를 붙들어야 할 때 자신들이 속해 있던 살아 있는 세계와 다시 닿아 보려 안간힘을 쓰는 듯했다. 그날 점심 식사 후, 아브니 씨가 말했다.

"스티븐, 얘야, 오늘 밤 늦은 시각, 열한 시쯤 내 서재로 올 수 있겠니? 그 시간까지는 내가 바쁘겠지만, 네 앞날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일을 보여주고 싶구나.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일이야. 이 일은 번치 부인에게도, 집안의 다른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 평소 시간에 네 방으로 가 있는 게 좋겠다."

새로운 흥분이 그의 삶에 더해졌다. 스티븐은 열한 시까지 깨어 있을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안달이었다.

그날 저녁, 그는 위층으로 올라가는 길에 서재 문을 살짝 들여다보았다. 평소 방 한구석에 놓여 있던 화로가 벽난로 앞으로 옮겨져 있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금도금 은컵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불

은 포도주가 가득 차 있었으며, 그 곁에는 무언가 쓰여 있는 종이 몇 장이 놓여 있었다. 스티븐이 지나갈 때, 아브니 씨는 둥근 은상자에서 향을 꺼내 화로 위에 뿌리고 있었지만, 그의 발소리는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았다.

바람은 그치고, 밤은 고요했다.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열 시쯤 되었을 때, 스티븐은 침실의 열린 창가에 서서 너른 들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밤은 고요했지만, 달빛에 비친 멀리 있는 숲의 신비로운 주민들은 아직 잠들지 않은 듯했다.

때때로 늑 너머로 잃어버린 방랑자들의 절규 같은 기이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부엉이나 물새의 소리일 수도 있었지만, 그 어떤 새의 울음과도 정확히 같지는 않았다.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은 아닌가? 이제 소리는 물가의 더 가까운 쪽에서 들려왔고, 몇 분 후면 그들은 수풀 사이를 떠도는 듯했다.

그러자 소리는 그쳤다. 스티븐은 창문을 닫고 『로빈슨 크루소』의 읽던 부분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다.

그때, 그는 홀의 정원 쪽으로 이어진 자갈 테라스 위에 두 형체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소년과 소녀처럼 보이는 두 사람이었다. 그들은 나란히 서서 창문들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소녀의 형상은 스티븐으로 하여금 목욕탕 속 인물의 꿈속 장면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그 기억은 도저히 떨쳐낼 수 없었다.

소년은 그보다 더 날카로운 공포를 안겨주었다.

소녀는 가만히 서 있었다. 살짝 미소를 띤 채, 두 손을 가슴 위에 모으고 있었다.

검은 머리에 누더기 옷을 걸친 마른 체구의 소년은 두 팔을 공중으로 들어 올렸는데, 그 모습에는 위협과 함께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굶주림과 갈망이 어려 있었다. 달빛이 거의 투명한 그의 손 위로 비쳤고, 스티븐은 손톱이 무서울 정도로 길고 그 사이로 빛이 비쳐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가 그렇게 팔을 들어 올린 채 서 있을 때, 끔찍한 광경이 드러났다. 그의 가슴 왼쪽에는 검고 크게 벌어진 틈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내내 아스워비 숲을 울리던 그 굶주리고 황량한 비명 가운데 하나가, 스티븐의 귀가 아니라 뇌리에 직접 내리쬐는 듯한 느낌이 닥쳐왔다. 다음 순간, 이 끔찍한 한 쌍은 마른 자갈 위를 재빠르고 소리 없이 지나갔고, 그는 더 이상 그들을 보지 못했다.

숨이 막힐 듯한 공포에 떨었지만, 그는 약속 시간이 가까워졌기에 촛불을 들고 애브니 씨의 서재로 내려가야겠다고 결심했다. 서재는 현관 홀 한쪽으로 통해 있었고, 공포에 떠밀린 스티븐은 금세 그곳에 다다랐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는 일은 쉽지 않았다. 문은 잠겨 있지 않은 게 분명했다. 열쇠가 평소처럼 문 바깥쪽에 꽂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여러 번 문을 두드렸으나 대답이 없었다. 애브니 씨는 무언가에 몰두해 있었다.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있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어째서 그는 비명을 지르려 했을까? 그리고 어째서 그 비명은 목구멍에서 막혀 버렸을까? 그도 그 기묘한 아이들을 본 것일까?

하지만 이내 모든 것이 잠잠해졌고, 공포에 사로잡혀 미친 듯이 밀어붙이는 스티븐의 손에 문이 마침내 열렸다.

애브니 씨 서재 책상 위에는 어떤 문서들이 놓여 있었다. 스티븐 엘리엇이 그 내용을 이해할 나이가 되었을 때, 그는 그 문서들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알게 되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문장들은 다음과 같았다.

고대인들은 매우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지혜에 대해 내가 겪은 경험은 그들의 주장을 신뢰하게 만든다. 그들은 특정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현대인들에게 야만적인 느낌을 주는 방식으로, 인간의 영적 능력을 매우 놀랍도록 고양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예를 들어, 특정 수의 동료들의 개성을 흡수함으로써 한 개인은 우리 우주의 원소적 힘을 통제하는 영적 존재들의 질서에 완전한 지배력을 얻을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다.

시몬 마구스는 한 소년의 영혼을 매개로 공중을 날고, 보이지 않게 되며, 원하는 어떤 형태로든 변할 수 있었다고 전한다. 그 아이는 클레멘타인 레코그니션스(Clementine Recognitions)의 저자가 비방조로 사용한 표현대로, 그가 ‘살해’한 소년이었다.

또한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Hermes Trismegistus)의 저술에는 매우 상세한 기록이 남아 있다. 스물한 살 미만인 인간 세 명의 심장을 흡수하면 비슷한 기적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처방이 진실인지 검증하는 데, 나는 지난 스무 해의 대부분을 바쳤다. 실험의 재료로 삼은 이들은 사회에서 눈에 띄는 공백을 남기지 않고 편리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자들이었다.

첫 번째 단계는 1792년 3월 24일, 집시 피를 이어받은 소녀 피비 스탠리(Phoebe Stanley)를 제거함으로써 성취했다. 두 번째는 1805년 3월 23일 밤, 떠돌이 이탈리아 소년 조반니 파올리(Giovanni Paoli)를 제거함으로써였다.

마지막 ‘희생자’—내 감정에 가장 혐오스러운 단어다—는 내 사촌 스티븐 엘리엇(Stephen Elliott)이다. 그의 날은 바로 1812년 3월 24일이다.

필요한 흡수를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살아 있는 피험자로부터 심장을 꺼내어 재로 만들고, 이 재를 포트와인과 같은 붉은 와인 한 파인트 정도와 섞는 것이다. 적어도 처음 두 피험자의 유해는 숨겨 두는 것이 좋다. 사용하지 않는 욕실이나 와인 저장고가 그런 목적에 편리할 것이다.

피험자들의 영적인 부분, 즉 대중적인 말로 ‘유령’이라고 부르는 존재들로부터 약간의 성가신 일을 겪을 수도 있다. 하지만 철학적 기질을 지닌 자—이 실험은 오직 그런 사람에게만 적합하다—라면, 자신에게

복수하려는 그러한 존재들의 미약한 시도에 큰 의미를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실험이 성공한다면 나에게 가져다줄 확장되고 해방된 존재를 가장 생생한 만족감으로 바라본다. 그것은 나를 이른바 인간의 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죽음 자체의 가능성마저 상당 부분 제거해 줄 것이다.

애브니 씨는 의자에서 발견되었다. 머리를 뒤로 젖힌 채, 얼굴에는 분노와 공포, 그리고 치명적인 고통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의 왼쪽 옆구리에는 끔찍하게 찢겨 나간 상처가 있어 심장이 드러나 있었다.

손에는 피 한 방울도 묻어 있지 않았다. 책상 위에 놓인 긴 칼도 완벽하게 깨끗했다. 이 상처는 야생 고양이 한 마리가 입힌 것으로 보일 정도였다. 서재의 창문은 열려 있었고, 검시관은 애브니 씨가 어떤 야생 동물에게 살해당했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스티븐 엘리엇은 내가 인용한 문서들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

메조틴트

오래전, 저는 데니스틴이라는 제 친구에게 일어났던 어떤 사건의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케임브리지 박물관을 위한 미술품을 수집하러 다니던 중에 그 일을 겪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후, 그는 자신의 경험을 널리 퍼뜨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일은 그의 많은 친구들에게 알려지지 않을 수 없었고, 다른 대학의 미술관을 이끌고 있던 한 신사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데니스턴과 비슷한 소명을 가진 남자에게 이 이야기는 큰 인상을 남겼을 것이 분명했다. 그는 이 일이 결코 자신에게 닥칠 것 같지 않은, 그러니까 이런 극도의 긴장을 요구하는 상황에 대처해야 할 일이 없을 것이라는 설명을 간절히 붙잡고 싶어 했다.

그는 위안이 되었다. 자신의 기관이 고대 필사본을 수집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Shelburnian Library의 일이었다. 만약 원한다면, 그 기관의 당국자들은 대륙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뒤져 그러한 것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그는 당분간 자신의 관심을 이미 압도적으로 훌륭해진, 자신의 미술관이 보유한 영국 지형도화와 판화 수집품을 확장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점에 안도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렇게 평범하고 친숙해 보이는 부서조차도 어두운 구석은 있을 수 있었다. 그리고 윌리엄스 씨는 뜻밖에도 그러한 곳 중 한 곳에 발을 들이게 되었다.

지형도 그림 수집에 아주 미미하게라도 관심을 가져 본 사람이라면, 그들의 연구에 도움이 필수불가결한 런던의 한 화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J. W. 브리틀넬 씨는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저택, 교회, 도시들을 그린 판화와 평면도, 오래된 스케치들로 이루어진, 방대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재고 목록을 짧은 간격으로 매우 훌륭한 카탈로그로 발행한다. 이 카탈로그들은 윌리엄스 씨에게는 그 분야의 기초

나 다름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미술관에는 이미 막대한 양의 지형도 그림이 쌓여 있었기에, 그는 다량으로 사들이는 손님이라기보다는 정기적으로 꾸준히 사들이는 단골이었다. 그래서 그는 브리틀넬 씨에게서 희귀품을 얻기보다는, 자기 소장품에서 비어 있는 자리를 메워 주기를 기대하는 편이었다.

작년 2월, 박물관의 윌리엄스 씨 책상 위에 브리틀넬 씨의 상점에서 온 카탈로그 한 부가 놓였고, 그와 함께 화상 본인이 직접 보낸 타자기로 친 편지가 동봉되어 있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존경하는 귀하,

동봉된 카탈로그의 978번 항목에 주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당 항목은 승인 후 발송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귀하께 경의를 표합니다,

J. W. 브리틀넬

윌리엄스 씨에게는 (그 자신도 속으로 느꼈듯이) 동봉된 카탈로그에서 978번 항목을 찾아보는 일이 순식간의 일이었고, 편지가 가리킨 자리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발견했다.

978.—\_미상.\_ 흥미로운 메조틴트: 금세기 초의 장원 저택 풍경. 크기 15×10인치, 검은색 액자. 2파운드 2실링.

흥미진진한 내용은 아니었고, 가격도 좀 비싸 보였다. 그러나 자기 일과 고객을 잘 아는 브리틀넬 씨가 그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듯했기에, 윌리엄스 씨는 같은 카탈로그에 실린 다른 판화와 스케치 몇 점과 함께 그 작품을 검토용으로 보내 달라고 부탁하는 엽서를 써 보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별다른 기대 없이 그날의 평범한 일과로 넘어갔다.

어떤 소포든 예상보다 하루는 늦게 도착하기 마련인데, 브리틀넬 씨의 소포 역시—흔히들 쓰는 표현을 빌리자면—그 법칙의 예외가 아니었다. 소포는 토요일 오후 우편으로 박물관에 배달되었는데, 그때는 이미 윌리엄스 씨가 일을 마치고 떠난 뒤였다. 그래서 그가 일요일을 넘기지 않고 내용물을 살펴보고 보관하지 않을 것을 돌려보낼 수 있도록, 관리인이 그것을 대학 안 그의 방으로 가져다 두었다. 그가 친구와 차를 마시러 들어왔을 때, 소포는 그곳에 놓여 있었다.

내가 관심을 둔 것은 오직 한 점뿐이었다. 이미 브리틀넬의 카탈로그에 실린 짧은 설명을 인용했던, 크기가 제법 되는 검은색 액자의 메조틴트 판화였다. 이 그림에 대한 몇 가지 추가적인 세부 사항을 설명해야 하지만, 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오르는 그 느낌을 독자에게 그대로 전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도 많은 오래된 여관 거실이나, 손대지 않은 시골 저택의 복도에서 거의 동일한 복제본을 찾아볼 수 있다. 이 판화는 평범한 수준이었다. 그리고 평범한 메조틴트는 아마도 알려진 판화 기법 중에서도 가장 형편없는 형태일 것이다.

그림 속에는 지난 세기 양식의, 그리 크지 않은 매너 하우스가 정면으로 그려져 있었다. 벽면에는 평범한 새시 창문이 세 줄로 늘어서 있었고, 창가에는 거친 석재 장식이 둘러져 있었다. 지붕 끝에는 모서리에 구형이나 화병 모양의 장식이 달린 난간이 있었고, 중앙에는 작은 포치가 있었다. 양쪽에는 나무들이 서 있었고, 앞쪽에는 넓은 잔디밭이 펼쳐져 있었다.

화면의 좁은 여백에는 'A. W. F. sculpsit'이라는 각인이 새겨져 있을 뿐, 다른 글귀는 없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작품은 아마추어의 솜씨로 보였다.

브리트넬이 왜 하필이면 £2 2s라는 가격을 매겼는지, 윌리엄스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경멸 어린 눈초리로 판화를 뒤집었다. 뒷면에는 종이 라벨이 붙어 있었지만, 왼쪽 절반이 찢겨 나간 상태였다. 남아 있던 것은 두 줄의 글씨 끝부분뿐이었다. 첫 줄의 끝에는 'ngley Hall'이라는 글자가, 두 번째 줄에는 'ssex'라는 글자가 보였다.

그가 그린 장소를 특정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지명사전만 있다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장소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을 테니. 그렇게 되면 그는 그 그림을 브리트넬 씨에게 되돌려 보내며, 그 분의 식견에 대해 몇 마디 냉소적인 평을 곁들일 것이다.

그는 이미 어둠이 내린 탓에 촛불을 켜고 차를 끓였다. 그리고 그와 함께 골프를 치던 친구에게도 차를 대접했다. (내가 아는 바로는, 내가 글로 다루고 있는 이 대학의 당국자들도 여가 선용으로 골프를 즐기는 모양이다.) 차를 마시며 나눈 대화는 골프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스스로 상상할 수 있는 것이었으나, 양심적인 필자로서는 골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까지 그 내용을 강요할 권리는 없는 법이다.

결론은 이랬다. 몇몇 수를 더 잘 두었더라면 했다는 것과, 어떤 위기 상황에서는 두 사람 모두 인간이 마땅히 기대할 만한 행운을 누리지 못 했다는 것이었다. 이때 친구, 그러니까 빈크스 교수라 부르자,가 액자에 넣은 판화를 들어 올리며 말했다.

“이곳이 어디냐, 윌리엄스?”

"정확히 제가 찾아보려던 바로 그겁니다." 윌리엄스는 책장 쪽으로 걸어가 가제티어(지명사전)를 꺼내며 말했다. "뒷면을 보십시오. 어찌고 ngley Hall이라 되어 있네요. 서식스주일 수도 있고 에식스주일 수도 있습니다. 이름의 절반이 지워져 있죠. 혹시 짐작 가는 곳은 없으세요?"

“브리트넬이라는 그 남자가 보낸 거겠지?” 빈크스가 말했다. “박물관으로 보내는 건가?”

"글쎄, 만약 가격이 5실링이라면 제가 사겠습니다." 윌리엄스가 말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는 그것에 2기니나 받겠다는군요. 도대체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갑니다. 형편없는 판화인 데다, 생기를 불어넣을 만한 인물조차 없으니까요."

“두 기니의 값어치는 없는 것 같군요.” 빈크스가 말했다. “하지만 그다지 못 그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달빛 묘사가 꽤 좋더군요. 그리고

전면에 가장자리 쪽을 보면, 인물들이 있거나 적어도 한 명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봅시다.” 윌리엄스가 말했다. “정말 빛 처리는 꽤 기교적이군. 자네가 말한 인물은 어디 있지? 아, 맞아! 그림 맨 앞쪽에 머리만 있군.”

실제로 있기는 했다. 판화의 가장자리에 거의 검은 얼룩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작게 찍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를 한 사람의 머리였다. 두툼한 무엇으로 잔뜩 감싸여 있었고, 등을 관객 쪽으로 돌린 채 저택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윌리엄스는 그 전에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물론 그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정교한 작품이야. 하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곳의 그림에 박물관 돈을 두 기나나 쓸 수는 없지.”

빈크스 교수는 할 일이 있어 곧 자리를 떴다.

윌리엄스는 홀 시각이 거의 임박할 때까지도, 그림 속 장소가 어디인지 알아내려 애썼다. 하지만 헛수고였다.

'ng' 앞의 모음만 남아 있었어도 어렵지 않게 알아낼 수 있었을 텐데, 하고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 이 이름은 게스팅리에서 랭리까지, 그 사이 무엇이든 될 수 있었다. 더구나 이렇게 끝나는 이름이 생각

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게다가 이 형편없는 책에는 어떠한 색인조차 없었다.

윌리엄스 씨의 칼리지 홀에서는 저녁 7시에 식사가 열렸다. 그 풍경은 굳이 자세히 묘사할 필요도 없다. 오후 내내 골프를 치고 온 동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기 때문이다. 식탁 위에서는 우리가 알 바 아닌 말들이 오갔다. 단지 골프에 관한 말들이었을 뿐이다.

저녁 식사 후 한 시간쯤은 흔히 '공동 거실'이라 불리는 곳에서 보냈으리라. 밤이 깊어갈 무렵, 몇몇 사람은 윌리엄스의 방으로 물러났다. 그곳에서 휘스트를 치고 담배를 피웠으리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 가운데 잠시 휘스트가 멈춘 틈을 타, 윌리엄스는 보지도 않은 채 테이블 위에 놓인 메조틴트를 집어 들었다. 그는 그것을 예술에 다소 관심이 있는 한 사람에게 건네주며, 그 그림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을 설명해 주었다.

신사는 그것을 무심코 받아 들었다. 그리고는 그것을 살펴본 뒤, 어느 정도 흥미를 보인 어조로 말했다.

“정말 훌륭한 작품이군요, 윌리엄스. 낭만주의 시대의 분위기가 잘 살아 있습니다. 빛의 처리도 훌륭하고요. 비록 인물이 다소 기괴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네, 정말 그렇죠?" 윌리엄스가 말했다. 그는 그때 마침 자리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위스키 소다를 따라주느라 바빠서, 방 건너편으로 가서 그 그림을 다시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다.

이쯤 되자 밤은 이미 깊었다. 방문객들은 자리를 뜨고 없었다. 그들이 떠난 뒤, 윌리엄스는 부득이하게 편지를 몇 통 쓰고, 손에 잡히는 대로 남은 일들을 처리해야 했다.

드디어 자정이 훨씬 지난 시각, 그는 드디어 잠자리에 들 생각에 잠겼다. 침실의 촛불에 불을 붙인 뒤, 그는 등불을 끄려 했다.

그때, 그의 시선이 책상 위에 놓인 그림에 고정되었다. 그림은 방금 전 마지막으로 그것을 들여다본 사람이 올려놓은 그대로, 앞면이 위를 향하고 있었다. 등불을 끄는 순간, 그는 그림을 보았다.

그가 본 것은 촛불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하게 만들었다. 그는 지금도 이렇게 증언한다. 만약 그 순간 방이 완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다면, 그는 기절했으리라고.

하지만 다행히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등불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그림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것은 분명했다. 비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지만, 절대적으로 확실한 사실이었다.

오후 다섯 시에는 아무도 없었던, 저택 앞 잔디밭 한가운데에 누군가 있었다. 그것은 네 발로 기어 저택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이상한 검은 옷에 감싸여 있었다. 옷등에는 하얀 십자가가 새겨져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이상적인 대처가 무엇인지 나는 알지 못한다. 다만 윌리엄스 씨가 취한 행동을 말씀드릴 수 있을 뿐이다.

그는 그림을 한쪽 모서리만 잡고 들어 올렸다. 그리고 복도를 건너 자신이 소유한 두 번째 방들로 가져갔다. 그곳에서 그는 그 그림을 서랍 속에 잠가 두었다. 그리고 두 방의 문 모두에 자물쇠를 채운 뒤, 침대로 돌아갔다.

그가 잠들기 전, 그는 그림이 자신의 소유가 된 이후 겪은 기이한 변화를 기록한 글을 작성하고 서명했다.

수면은 제법 늦게 찾아왔다. 하지만 그림의 변화가 자신의 막연한 의심에만 기반한 것이 아님을 생각하니 위안이 되었다. 전날 밤 그림을 응시했던 사람이 자신과 똑같은 광경을 목격했다면, 자신의 눈이나 정신에 심각한 이상이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추측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터였다. 다행히도 그런 가능성은 배제되었으므로, 내일 당장 해결해야 할 두 가지 과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첫째, 그림을 매우 신중하게 점검하고, 그 목격자로 증인을 불러야 했다. 둘째, 그림 속에 묘사된 그 집이 대체 어디인지 확실히 알아내야 했다. 그는 이웃 니스벳을 아침 식사에 초대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 후 오전 내내 지명사전과 지도책을 펼쳐 들고 그 장소를 찾아내는 데 매진할 작정이었다.

니스벳은 마침 일정이 비어 있어 9시 30분쯤 도착했다. 송구하게도 이 늦은 시각인데도 그의 주인은 채 옷을 다 차려입지 못한 상태였다.

아침 식사 내내 윌리엄스는 메조틴트 판화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니스벳의 의견을 듣고 싶은 그림이 한 점 있다고만 말했다.

하지만 대학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캔터베리 칼리지의 두 펠로가 일요일 아침 식사 중에 나눌 대화의 폭이 얼마나 넓고 즐거운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골프에서 잔디 테니스(lawn-tennis)에 이르기까지, 도마에 오르지 않은 주제가 거의 없었다.

그렇지만 윌리엄스가 다소 마음이 산란해 보였다는 말은 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관심은 자연스럽게도, 건너편 방 서랍 속에 앞면을 아래로 한 채 놓여 있는 그 아주 기묘한 그림에 쏠려 있었기 때문이다.

드디어 아침 담배에 불이 붙었고, 그가 기다려 온 순간이 왔다. 거의 떨릴 만큼 큰 흥분에 사로잡힌 그는 서둘러 건너가 서랍의 자물쇠를 풀고, 그림을 — 여전히 앞면이 아래를 향한 채로 — 꺼내 들고 다시 뛰 어와 니스벳의 손에 쥐여 주었다.

“이제, 니스벳, 그 그림에서 정확히 무엇을 보았는지 내게 말해 줘. 괜찮다면 아주 세세하게 묘사해 주게. 이유는 나중에 말해 줄게.”

"음," 니스벳이 말했다. "여기 한 시골 저택의 풍경이 있군 — 영국 저택일 듯한데 — 달빛 아래의 모습이야."

“달빛이라고? 정말로?”

“물론이지. 자세히 알고 싶다면, 달이 점점 이지러지고 있는 것 같아. 하늘에는 구름도 끼어 있고.”

“좋아. 계속해. 내가 증언할게.” 윌리엄스가 옆에서 속삭였다. “처음 그걸 봤을 때는 달이 없었어.”

“글쎄요, 더 말할 것도 없군요.” 니스벳이 이어 말했다. “그 집 창문은 세 줄입니다. 한 줄에 다섯 개씩요. 다만 아래층은 다릅니다. 중앙에 창문 대신 현관이 있고, 그리고—”

“그런데 형상 같은 건 없나요?” 윌리엄스가 깊은 흥미를 나타내며 물었다.

“없소.” 니스벳이 말했다. “하지만—”

“뭐? 잔디밭 앞에 형상이 없단 말이야?”

“아무것도 없다.”

“그걸 두고 맹세할 수 있어?”

“물론이지. 하지만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

“뭐라고?”

“아, 지층 창문 중 하나가 열려 있군요. 문 왼쪽에 있는 창이요.”

“정말 그러합니까? 세상에, 그가 안으로 들어왔군요.” 윌리엄스가 큰 흥분 속에 말했다. 그는 니스벳이 앉아 있는 소파 뒤로 급히 달려가, 니스벳에게서 그림을 받아 직접 확인했다.

사실이였다. 그림 속 인물은 없었고, 창문은 열린 채였다. 윌리엄스는 잠시 말도 못 할 정도로 놀란 뒤, 책상 앞으로 가서 잠시 필기를 했다. 그리고는 두 장의 종이를 니스벳에게 건네며, 먼저 한 장에 서명하라고 했다. 그것은 방금 들었던, 그림에 대한 그의 설명이였다. 그리고 다른 한 장을 읽게 했는데, 그것은 전날 밤 윌리엄스가 써 둔 진술서였다.

“이 모든 것이 대체 무슨 뜻일까?” 니스벳이 물었다.

"그렇지요." 윌리엄스가 말했다. "음, 내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어요—아니, 생각해 보니 세 가지군요. 우선 가우드에게서—그가 어젯밤 우리 방에 왔던 사람인데—그가 무엇을 보았는지 알아내야 해요. 그리고 이 일이 더 진행되기 전에 사진으로 찍어두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이 장소가 어디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사진은 제가 직접 찍겠습니다. 반드시요. 하지만 우리가 어디선가 벌어지는 비극의 목격자가 된 것 같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미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입니다. 그 장소가 어디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는 다시 그림을 바라보며 말했다.

“네, 맞습니다. 그 남자가 들어왔군요. 그리고 제 눈이 멀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위층의 어느 방에서 큰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렇게 하지." 윌리엄스가 말했다. "이 그림을 늙은 그린 영감에게 가져가 보자." (그는 이 대학의 시니어 펠로우로, 오랫동안 회계 담당을 지낸 사람이었다.) "그분이라면 이걸 알아보실 거야. 우리 대학이 에식스와 서식스에 영지를 두고 있으니까, 그분은 평생 동안 그 두 주를 무던히도 다니셨을 테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니스벳이 말했다. “하지만 제 사진을 먼저 찍게 해 주세요. 그런데 잠깐, 그린 씨가 오늘 출근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제 밤 홀에 나타나지 않았고, 일요일에 내려간다고 말한 것도 들었어요.”

"그것도 맞아." 윌리엄스가 말했다. "그가 브라이튼에 갔다는 건 나도 알고 있어. 자, 지금 사진을 찍어 주면, 나는 가우드에게 가서 그의 진술을 받아 올게. 내가 없는 동안 자네가 그림을 잘 지켜봐 줘. 이제와 보니 2기니라는 가격이 그리 터무니없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군."

잠시 후 그는 가우드 씨를 데리고 돌아왔다. 가우드의 진술에 따르면, 그가 그 형상을 보았을 때 그것은 이미 그림 가장자리에서 벗어나 있었으나, 잔디밭을 가로질러 멀리까지는 가지 않았다. 그는 그 옷자락 뒷면에 흰 자국이 있었던 것을 기억했지만, 그것이 십자가인지까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문서가 작성되어 서명되었고, 니스벳은 그림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지금 뭘 하려는 거야?” 그가 말했다. “하루 종일 거기 앉아 지켜볼 셈이야?”

"아니, 그러진 않을 거야." 윌리엄스가 말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이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주려는 것 같아. 어제 밤 처음 본 때부터 오늘 아침까지 시간이 꽤 흘렀고, 그 사이 무슨 일이든 벌어질 수 있었지만, 그 존재는 단지 집 안으로 들어갔을 뿐이지. 그 짧은 사이에 일을 다 끝내고 제자리로 돌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창문이 열린 채로 남아 있다는 건 지금도 그것이 그 안에 있다는 뜻일 거야. 그러니 두고 가도 마음이 놓여. 게다가 이 그림이 낮 동안에는 거의 변하지 않을 거라는 직감도 들고. 오후에 우리끼리 산책이라도 나갔다가, 차 시간이나 어두워질 때쯤 돌아오면 돼. 나는 그걸 여기 이 책상 위에 그대로 두고 바깥문을 닫아두겠어. 내 하인은 들어올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못 들어와."

세 사람은 이 계획이 좋다고 동의했다. 더구나 오후를 함께 보낸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일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줄어든 것이라고 생각했다. 현재 진행 중인 이런 거래에 대한 루머가 돌면, 파스마토로지 학회 전체가 그들에게 때로 물려들 것이기 때문이었다.

다섯 시까지 잠시 유예해 주자.

그 시각이 다 되어 갈 무렵, 세 사람은 윌리엄스의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처음 그들은 그의 방 바깥문이 닫혀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약간 짜증이 났다. 그러나 곧, 일요일에는 하인들이 평일보다 한 시간쯤 일찍 분부를 받으러 온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뜻밖의 광경이었다. 그들이 가장 먼저 본 것은 책상 위 책 더미에 기대어 놓아둔 그대로 있는 그림이었다. 그다음 눈에 들어온 것은 윌리엄스의 하인이었다. 그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그 그림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 눈빛에는 숨김없는 공포가 어려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필처 씨(이 이름은 내가 임의로 지어낸 것이 아니다)는 상당한 경력의 하인이었으니, 자기가 일하는 대학뿐 아니라 인근 여러 대학에까지 예법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었다. 주인의 의자에 앉아 있다거나 주인의 가구나 그림에 유난한 관심을 보이는 듯한 모습은, 그의 평소 행실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다. 사실 그 스스로도 그것을 느낀 듯했다. 세 사람이 방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격렬하게 흠칫 놀라더니, 애써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함부로 앉아 있어 죄송합니다, 도련님."

"전혀 아닙니다, 로버트." 윌리엄스 씨가 끼어들었다. "나중에 그 그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볼까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글쎄요, 도련님. 물론 제가 감히 도련님 의견에 대들 생각은 없습니다만, 저라면 우리 어린 딸이 볼 수 있는 자리에 저런 그림을 걸어두지는 않을 겁니다요, 도련님."

"당신도 그러지 않겠소, 로버트? 왜 안 하시오?"

"네, 도련님. 글쎄요, 그 가엾은 아이가, 한번은 도레 성경책을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 그림은 이 그림의 반도 안 무서운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저희가 사흘이나 나흘 밤을 곁에서 같이 새워줘야 했답니다,

정말로요. 그러니 만약에 이 해골인지 뭔지가 가없는 어린아이를 안고 가는 모습을 그 애가 보기라도 한다면, 아주 큰 충격을 받을 거예요. 아이들이 어떤지 도련님도 잘 아시잖아요. 사소한 것 하나에도 얼마나 신경이 곤두서는지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 그림은 이렇게 아무 데나 놓아둘 만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요, 도련님. 깜짝 놀랄 만한 사람이 우연히 마주칠 수 있는 곳에는 말씀이죠. 오늘 저녁에 필요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도련님? 감사합니다, 도련님."

이 말을 남기고 그 훌륭한 사내는 자기가 모시는 다른 주인들을 마저 돌보러 나섰다. 그가 남기고 간 세 신사들이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그 판화 주위로 모여들었으리라는 점은 짐작하실 만하다. 그곳에는 전과 마찬가지로 이지러져 가는 달과 흘러가는 구름 아래 그 집이 있었다. 열려 있던 창문은 닫혀 있었고, 그 형상은 다시 한 번 잔디밭 위에 있었다. 다만 이번에는 두 손과 두 무릎을 짚고 조심스레 기는 모습이 아니었다. 이제는 똑바로 서서, 긴 보폭으로 그림의 앞쪽을 향해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다. 달은 그 뒤에 있었고, 검은 천이 얼굴 위로 늘어져 있어 그 윤곽은 어렴풋이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이었으나, 그나마 보이는 부분 덕분에 보는 이들은 그 이상이 보이지 않는 것에 깊이 안도했다. 흰 돛처럼 둥근 이마와 몇 가닥의 형클어진 머리칼이 보였을 뿐이기 때문이다. 머리는 아래로 숙여져 있었고, 두 팔은 무언가를 꼭 끌어안고 있었다. 그 팔 안에는 어렴풋이 한 아이가 있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으나,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 형상에서 또렷하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오직 다리뿐이었는데, 끔찍할 정도로 가늘었다.

오후 다섯 시부터 일곱 시까지 세 사람은 번갈아 가며 그림을 지켜 보았다. 하지만 그림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들은 마침내 그림을 그대로 두고 돌아가도 안전하다고 결론 내렸다. 그리고 만찬(홀)을 마친 뒤 다시 찾아와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그들이 가능한 한 빨리 다시 모였을 때, 판화는 그대로였으나 인물은 사라진 뒤였다. 집은 달빛 아래 고요했다. 할 수 없이 그들은 저녁 내내 지리지와 안내서를 뒤적였다. 결국 윌리엄스가 행운을 잡았다. 어쩌면 그는 그 행운을 받을 자격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밤 11시 30분, 그는 머레이의 『에식스 안내서』에서 다음 구절을 읽어냈다.

16마일 반, 안닝슬리. 교회당은 노르만 시대의 흥미로운 건물이었으나, 지난 세기에 들어 대대적으로 고전주의 양식으로 개축되었다. 그 안에는 프랜시스 가문의 무덤이 있다. 프랜시스 가문의 저택인 안닝슬리 홀은 견고한 퀸 앤 양식의 건물로, 교회 묘지 바로 너머 약 80에이커의 공원 안에 자리 잡고 있다. 그 가문은 이제 단절되었으니, 마지막 후계자가 1802년 갓난아이 시절에 의문스럽게 사라졌기 때문이다. 부친인 아서 프랜시스 씨는 지역에서 재능 있는 아마추어 메조틴트 판화가로 알려져 있었다. 아들이 사라진 뒤 그는 홀에 완전히 칩거했고, 그 비극이 일어난 지 꼭 3년이 되던 날 자신의 작업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그는 그때 막 그 저택을 그린 판화 한 점을 완성한 참이었는데, 이 판화의 인쇄본은 매우 희귀하다.

이것은 뭔가 단서가 될 것 같았다. 실제로 그린 씨는 돌아오자마자 그 집이 안닝슬리 홀이라는 것을 즉시 알아보았다.

"그 인물에 대해 어떤 설명이라도 있나요, 그린?" 윌리엄스가 당연히 그렇게 물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 윌리엄스 씨. 제가 이곳에 오기 전, 그곳을 처음 알았을 때 사람들이 흔히 하던 말이라곤 이것뿐이었습니다. 노(老) 프랜시스 씨가 그 밀렵꾼들을 아주 못마땅해해서, 기회만 닿으면 의심 가는 자를 영지에서 쫓아내곤 했고, 그렇게 차츰차츰 단 한 사람만 남기고 모조리 내쫓아 버렸다는 거지요. 그 시절에는 지주들이 지금 같으면 감히 엄두도 못 낼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겨진 그 남자는 이 지방에서 꽤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이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가문의 마지막 후예 말입니다. 한때는 그 집안이 이 장원의 영주였다고도 합니다. 저희 교구에서도 똑같은 사례를 본 기억이 납니다."

"테스 오브 더 더버빌 가의 남자처럼?" 윌리엄스가 끼어들었다.

"그렇겠죠. 저로서는 도무지 읽을 엄두가 안 나는 책이지만요. 하지만 이 친구는 그곳 교회에서 자기 조상들의 묘가 줄지어 늘어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내였답니다. 그런 모든 사정이 그를 조금 비뚤어지게 만들었던 모양이지요. 그런데 사람들 말로는, 프랜시스가 도무지 그를 잡아낼 수가 없었답니다. 그는 늘 법의 테두리 안쪽에만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사냥터지기들이 영지의 끄트머리 숲에서 마침내 그가 그 짓을 하는 현장을 덮친 겁니다. 그 자리는 지금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제 삼촌이 한때 소유했던 땅과 맞닿아 있거든요. 큰 소동이 벌어졌으리란 건 짐작하시겠지요. 그리고 이 가디라는 사내가—그래요, 이름이 가디였습니다. 떠올릴 줄 알았어요, 가디—불운하게도,

가엸은 친구! 사냥터지기 한 명을 쏘아 죽이고 만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프랜시스가 바라던 바였고, 당시 대배심이 어떤 자들이었는지는 아시잖아요. 가엸은 가디는 눈 깜짝할 새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가 묻힌 자리도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어요. 교회 북쪽이지요. 그 지방의 관습은 아시겠지만, 교수형에 처해졌거나 자살한 자들은 다 그쪽에 묻거든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추측이 떠돌았지요. 가디의 어떤 친구가—친척은 아닙니다. 가엸은 녀석에게는 친척이 한 명도 없었으니까요. 그는 자기 집안의 마지막 남은 핏줄, 말하자면 ‘*spes ultima gentis*’, 곧 ‘가문의 마지막 희망’과도 같은 존재였거든요—프랜시스의 아들을 손에 넣어 그쪽 혈통도 끊어 놓으려고 일을 꾸밌을 거라고 말이지요. 글썄요, 에식스의 밀렵꾼이 그런 생각까지 떠올렸다는 건 좀 엉뚱한 얘가지요. 하지만 지금 와서 보면, 차라리 죽은 가디 본인이 직접 그 일을 해치웠다고 보는 편이 더 그럴듯해 보입니다. 오, 생각만 해도 끔찍하군요! 윌리엄스, 위스키 한 잔 하시지요!”

이 이야기는 윌리엄스가 데니스턴에게 전했고, 데니스턴은 다시 내가 끼어 있던 어떤 잡다한 모임에서,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두가이파 성향의 뱀학(Ophiology) 교수에게도 들려주었다. 유감스럽지만 그 교수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저 “아, 그 브리지퍼드 사람들이야 뭐든 말하지요”라고만 응대했고—그 발언은 마땅히 받아야 할 푸대접을 받았다.

덧붙일 말은 이뿐이다. 그 그림은 현재 애슬리언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림에 비밀 잉크(sympathetic ink)가 사용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한 처리가 행해졌지만, 별다른 결과는 얻지 못했다. 브리트넬 씨는

그 그림에 대해 보기 드문 물건이라는 점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 후로 면밀히 지켜보았음에도, 그림이 다시 변한 일은 한 번도 없었다.

### **\*\*물푸레나무\*\***

동부 잉글랜드를 여행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곳 여기저기에 점점이 박혀 있는 작은 시골 저택들을 알고 있다. 다소 녹녹한 인상을 주는 자그마한 건물들로, 대개는 이탈리아 양식이며, 80에서 100에이커 가량의 공원에 둘러싸여 있다. 나에게 그런 집들은 늘 매우 강한 매력으로 다가왔다. 갈라넨 참나무로 만든 회색 울타리, 당당히 자란 나무들, 갈대밭이 우거진 호수, 그리고 저 멀리 늘어선 숲의 띠. 그리고 나는 기둥이 늘어선 현관 포치도 좋아한다. 18세기 말의 ‘그리스풍’ 취향에 맞추려고 회벽으로 외관을 마감한 붉은 벽돌의 쿤 앤 양식 저택에, 마치 갓다 붙인 듯 얹혀 있는 그런 포치 말이다. 안쪽의 홀은 지붕까지 뽕 뚫려 올라가는데, 그런 홀에는 반드시 회랑과 작은 오르간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도서관도 좋아한다. 13세기 시편집에서부터 셰익스피어 사절판본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발견할 수 있는 곳이니까. 물론 그림들도 좋아한다. 그리고 어쩌면 무엇보다도 좋아하는 것은, 그런 집이 처음 지어졌을 무렵의 삶, 그리고 영주들의 부귀가 한껏 흥성하던 시절의 삶을 그려 보는 일이다. 그리고 그 못지않게, 지금의 삶을 그려 보는 일도 좋아한다. 돈은 그때만큼 풍족하지 않을지 몰라도 취향은 한결 다양해졌고, 삶 역시 조금도 못지않게 흥미롭게 흘러가고 있는 바로 그 지금의 삶을. 나는 이런 집을 한 채 가지고 싶다. 그리고 그 집을 그

대로 유지하면서 친구들을 소박하게 초대할 수 있을 만큼의 돈도 함께 가졌으면 한다.

하지만 이걸 결길로 새는 이야기다. 이제 내가 들려주려는 것은, 위에서 그려 본 것과 같은 저택에서 일어난 기묘한 일련의 사건들이다. 그 집은 서퍽에 있는 캐스트링햄 홀(Castringham Hall)이다. 내 이야기 시점 이후로 그 건물에는 적지 않은 손이 갔으리라 짐작되지만, 내가 간략히 묘사한 핵심적인 특징들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다. 이탈리아식 포르티코, 네모반듯한 흰 본관, 겉보다 안이 더 오래된 구조, 가장자리에 숲이 둘러친 공원, 그리고 호수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 집을 다른 수많은 저택들과 구별 짓던 한 가지 특징은 이제 사라지고 없다. 공원에서 집 쪽을 바라보면, 오른쪽으로 거대한 노목 한 그루—오래된 물푸레나무—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집의 벽에서 채 여섯 야드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자라난 그 나무는, 가지가 건물 벽에 거의, 아니 어쩌면 완전히 닿아 있었다. 캐스트링햄이 더 이상 요새가 아니게 되고 해자가 매워진 뒤 엘리자베스 시대의 본관이 세워졌을 무렵부터, 그 나무는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리라. 어쨌든 1690년 무렵에는 이미 거의 다 자란 모습이었다.

그 해, 홀이 자리한 지역에서는 수많은 마녀 재판이 열렸다.

과거에 마녀에 대한 보편적인 공포가 얼마나 타당한 근거—혹은 그 근거가 아예 존재했는지도 모를 일이다—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우리는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날까지 가는 길은 아직 멀어 보인다.

고발당한 사람들이 정말로 자신들이 특별한 능력을 지녔다고 믿었을까? 아니면 적어도 그 능력은 없어도, 이웃에게 해를 끼칠 의지는 있었을까? 아니면 수없이 많은 자백들은 마녀 사냥꾼들의 잔혹한 고문으로 인해 억지로 끌어낸 것일까? 이런 질문들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지금 내가 전하는 이 이야기는 나를 멈추게 한다. 나는 이를 단순한 허구라고 일축할 수 없다. 독자는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캐스트링햄도 그 ‘아우토다페(auto-da-fé)’에 희생자 한 명을 보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모더솔 부인이었으며, 평범한 마을의 마녀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형편이 조금 더 넉넉했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었다는 정도뿐이었다. 교구의 명망 있는 농부 몇 사람이 그녀를 구해 보려 애썼다. 그들은 그녀의 인품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배심원단의 평결이 어떻게 내려질지를 놓고 적지 않은 불안을 드러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 결정적으로 치명적이었던 것은, 당시 캐스트링햄 홀의 소유주였던 매튜 펠 경의 증언이었다. 그는 보름달이 뜬 밤마다 자기 창문에서 세 차례에 걸쳐 그녀를 지켜보았다고 진술했다. 그녀는 ‘내 집 근처의 물푸레나무’에서 잔가지를 꺾고 있었다는 것이다. 속옷만 걸친 채 가지 위로 올라가, 묘하게 휘어진 칼로 작은 가지들을 잘라내고 있었으며, 그러는 동안 내내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듯했다고 했다. 매번 매튜 경은 그녀를 붙잡으려 최선을 다했지만, 그녀는 그가 본 의 아니게 낸 어떤 소리에 늘 놀라 달아나 버렸고, 정원에 내려갔을 때

그가 볼 수 있는 것이라곤 마을 쪽으로 오솔길을 가로질러 달려가는 토끼 한 마리뿐이었다.

세 번째 밤, 그는 있는 힘껏 그녀를 뒤쫓아 곧장 모더솔 부인의 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문을 두드리며 15분이나 기다려야 했고, 그제야 부인이 매우 못마땅한 얼굴로, 그리고 마치 방금 막 잠자리에서 일어난 양 몹시 졸린 모습으로 나왔다. 그는 자기가 찾아온 이유에 대해 그럴 듯한 변명을 내놓지 못했다.

이 증거를 주로 삼아, 비록 다른 교구민들로부터 덜 극적이고 특이한 형태의 증인들이 더 있었지만, 모더솔 부인은 유죄를 선고받고 사형에 처해졌다. 그녀는 재판 일주일 후, 버리 세인트 에드먼즈에서 다섯이나 여섯 명의 다른 불쌍한 존재들과 함께 교수형에 처해졌다.

당시 부보안관(Deputy-Sheriff)이었던 매튜 펠 경은 그 처형에 참석했다. 마차가 노스게이트 밖, 교수대가 서 있는 거친 풀밭 언덕을 힘겹게 올라가던 그 아침은, 가랑비가 흩날리는 축축한 3월 아침이었다. 다른 죄인들은 무감각해져 있거나 비참함에 짓눌려 무너져 있었다. 그러나 모더솔 부인은, 살아 있을 때 그러했듯 죽음에 임해서도 그들과는 전혀 다른 기질을 보였다. 당시의 한 기자가 적어 둔 표현을 빌리자면, 그녀의 ‘독기 어린 분노’는 ‘구경꾼들에게—그렇다, 심지어 사형 집행인에게까지도—깊이 작용하여, 그녀를 본 모든 이가 한결같이 그녀가 마치 살아 있는 미친 악마의 형상을 하고 있더라고 증언했다. 그럼에도 그녀는 법 집행관들에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다만 자기에게 손을 댄 자들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너무도 무섭고 독기 어려 있어—그

중 한 사람이 훗날 나에게 분명히 말하기를—그 눈빛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그 후 여섯 달 동안 마음속이 안에서부터 갇아 먹히는 듯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녀가 한 말로 보고된 것은 단 한 가지뿐이었다. “저택에 손님이 올 것이다.”라는, 일견 무의미해 보이는 문장이었다. 그녀는 이를 낮은 목소리로 여러 차례 되풀이했다.

매튜 펄 경은 그 여인의 태도에 전혀 무감각하지 않았다. 형사 재판일이 끝난 뒤, 그는 본당의 사제와 함께 귀가하는 길에 이 일에 대해 몇 마디 나눴다.

그가 법정에서 증언한 것은 결코 기꺼이 한 말이 아니었다. 그는 특별히 마녀 색출 광풍에 휩싸인 인물은 아니었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결같이 자신의 증언 외에는 그 일을 설명할 길이 없다고 단언했다. 자신이 본 것은 절대 잘못 보지 않았다고도 확신했다.

전체적인 사건의 진행은 그에게 매우 혐오스러웠다. 그는 주변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성품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이 일에 자신의 의무가 있음을 느꼈고, 그 의무를 다해냈다.

그의 감정이 대략 이런 맥락이었을 터이고, 사제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했을 법한 그의 태도를 칭찬했다.

몇 주 후, 보름달이 뜬 오월 밤, 교구장과 지주 두 사람은 공원에서 다시 마주쳤다. 그리고 함께 저택으로 걸었다.

펠 부인은 병석에 누운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고, 매슈 경은 홀로 저택에 남아 있었다. 그래서 크롬 신부는 어렵지 않게 저녁 늦게 저택에서 식사하자는 권유를 받아들였다.

매슈 경은 오늘 밤은 그리 좋은 대화 상대가 아니었다. 대화는 주로 가족과 교구 일로 흘러갔다. 운명인지 모르게, 매슈 경은 자신의 재산에 대한 몇 가지 바람과 의도를 문서로 적어 두었다. 나중에 그 문서는 매우 유용하게 쓰였다.

크롬 씨가 집으로 돌아가려던 시각은 밤 아홉 시 반쯤이었다. 매튜 경과 그는 집 뒤쪽의 자갈길을 떠나기 전에 한 바퀴 산책했다. 크롬 씨가 기억하는 유일한 일은 이랬다.

그들은 내가 서술한 대로 건물의 창가 근처에 자라고 있는 물푸레나무가 시야에 들어왔을 때였다. 그때 매튜 경이 발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물푸레나무 줄기를 위아래로 오르내리는 저것은 무엇인가? 설마 다람쥐는 아니겠지? 지금쯤이면 다들 둥지 안에 있을 텐데.”

목사는 그 움직이는 생물을 보았으나, 달빛 아래서 그 색깔을 분간해 내지는 못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드러났던 날카로운 윤곽선은 그의 뇌리에 선명하게 각인되었다. 그는 말했다. 어리석게 들릴지라도, 다람쥐든 아니든, 그 존재는 네 다리 이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그는 단언할 수 있었다.

그 순간의 환상은 그리 중요하게 여길 만한 것이 아니었다. 두 사람은 헤어졌다. 그 이후로 다시 만났을 수도 있지만, 그로부터 스무 해는 더 지나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매튜 펠 경은 평소와 달리 여섯 시에 아래층으로 내려 오지 않았다. 일곱 시에도, 여덟 시에도 마찬가지였다.

이윽고 하인들이 그의 침실 문 두드리는 소리를 냈다. 그들의 초조한 경청과 문짝을 거둬 두드리는 장면은 굳이 길게 서술할 필요도 없다.

마침내 문이 밖에서 열렸다. 그들은 주군이 죽어 누운 것을 발견했다. 그의 얼굴은 새까맣게 변해 있었다. 독자들은 아마 이미 짐작했을 것이다.

그에게 가해자가 가한 흔적은 당장 눈에 띄지 않았다. 하지만 창문은 열려 있었다.

한 남자가 목사를 불러오러 갔고, 그 지시에 따라 시신 검시관에게 통보하러 말을 타고 떠났다. 크로임 씨 역시 최대한 빨리 홀로 향했다. 그는 시신이 안치된 방으로 안내받았다.

그의 사후 남은 서류 중에는, 매튜 경에 대해 얼마나 진심 어린 존경과 슬픔이 있었는지 보여주는 기록들이 남아 있다. 그중 다음 구절을 발췌한다. 이 대목은 사건의 전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일반적인 신념을 살펴보는 데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방 안으로 들어온 흔적은 전혀 없었다. 창문은 열려 있었다. 내 불쌍한 친구는 이 계절이면 항상 창문을 열어두곤 했기 때문이다. 그는 은으로 된 약 1파인트 분량의 잔에 작은 맥주 한 잔을 저녁에 마시곤 했는데, 그날 밤에도 그 잔을 비우지 않은 채 남겨두었다. 버리에서 온 의사, 즉 호킨스라는 분이 이 음료를 검사했지만, 나중에 부검관 심문대에서 증언한 바에 따르면, 그 안에 어떤 독성 물질이 섞여 있다는 것은 발견하지 못했다.

당연한 일이지만, 시체의 부종과 검은 기운이 극심했기 때문에 이웃 사람들은 독살을 의심하며 수군거렸다. 침대에 누워 있던 시체는 매우 어수선하게 놓여 있었다. 몸이 극도로 뒤틀린 채로 있어, 나의 존경스러운 친구이자 후원자가 극심한 고통과 비명 속에 숨을 거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그리고 아직 설명되지 않은, 그리고 이 잔혹한 살인을 저지른 자들의 끔찍하고 교묘한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 있었다. 시신을 정리하고 씻기는 일을 맡은 두 여성이 모두 신실하고 그들의 슬픈 직업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마음과 몸 모두 큰 고통과 불안에 시달리며 내게 찾아왔다. 그들은 처음 보는 순간에도 확인되었던 사실을 말했다. 그들이 맨손으로 시체의 가슴을 만지자마자, 손바닥에서 보통을 초월한 격렬한 쓰라림과 통증이 느껴졌다는 것이다. 그 통증은 팔 전체로 퍼져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팔뚝까지 심하게 부풀어 올랐다. 통증은 계속되었고,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들은 몇 주 동안이나 자신의 생계를 위한 일을 쉬지 않을 수 없었다. 피부에는 아무런 자국도 보이지 않았지만 말이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집 안에 머물고 있던 의사에게 불렀다. 우리는 작은 수정 확대경을 들고, 그 부위의 피부 상태를 가능한 한 세심하게 검사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도구로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 단지 두어 개의 작은 천자(穿刺) 자국, 즉 찢린 흔적만 확인했을 뿐이다. 우리는 그때 그것이 독이 체내로 들어가는 구멍이라고 결론 내렸다. 보르자 교황의 반지나, 지난 세기 이탈리아 독살자들의 끔찍한 기교를 담은 다른 여러 사례들을 떠올리며 말이다.

시체에서 관찰된 증상에 대해서는 이쯤 말해 두겠다. 내가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오직 나의 개인적인 실험일 뿐이다. 그 가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후세에 맡기겠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작은 크기의 성경 한 권이 놓여 있었다. 내 친구는 사소한 일이나 중대한 일이나 가리지 않고 철저한 사람이었다. 그는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반드시 정해진 분량의 성경을 읽곤 했다.

나는 그 성경을 들어 올렸다. 그에게 눈물을 하나 흘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이제 이 미약한 그림자 같은 경전을 떠나, 그 위대한 원본을 직시하는 곳으로 건너간 것이다.

그런 무력감에 빠진 순간, 우리는 종종 빛을 약속하는 가장 미세한 반짝임이라도 붙잡으려 한다. 나는 그 구시대적이고 많은 이들이 미신이라 여기는 관습, 즉 ‘소르테스(Sortes, 제비뽑기)’의 방식을 시험해보기로 했다. 이때 많은 이들이 회자하고 있던 사례가 있었다. 바로 지난날 축복받은 순교자 찰스 왕과 포클랜드 경의 사례였다.

솔직히 말해, 나의 실험으로 얻은 도움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끔찍한 사건들의 원인과 발단이 훗날 규명될 수 있다면, 이 결과가 나의 통찰력보다 더 빠르게 사건의 진실을 가리킬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위해, 나는 그 결과를 기록해 두기로 했다.

나는 세 번의 시도를 했다. 성경책을 열고 손가락으로 특정 구절을 가리켰다. 첫 번째 시도는 누가복음 13장 7절에서 “잘라 버리라”는 말을 건졌다. 두 번째 시도는 이사야 13장 20절에서 “다시 영원히 거처가 되지 못하리라”는 말을 건졌다. 그리고 세 번째 실험에서는 욥기 39장 30절에서 “그 새끼들도 피를 마시느니라”는 말이 나왔다.

크롬 씨의 문서에서 인용할 부분은 여기까지다. 매튜 펠 경은 정중하게 관에 안치되어 땅에 묻혔다. 이튿날 주일, 크롬 목사가 집전한 장례 설교는 「찾을 수 없는 길; 혹은 잉글랜드의 위기와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궤계」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이는 크롬 목사의 견해일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던 관점이기도 했다. 즉, 지주가 가톨릭 음모론의 부활로 인한 희생자였다는 것이다.

그의 아들 매슈 2세가 작위와 재산을 물려받았다. 이로써 캐스팅햄 비극의 첫 번째 막이 내린다.

새 남작은 아버지가 숨진 방을 침실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해 두자. 사실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그의 재임 기간 내내 그 방은 드물게 방문하는 이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잠들지 않았다.

그는 1735년에 사망했다. 그의 치세에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고는 찾아볼 수 없으나, 한 가지 이상한 점은 가축과 가금류의 사망률이 유난히 높았다는 것이다. 이 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사건의 상세한 통계적 기록은 1772년 『젠틀먼스 매거진(Gentleman's Magazine)』에 실린 한 통의 편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편지는 남작의 개인 문서들을 바탕으로 사실을 정리한 것이다. 그는 마침내 아주 단순한 한 가지 방법으로 이 괴이한 일을 끝냈다. 바로 밤마다 가축들을 모두 마구간에 가두고, 공원 내 양은 키우지 않기로 한 것이다. 그는 밤새 실내에 머무는 동물은 단 한 마리도 공격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눈치챈 것이다. 그 후부터는 이 병이 야생 조류와 사냥감 짐승으로만 국한되었다. 하지만 증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고, 밤새 감시만으로는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기에, 서퍽 농부들이 부르던 ‘캐스팅햄 병(Castringham sickness)’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세히 논하지 않았다.

두 번째 매튜 경은 앞서 말했듯 1735년에 사망했고, 아들이었던 리처드 경이 정식으로 뒤를 이었다. 바로 그 시기에 교회의 북쪽 측면에 거대한 가족 전용 신자석이 세워졌다. 영감의 구상은 너무도 방대해서, 건물의 그 저주받은 북쪽 면에 묻힌 무덤 몇 개를 파헤쳐야만 그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그중에는 모더솔 부인의 묘가 포함되었는데, 크롬 씨가 작성한 교회와 마당의 평면도에 적힌 메모 덕분에 그 위치는 정확히 알려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유명한 마녀의 시신을 발굴한다는 소문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녀는 아직 몇몇 노인들에게 기억되고 있었다.

그러나 관을 열어본 사람들은 놀라움과 불안감을 금치 못했다. 관은 비교적 견고하고 깨지지 않은 상태였지만, 안에는 시신도, 뼈조각도, 가루 하나 남아 있지 않았다.

이는 참으로 기이한 현상이다. 그녀가 매장되었을 당시, 해부용으로 시신을 훔치는 자들, 즉 ‘부활자(resurrection-men)’ 같은 존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해부실의 용도로만 쓰일 시신을 훔칠 합리적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 사건은 사십 년 동안 잠자고 있던 마녀 재판과 마녀들의 활약상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다시금 불러일으켰다. 리처드 경이 관을 태우고 내린 명령은 많은 이들에게 무모해 보였지만, 결국은 성실히 이행되었다.

리처드 경은 분명히 성가신 혁신가였다. 그의 시대 이전, 홀은 가장 진한 적갈색 벽돌로 지어진 아름다운 건물이었다. 하지만 리처드 경은 이탈리아를 여행했고, 그곳의 취향에 감염되었다. 그는 선대들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고, 영국식 가옥을 찾은 자리에 이탈리아식 궁전을 남기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석회와 잘 다듬은 돌이 벽돌을 가렸다. 몇 개의 평범한 로마 대리석이 현관과 정원에 배치되었고, 티볼리의 시빌라 신전 복제본이 호수 건너편에 세워졌다. 그리고 캐스팅업은 완전히 새로운, 그리고 내가 말하자면 덜 매력적인 모습을 띠게 되었다. 하

지만 그것은 많은 찬사를 받았고, 이후 몇 년 동안 인근 지주들의 모범이 되었다.

1754년 어느 아침, 리처드 경은 밤새도록 편치 못했던 잠에서 깨어났다. 바람이 불었고 굴뚝에서는 연기가 계속 새어 나왔지만, 날씨는 너무 추워 불을 계속 피워 둘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창문 주변에서 무언가가 쿵쿵거리며 요란스럽게 울려, 아무도 잠시도 평온을 누릴 수 없었다.

게다가 그날 중으로 신분이 높은 손님들이 몇 명 찾아올 예정이었다. 그들은 어떤 오락거리라도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그의 사냥터에서는 질병이 기승을 부렸고, 이로 인해 사냥감이 크게 줄어든 상태였다. 그는 사냥터 관리자로서의 명성이 훼손될까 봐 걱정이었다.

하지만 그를 가장 깊이 괴롭힌 것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일이었다. 그는 더 이상 그 방에서 잠을 잘 수 없다고 확신했다.

아침 식사 중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생각은, 식사 후 방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피는 일로 이어졌다. 자신이 원하는 조건에 딱 맞는 방을 찾기 위해였다. 하지만 찾기가 쉽지 않았다. 동쪽을 향한 창문이 있는 방이 있는가 하면, 북쪽을 향한 방도 있었다. 어떤 방은 하인들이 자주 드나드는 문이 있고, 또 어떤 방의 침대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

결국 그는 서쪽을 바라보는 방을 원했다. 아침 햇살에 일찍 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그 방은 집안일의 소란스러운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했다. 가정부는 더 이상 추천할 방이 없어 궁색해졌다.

“자, 리처드 경,” 그녀가 말했다. “당신도 아시다시피, 그런 방은 이 집에 하나뿐입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리처드 경이 물었다.

“그것이 매튜 경의 서쪽 방입니다.”

“좋아, 나를 거기 넣어라. 내가 오늘 밤 거기서 자겠노라.” 주인이 말했다. “어디로 가는 길이지? 여기로 분명히 맞군.” 그리고 그는 재촉하며 떠났다.

“오, 리처드 경, 하지만 그곳에서는 지난 40년 동안 아무도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매튜 경이 그곳에서 숨을 거둔 이후로는 공기가 거의 바뀌지 않았죠.”

그렇게 말한 그녀는, 그의 뒤를 따라 바스락거렸다.

“문 좀 열어주시오, 치독 부인. 적어도 방은 좀 들여다봐야겠소.”

그렇게 문이 열렸다. 확실히 냄새는 매우 진하고 흙내음이 짙었다. 리처드 경은 창가로 걸어가, 평소처럼 성급하게 셔터를 젖히고 창문을 활짝 열었다. 이 집의 이쪽 끝은 거대한 물푸레나무가 우거져 있어, 개 보수 작업의 영향도 거의 받지 않았고, 다른 곳에서는 시야에서 완전히 가려져 있었다.

“치독 부인, 오늘 하루 종일 방을 환기시켜 주시오. 오후에는 제 침  
구류를 들여놓고, 킬모어 주교님을 제 옛 방으로 모셔두시오.”

“실례합니다, 리처드 경,” 새로운 목소리가 이 말을 가로막으며 말  
했다. “잠시 면담할 기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리처드 경이 돌아서자, 문턱에 검은 옷을 입은 한 사내가 서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다.

“저의 이 갑작스러운 방문을 너그ერი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리처드 경. 아마도 제 얼굴은 거의 기억나지 않으실 겁니다. 제 이  
름은 윌리엄 크롬입니다. 제 할아버지는 당신의 할아버지 시대에 이 마  
을의 교구 목사로 계셨거든요.”

“그렇군요, 경.” 리처드 경이 말했다. “크롬이라는 이름은 카스트링  
햄으로 들어가는 여권과도 같습니다. 두 세대에 걸친 우정을 다시 맺게  
되어 기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방문하시는 시간과, 제 눈이 잘  
못 보지 않았다면 당신의 태도에서 느껴지는 조급함이, 당신이 급한 일  
로 오셨음을 말해주고 있군요.”

“그 말씀은 진실일 뿐입니다, 선생님. 저는 최대한 빨리 노리치에서  
버리 세인트 에드먼즈로 가려 합니다. 그리고 길에 들러 할아버지가 돌  
아가시면서 남기신 문서들을 정리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몇 가지 서류  
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서류들 속에 가문의 역사에 흥미로운 내용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고들 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크롬 씨. 만약 거실로 따라와 주시고 와인 한 잔을 마셔 주신다면, 그 문서들을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치독 부인, 말씀드렸지만 이 방을 환기시켜 주십시오……. 네, 바로 여기에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죠……. 네, 나무 때문인지 이 곳은 좀 습기가 도는 것 같군요……. 아닙니다. 더 이상 듣기 싫습니다. 까다롭게 굴지 마십시오. 제가 시킨 대로 하십시오. 가십시오. 따라오시겠습니까, 선생님?”

그들은 서재로 향했다. 클레어 홀의 케임브리지 펠로우 자격을 방금 얻은, 나중에 폴라이에누스의 훌륭한 판본을 출간했던 젊은 크롬 씨가 가져온 그 봉투 안에는, 다른 것들과 함께 옛 교구 목사가 매튜 펠 경의 사망 당시 작성한 노트들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리처드 경은 우리가 이미 들었던 그 수수께끼 같은 ‘성경점(Sortes Biblicæ)’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는 그것을 꽤나 흥미롭게 여겼다.

“그렇군,” 그가 말했다. “조부님의 성경에는 한 가지 현명한 조언이 실려 있었지. ‘그것을 베어내라.’ 만약 그 말이 물푸레나무를 가리키는 거라면, 내가 그 일을 소홀히 하지 않을 거라는 점은 안심해도 좋겠어. 저토록 가래와 오한이 만연한 곳은 처음 봤으니까.”

거실에는 가족 관련 책들이 놓여 있었다. 리처드 경이 이탈리아에서 수집한 책들이 도착하고, 이를 보관할 적절한 방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책 수가 많지 않았다.

리처드 경은 종이에서 시선을 들어 책장 쪽을 바라보았다.

“저 노예언자가 아직 저기에 있는지 궁금하군. 내가 그를 보는 것 같아.”

그는 방 안을 가로질러 다가가 두툼한 성경 한 권을 꺼냈다. 그리고 확실히, 그 책의 첫 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Matthew Fell에게, 그의 사랑하는 대모(代母) Anne Aldous가, 1659년 9월 2일.”

“다시 한 번 시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계획일 것 같습니다, 크롬 씨. 우리가 역대기에서 몇몇 이름을 찾아낼 것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흠! 여기에는 무슨 내용이 있군요. ‘너는 아침에 나를 찾으리라, 그러나 나는 없으리라.’ 어휴, 어휴! 당신의 할아버지라면 이를 훌륭한 징조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상 예언자는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야기 속의 인물일 뿐이죠. 이제 크롬 씨, 저는 당신의 소포에 대해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서두를 것이라 걱정됩니다. 부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잔을 하나 더.”

리처드 경은 젊은이의 태도와 매너를 좋게 여겼기에, 호의적인 환대의 제안을 진심으로 건넸다. 그들은 그렇게 작별을 고했다.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도착했다. 킬모어의 주교와 메리 허베리 부인, 윌리엄 켄트필드 경 등이었다. 다섯 시에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고, 와인과 카드 놀이가 이어졌다. 이후 가벼운 야식을 먹고 각자 침실로 흩어졌다.

다음 날 아침, 리처드 경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총을 들고 나가는 것을 꺼렸다. 그는 킬모어 교구장 주교와 이야기를 나눴다. 이 주교는 당시 많은 아일랜드 주교들과 달리 자신의 교구를 방문했고, 실제로 상당 기간 그곳에 거주했다.

아침 두 사람은 테라스를 거닐며 집의 개조와 개선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주교가 서쪽 방의 창문을 가리키며 말했다.

“제 아일랜드 양 떼는 그 방에 절대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리처드 경.”

“왜 그런 겁니까, 주교님? 그것은 사실 제 것입니다.”

“우리 아일랜드 농민들은 물푸레나무 근처에서 자면 최악의 불운이 찾아온다고 늘 말합니다. 그런데 방 창문에서 두 야드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물푸레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군요.” 주교가 미소를 지으며 이어 말했다. “아마 이미 그 나무의 기운이 당신에게 스며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자면, 밤잠을 자셨는데도 친구들이 바라던 만큼 상쾌해 보이지 않으시거든요.”

“그것 때문이거나 다른 이유 때문이든, 주교님, 저는 밤 열두시부터 사시까지 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내일 그 나무를 베어낼 계획이라, 이제부터는 그 소리를 크게 듣지는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결심을 치하합니다. 숨 쉬는 공기조차 그 잎사귀 사이로 걸러져 들어오는 것 같으니, 건강에 좋을 리가 없겠지요.”

“주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어제 밤 제 창문은 열어두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고 있었다는 것은, 아마도 나뭇가지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리처드 경.” “여기, 이 각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가까운 가지들조차 창문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만약 폭풍이 불었다면 모를까, 어젯밤에는 그런 바람이 없었습니다. 가지들은 유리창에서 한 발짝은 떨어져 있습니다.”

“아니요, 맞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었기에 저렇게 굵고 바스락거렸을까요? 제 문턱의 먼지까지 줄과 자국으로 뒤덮었으니까요.”

드디어 그들은 쥐들이 담쟁이덩굴을 타고 올라왔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는 주교의 추측이었고, 리처드 경은 그 말에 곧장 동의했다.

그렇게 하루가 고요히 지나고 밤이 찾아왔다. 일행은 각자 방으로 흩어지며 리처드 경에게 편안한 밤 되기를 빌었다.

이제 우리는 그의 침실 안이다. 불은 꺼져 있고, 스콰이어는 이미 침대에 누워 있다. 방은 부엌 바로 위에 자리 잡고 있다. 밖의 밤은 고요하고 따뜻해서, 창문은 활짝 열려 있다.

침대 머리맡은 어둠이 짙다. 하지만 이상한 움직임이 느껴진다. 리처드 경이 고개를 빠르게 좌우로 흔들고 있는 것 같다. 소리는 아주 작다. 반쯤 어두운 방은 사람을 속이기 쉽다. 리처드 경이 여러 개의 머리

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 둥글고 갈색의 머리들이 앞뒤로 움직인다. 가슴 높이까지도 움직인다. 끔찍한 환상이다. 하지만 더 있을까?

무언가가 침대에서 떨어진다. 고양이처럼 부드럽게. 그리고 순식간에 창밖으로 사라진다. 또 다른 것이 떨어진다. 네 개가 더. 그러자 다시 고요함이 찾아온다.

“너는 아침에 나를 찾으리라. 그러나 나는 없으리라.”

매튜 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였다. 리처드 경 또한 침대에서 죽은 채 새까맣게 변해 있었다.

소식이 알려지자 창문 아래로 창백하고도 침묵하는 손님들과 하인들이 모여들었다. 이탈리아인 독살자, 가톨릭 사절, 감염된 공기 등등 여러 추측이 오갔다. 킬모어 주교는 나무를 바라보았다. 나무 아래쪽 가지가 갈라진 부분에는 하얀 고양이 한 마리가 웅크리고 앉아, 수년간 나무 줄기에 파인 구멍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고양이는 나무 안쪽의 무언가를 매우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것은 갑자기 몸을 일으켜 구멍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다. 그러자 밧 딛고 있던 가장자리 일부가 무너지며, 그것은 미끄러지듯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떨어지는 소리가 나자 모두 고개를 들어 그쪽을 바라보았다.

대부분의 우리는 고양이가 울음을 터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 하지만 나는, 거대한 물푸레나무 줄기 속에서 터져 나온 비명 같은 울부짖음을 들어본 사람이 드물기를 바란다. 두세 차례의 비명이 있었으

나, 증인들은 어느 것이 먼저인지 확실히 기억하지 못했다. 그 후로는 약하고 둔탁한 소음, 무언의 동요나 몸부림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하지만 메리 헤르베이 부인은 그대로 기절해 버렸고, 가정부는 귀를 막고 도망쳤다가 테라스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킬모어의 주교와 윌리엄 켄트필드 경도 머물렀다. 비록 그들이 위축된 것은 고양이 울음소리 하나 때문이었을 뿐이지만, 켄트필드 경은 말을 건네기 전 목을 한두 번 꿀꺽 삼켰다.

“그 나무 안에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무언가가 숨어 있습니다, 주교님. 당장 수색해 봐야겠습니다.”

그렇게 합의가 내려졌다. 사다리가 가져다 놓였고, 정원사 한 명이 그 위로 올라갔다. 그는 구멍 안을 내려다보았지만, 움직이는 무언가의 희미한 흔적 몇 개 외에는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들은 등불을 가져와 로프에 매달아 아래로 내려보냈다.

“우리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파헤쳐야 합니다. 제 목숨을 걸고 말씀드리건대, 이 끔찍한 죽음들의 비밀이 바로 그곳에 숨어 있습니다.”

정원사가 다시 등불을 들고 올라갔다. 그는 조심스럽게 구멍 안으로 등불을 내려보냈다.

그가 몸을 구부린 채 내려다보자, 그의 얼굴에 노란빛이 비쳤다. 그는 믿을 수 없는 공포와 혐오에 사로잡힌 표정을 짓더니, 비명처럼 들리는 끔찍한 목소리를 지르며 사다리를 등지고 뒤로 넘어졌다.

다행히 두 명의 남자가 그를 붙잡았다. 등불은 나무 안으로 떨어졌다.

그는 의식을 완전히 잃고 쓰러져 있었다. 그가 입을 열기까지 제법 오랜 시간이 걸렸다.

주변 사람들은 몇 야드 떨어진 곳에 동그랗게 원을 그었다. 윌리엄 경과 주교는 불이 나무를 은신처로 삼고 있는 존재를 쫓아낼 것이라 확신했다. 그래서 그들은 가능한 한 많은 무기와 도구를 가져오라고 사람들을 보냈다.

그랬다. 먼저 나뭇가지가 갈라지는 부분에서, 사람의 머리 크기와 맞먹는 둥근 몸체가 불꽃에 휩싸인 채 갑자기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다 곧 주저앉듯 무너져 내리며 다시 뒤로 물러났다. 그것이 다섯, 여섯 차례나 반복되었다.

그리고 나서 비슷한 공 하나가 공중으로 솟구쳐 올랐다. 잠시 후 그것은 풀밭에 떨어졌고, 잠시 후 그곳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주교는 감히 다가가 볼 수 있는 한 가장 가까이 다가가 그 것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무엇을 보았는가? 거대한 거미의 잔해였다. 혈관이 도드라져 있고, 태워진 듯한 자국이 선명했다.

불꽃이 더 아래로 내려가자, 이보다 더 끔찍한 몸체들이 줄줄이 나무 줄기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들은 회색빛 털로 덮여 있었다.

하루 종일 그 물푸레나무는 타올랐다. 나무가 산산이 부서질 때까지 남자들은 그 주변을 맴돌았으며, 때때로 재빠르게 튀어나오는 괴수들

을 죽였다. 마침내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긴 시간이 흘렀고, 그들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훑어가며 나무 뿌리를 조사했다.

킬모어 주교는 이렇게 말한다. “그곳 아래에는 둥글게 패인 땅속 구멍이 있었다. 그 안에는 연기에 질식해 죽은 것으로 보이는 생물들의 시체 두세 구가 있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은, 이 굴 옆 벽면에 인간의 해부학적 형태나 해골이 웅크리고 있었다는 점이다. 뼈 위에는 마른 피부가 붙어 있었고, 검은 머리카락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것을 조사한 사람들은 그것이 분명히 여성이며, 죽은 지 50년이 넘었다고 단정했다.”

### 제13호

유틀란트의 도시들 중 비보르그(Viborg)는 당당히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 이곳은 교구의 중심지이며, 아름답지만 거의 새로 지어진 대성당이 있다. 매력적인 정원과 아름다운 호수, 그리고 많은 황새들이 이곳을 수놓고 있다. 근처에는 할트(Hald)가 있는데, 덴마크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로 꼽힌다. 그 옆에는 핀데럽(Finderup)이 자리 잡고 있다. 1286년 성 세실리아의 날, 마르스크 스티그(Marsk Stig)가 에릭 글리핑(Erik Glipping) 왕을 살해한 곳이다. 17세기 에릭 왕의 무덤이 열렸을 때, 그의 두개골에는 네모난 머리의 철망치로 내리친 56번의 타격 자국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나는 안내책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다.

비보르그에는 훌륭한 호텔이 있다. 프라이슬러 호텔과 피닉스 호텔은 그중에서도 손꼽힐 만큼 완벽하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나의

사촌은 비보르그를 처음 찾았을 때 골든 라이온 호텔로 갔다. 그는 그 이후로 그곳을 다시 찾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아래 페이지에서 설명해 드리겠다.

골든 라이온은 1726년 대화재로 소실되지 않은 드문 건물 중 하나다. 그 화재로 성당과 시립 교회, 시청 등 오래되고 흥미로운 유적이 거의 모두 무너졌다.

이 건물은 큰 붉은 벽돌집이다. 앞면은 벽돌로 지었고, 양쪽 박공에는 계단식 장식이 있으며 문 위에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하지만 옴니버스가 들어가는 안마당은 검은색과 흰색의 목조와 석회 벽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때, 사촌이 문 앞에 섰다. 빛이 집의 위엄 있는 정면을 가득 채웠다. 그는 이 낡은 풍격의 장소에 반했다. 그리고 옛 유틀란트의 전형적인 여관에서 숙박이 매우 만족스럽고 재미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앤더슨 씨가 비보르그에 온 것은 평범한 의미의 ‘용무’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덴마크 교회사를 연구하고 있었는데, 비보르그의 국립문서고(Rigsarkiv)에 남아 있는 자료들 중, 과거 화재에서 살아남아 전해진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자료들은 덴마크 땅에서 로마 가톨릭이 마지막까지 버티던 시절의 기록이었다.

그는 이런 자료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베껴 쓰기 위해, 적어도 이주일에서 삼주일 정도를 이곳에서 보내기로 했다. 그리고 ‘골든 라이온’

여관에서 방 한 칸을 얻고 싶었다. 방이 충분히 넓어서 침실과 서재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의 바람을 주인장에게 알렸다. 주인장은 잠시 생각에 잠긴 뒤, 이렇게 제안했다. 먼저 더 큰 방 한두 개를 둘러보고, 그중 마음에 드는 것을 직접 고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것이었다. 아이디어는 괜찮아 보였다.

하루의 일을 마치고 나서 계단을 오르는 일이 너무 번거로울 것 같아 최상층은 곧 제외했다. 둘째 층에는 요구되는 치수에 딱 맞는 방이 없었다. 하지만 첫 번째 층에는 크기로 보아 아주 적합한 방이 두세 개나 있었다.

집주인은 17호실을 강력히 추천했지만, 앤더슨 씨는 그 방의 창문이 이웃 집의 빈 벽만 바라보고 있어 오후에는 매우 어두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신 12호실이나 14호실이 더 나을 터였다. 두 방 모두 거리를 향해 창문이 열려 있었고, 밝은 저녁 햇살과 아름다운 풍경이 들려올 소음에 대한 보상으로 충분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열두 번째 호가 선택되었다. 이웃한 방들과 마찬가지로, 이 방에도 창문이 세 개 있었는데 모두 한쪽 벽에 있었다. 천장은 꽤 높았고, 방의 길이는 유난히 길었다. 물론 벽난로는 없었지만, 난로가 꽤 멋스럽고 오래된 것이었다. 주철로 만든 그 난로는 옆면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새겨져 있었고, 위쪽에는 “1 Bog Mose, Cap. 22”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방 안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고, 유일한 흥미로운 그림은 약 1820년경의 마을 색채 판화 하나뿐이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안더슨은 평소처럼 몸을 씻고 단장을 한 뒤 계단을 내려왔지만, 종소리가 울리기까지는 아직 몇 분의 여유가 있었다. 그는 그 짧은 시간을 이용해 함께 묵고 있는 다른 투숙객들의 명단을 살펴보기로 했다.

덴마크의 관례대로, 투숙객들의 이름은 큰 검은 칠판에 적혀 있었다. 이름들은 열과 행으로 나뉘어 정리되어 있었고, 각 행의 시작 부분에는 방 번호가 칠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 명단은 별다른 흥미를 끌지 못했다. 사가페러(Sagfører, 법률 고문)라는 독일인 변호사가 한 명 있었고, 코펜하겐에서 온 몇몇 여행용 가방을 들고 다니는 상인들이 있을 뿐이었다.

명단에서 유념할 만한 점은 오직 하나였다. 방 번호 목록에 ‘13번’이 빠져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 역시 안데르센이 덴마크의 호텔들을 이용하며 이미 여섯 번쯤은 목격한 흔한 일이었다. 그는 굳이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13이라는 숫자에 대한 기피 현상이 그렇게 광범위하고 강렬해서, 13번 방을 내주기조차 어려울 정도인지 말이다. 그는 나중에 주인장을 만나, 동료 호텔 경영자들 역시 13번 방을 거부하는 손님들을 자주 마주쳤는지 물어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저녁 식사와 저녁 시간 동안 일어난 일에 대해 나에게 말할 것이 없었다. (나는 그의 입에서 직접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한다.) 저녁은 짐을 풀고 옷과 책, 서류들을 정리하는 데 보냈지만, 그다지 특별한 일은 없었다.

열한 시쯤 되자 그는 잠자리에 들기로 했다. 하지만 그는 요즘 많은 사람들처럼, 잠을 자려면 침대에 눕기 전 반드시 몇 페이지의 책을 읽어야 하는 습관이 있었다. 이때 그는 자신이 기차 안에서 읽던 책이, 지금 당장 자신에게 필요한 유일한 책이라는 것을 떠올렸다. 그 책은 지금 식당 밖에 있는 옷걸이에 걸린 코트 주머니 속에 들어 있었다.

그는 재빨리 내려가 책을 가져오는 데 단숨에 성공했다. 복도는 어둡지 않았기에, 제법 익숙한 걸음으로 자신의 방 문까지 돌아오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문 앞에 다다라 손잡이를 돌렸을 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문 안쪽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그는 분명 잘못된 문을 열었던 것이다. 자신의 방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그는 잠시 망설였다. 벽의 번호판을 유심히 보니 ‘13’이었다. 자신의 방은 왼쪽에 있었다. 맞았다.

그가 침대 위에 올라타 평소처럼 책 몇 페이지를 읽고, 등불을 끄고, 잠자리에 누운 지 몇 분이나 지나서야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호텔 안내판에는 ‘13’이라는 번호가 없었는데, 실제로는 13호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아쉽다는 듯이 그 방을 선택하지 않은 자신을 탓했다. 만약 그 방을 차지했다면, 임대인에게 한 가지 도움을 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영국의 귀족 출신 신사가 3주 동안 머물며 매우 만족했다’고 말할 기회도 주었을 테니까. 하지만 아마도 그 방은 하인용 방이거나 비슷한 용도로 쓰이고 있었을 것이다. 어쨌든, 자신의 방보다 크거나 좋은 방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컸다.

그는 반쯤 어두운 거리 불빛에 비친 방 안을 줄린 눈으로 둘러보았다. 이상한 현상이었다. 보통 방은 어두울수록 넓어 보이는 법인데, 이 방은 길이가 줄어든 대신 높이가 비례해서 높아진 듯했다. ‘그래, 그래! 잠이 더 중요하지.’ 그는 이런 모호한 생각은 접고 잠들었다.

안더슨은 도착한 다음 날 비보르의 국가문서보관소(Rigsarkiv)를 찾아갔다. 덴마크답게 그는 정중하게 맞이되었고, 원하는 자료에 접근하는 데 있어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받았다.

그가 마주한 문서들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고 흥미진진했다. 공식 문서들 외에도, 마지막 로마 가톨릭 주교였던 요르겐 프리스(Bishop Jörgen Friis)와 관련된 방대한 편지들이 쌓여 있었다. 그 중에는 사적인 삶과 개인의 성품에 관한 재미있고, 이른바 ‘사적인’ 디테일들이 솔하게 드러나 있었다.

화제 중 하나는 주교가 소유하고 있었지만 직접 거주하지 않는 한 건물이었다. 그 집의 임차인은 개혁파에게 있어 다소 스캔들의 중심이자 걸림돌이었다. 그들은 그를 도시의 치욕이라고 썼다. 그는 비밀스럽고 사악한 술수를 부렸으며, 자신의 영혼을 적에게 팔아먹었다는 것이다. 그런 독사이자 피를 빨아들이는 ‘트롤만드(Troldmand)’를 주교가 보호하고 은신시켜 준 것은 바빌론식 교회의 타락과 미신적 풍조와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주교는 이러한 비난을 당당히 맞섰다. 그는 비밀 술수 등 모든 그러한 것들을 혐오한다고 항변했고, 적대세력들이 이 문제를 적법한 법원, 물론 영적 법원인 그곳으로 가져와 끝까지 파헤치라고 요구했

다. 만약 증거가 마그(Mag.) 니콜라스 프랑켄(Nicolas Francken)이 비공식적으로 고발된 죄목 중 하나를 저질렀음을 보여준다면, 그 누구보다도 그에게 더 빠르고 기꺼이 형벌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앤더슨은 그날 기록관 문이 닫히기 직전, 프로테스탄트 지도자 라스무스 니엘슨의 다음 서한을 잠깐 훑어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 편지의 전체적인 취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그 내용은 대략 이랬다. 이제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주교들이 내린 결정에 더 이상 구속받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주교의 법정은 그런 중대하고 엄중한 사안을 심판하기에 적합하거나 권한을 가진 재판소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사무실을 나서던 앤더슨 씨는 그 사무실을 관장하던 노신사의 동행을 받았다. 두 사람이 걷는 동안, 대화는 자연스럽게 내가 방금 언급한 문서들로 흘러갔다.

비보르그의 기록관장이었던 스카베니우스 씨는 자신이 맡은 문서들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매우 정통했지만, 종교 개혁 시기의 문서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었다. 그는 앤더슨이 그 문서들에 대해 말해준 내용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스카베니우스는 앤더슨이 그 문서들의 내용을 정리해 출판할 것이라는 소식에 큰 기쁨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교 프리스의 그 집이요,” 그가 덧붙였다. “그 집이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옛 비보르그의 지리를 신중하게 연

구해 보았지만, 불행히도 구멍이 뚫린 셈이죠. 1560년에 작성된 주교 소유지의 옛 등기부 사본이 있는데, 우리 아키브에는 그 대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가지 소유물 목록이 적힌 부분만 빠져 있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언젠가 그 실마리를 찾아내게 되겠지요.”

안더슨은 얼마간의 산책 끝에—어디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골든 라이온 여관으로 돌아갔다. 저녁 식사도 하고, 혼자 하는 카드놀이(페이션스)도 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방으로 향하는 길에 그는 한 가지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여관 간판에서 13호가 빠진 것에 대해 주인에게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이 일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13호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결정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문에는 번호가 또렷이 적혀 있었고, 안에서는 분명 무언가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문에 가까이 다가가자 발소리와 목소리, 아니면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몇 초간 멈춰 서서 번호를 다시 확인하는 사이, 발소리는 그치더니 문 바로 근처에서 날카로운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강한 흥분 상태에 있는 사람의 숨결 같았다. 그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놀랐다. 자신이 방을 선택했을 때보다 훨씬 작아 보인 것이다. 약간의 실망스러움은 있었으나, 그 정도는 미미했다. 만약 방이 정말로 좁다면,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도 쉬울 터였다.

그때, 그는 여행용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야 했다.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손수건인 것 같았다. 이 가방은 하인이 방 안 침대에서 가장 먼 벽 쪽의, 너무 작아 보이는 받침대 위에 놓아둔 상태였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가방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지나친 친절을 부린 하인들이 가방을 치워버린 것이 분명했다. 내용물은 옷장 속에 넣었을 것이다.

하지만 옷장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는 성가신 일이었다. 도난 일 가능성은 곧 펼쳐졌다. 덴마크에서 이런 일은 드물었기 때문이다. 다만, 분명히 무지한 짓이 저질러진 것이 분명했다. 그런 어리석은 일은 그리 드문 것도 아니었다. 하녀를 엄하게 꾸짖어야 했다.

그가 필요로 했던 것이 무엇이었던, 그 정도는 당장 없어도 불편하지 않을 만큼 필수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아침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그래서 종을 누르거나 하인들을 깨우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창문, 오른쪽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조용한 거리로 시선을 던졌다.

그 맞은편에는 높은 건물이 서 있었다. 벽면은 넓고 텅 비어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다. 밤은 어둡고, 보이는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었다.

등 뒤에서 불빛이 비쳤다. 그는 정면 벽에 자신의 그림자를 또렷이 볼 수 있었다. 왼쪽 11호 방의 수염 난 남자의 그림자도 보였다. 그 남자는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두세 번 오가다가, 처음에는 머리를 빗고, 나중에는 잠옷 차림으로 나타났다. 오른쪽 13호 방 입주민의 그림자도 함께 비쳤다. 이쪽이 좀 더 흥미로울 수 있었다. 13호 방 사람도

자신처럼 창턱에 팔꿈치를 괴고 거리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는 키가 크고 마른 남자처럼 보였다. 아니면 혹시 여자일까? 적어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머리에 어떤 천으로 된 것을 덮고 있었다. 그는 붉은색 램프 셰이드를 가진 사람이리라 생각했다. 램프 불빛은 매우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정면 벽에 어두운 붉은빛이 뚜렷하게 위아래로 흔들리며 비쳤다. 그는 그 형체를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몸을 조금 더 내밀었다. 하지만 창턱에 놓인 열은 색의, 아마 흰색일 천 한 겹 외에는 더 이상 볼 것이 없었다.

거리에서 먼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가까워지자, 13호 실 사람은 자신이 드러난 위치에 있음을 깨달은 듯했다. 그는 매우 빠르고 갑작스럽게 창문 옆으로 물러났고, 그의 붉은 빛이 꺼졌다. 앤더슨은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담배 끝을 창턱에 올려놓고 침대로 갔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뜨거운 물을 들고 온 하녀가 깨워 잠에서 깼다. 그는 몸을 일으켜, 올바른 덴마크어 표현을 생각한 뒤, 가능한 한 또렷하게 말했다.

“내 여행 가방은 절대 건드리지 마. 어디에 있니?”

흔히 있는 일이지만, 하녀는 웃으며, 뚜렷한 대답 없이 자리를 떠났다.

앤더슨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녀를 다시 부르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그는 일어나 앉은 채로 정면을 똑바로 응시할 뿐이었다.

정면에는 여행 가방이 받침대 위에 놓여 있었다. 처음 도착했을 때 포터가 올려둔 자리에 그대로였다.

그는 자신의 예리한 관찰력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내였다. 그런데 그 사내에게 그것은 돌연한 충격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어젯밤 왜 그걸 눈치채지 못했는지,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어쨌거나, 그 물체는 지금 그곳에 놓여 있었다.

아침 햇살은 여행용 가방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냈다. 세 개의 창문이 있는 방의 실제 크기가 선명하게 드러났고, 방을 빌린 사람은 자신이 내린 선택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음을 안심했다.

거의 차려입었을 때, 그는 날씨를 확인하기 위해 세 창문 중 가운데 창문 앞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또 다른 놀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제 밤 그는 유난히 주변을 살피지 못한 모양이었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 그는 오른쪽 창문에서 담배를 피웠다고 단언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담배꽂이는 가운데 창문의 창턱에 놓여 있었다.

그는 아침 식사하러 내려가기 시작했다. 다소 늦은 시간이었지만, 13호실은 더 늦었다. 그의 부츠가 여전히 문 밖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신사의 부츠였다. 그렇다면 13호실에는 남자가 살고 있었다. 여자가 아니었다.

그때야 비로소 그는 문에 붙은 번호를 눈여겨보았다. 그것은 14였다. 그는 아마 13호실을 지나쳤을 때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열두 시간 동안 세 번이나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꼼꼼하고 정확한 성품을 가진 남자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다. 그는 다시 돌아가 확인하기로 했다.

14번 다음에 오는 번호는 12번, 바로 자신의 방이었다. 13호실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앤더슨은 지난 이십사 시간 동안 먹어 치우고 마신 모든 것을 꼼꼼히 되짚어 보며 몇 분을 보냈다. 하지만 이내 그 의문은 접기로 했다. 만약 그의 눈이나 뇌가 제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라면, 그 사실을 확인해 볼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테니까. 반대로 뇌가 정상이라면, 그는 분명 매우 흥미로운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어떤 경우든 앞으로 펼쳐질 일들은 지켜볼 가치가 충분했다.

그는 낮 동안에도 이미 요약한 바 있는 주교의 서신들을 계속 조사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그 자료는 불완전했다. 마그 니콜라스 프랑켄의 사건을 언급한 서신은 단 한 통만 더 발견될 수 있었다. 그것은 라스무스 니엘슨에게 보낸 요르겐 프리스 주교의 서신이었다. 그는 이렇게 썼다.

“우리는 당신의 판단이 우리 법정에 대해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필요시 이를 끝까지 반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실하고 사랑받는 마그 니콜라스 프랑켄이 갑자기 우리 가운데서 사라졌다는 점은, 이번 건은 일단락된 것으로 간주해야 함을 보여줍

니다. 하지만 당신이 더 나아가 사도요 복음사인 성 요한이 그의 천상의 계시록에서 성 로마 교회를 붉은 여인의 형상과 상징으로 묘사했다고 주장하는 점에 관하여는,” 등등.

앤더슨은 그 편지의 이어서 쓴 글이나, ‘전쟁의 원인’이 된 사안이 어떻게 ‘제거’되었는지에 대한 단서를 하나도 찾아내지 못했다. 그는 프랑켄이 갑자기 사망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었다. 니엘슨의 마지막 편지, 즉 프랑켄이 분명히 생존해 있던 시점과 주교의 편지 사이에는 이틀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죽음은 완전히 예상치 못한 것이었을 것이다.

오후가 되어 그는 할드(Hald)를 짧게 방문했고, 뵈켈룬드(Baekkelund)에서 차를 마셨다. 그는 다소 신경이 날카로운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의 경험으로 인해 두려워했던 그 눈이나 뇌의 기능 상실과 같은 징후는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는 방주인 옆에 앉게 되었다.

그는 잠시 무난한 대화를 나눈 뒤 물었다.

“이 나라의 호텔 대부분에서 열 세 번째 방 번호를 생략하는 이유가 뭐죠? 여기에도 없네요.”

주인은 재미있어하는 듯했다.

“그런 걸 당신이 눈치챈다니, 정말 놀랍군요. 솔직히 저도 한두 번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학식이 있는 사람이 이런 미신에 얽매일 필요

는 없다고요. 저도 비보르그의 고등학교에서 자랐는데, 우리 옛 선생님은 그런 것들에 단호히 반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선생님은 이미 많은 해 전에 돌아가셨지만, 정말 단정하고 훌륭한 분이셨어요. 손재주도 뛰어나셨고, 머릿속도 명쾌하셨죠. 눈이 내리던 어느 날, 우리 소년들이……”

그는 이내 과거의 기억에 잠겼다.

“그럼 13호실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군요?” 앤더슨이 물었다.

“아, 맞습니다. 음, 아시다시피 저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이 일을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 오르후스에서 호텔을 운영하셨다가, 저희가 태어나자 고향인 비보르그로 이사하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페닉스 호텔을 운영하시다 187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저는 실케보르그에서 사업을 시작했고, 바로 재작년에 이 집으로 이사해 왔습니다.”

그 후, 그 집과 사업이 처음 인수되었을 당시의 상태에 대한 더 많은 세부 사항이 이어졌다.

“그리고 당신이 이곳에 오셨을 때, 13호실이 있었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 얘기를 하려던 참이었소. 보시오, 이런 곳에서는 상업계급, 즉 여행객들을 주로 상대해야 하거든. 그런데 그들을 13호실에 묵게 한다니? 하, 그들은 차라리 거리에서 자는 게 낫다고 여길 거요.

나 자신은 방 번호가 몇 호든 상관없다고 생각하오. 그래서 여러 번 그들에게 그렇게 말했지. 하지만 그들은 번호가 불운을 가져온다고 고집을 부리네. 13호실에서 잤다가 평생을 망친 사람, 최고의 고객을 잃은 사람, 기타 등등에 대한 이야기가 그들 사이에는 무수히 많소.”

주인이 더 생생한 표현을 찾기 위해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말했다.

“그럼, 13번은 대체 뭐에 쓰는 겁니까?” 앤더슨이 물었다. 그는 그 질문이 가진 중요도에 비해 지나치게 큰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음을 자각하면서도, 그 질문을 던지고 말았다.

“내 방 13번? 왜, 그 방은 이 집에 없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소? 당신이 그걸 눈치채지 못했나 보군. 만약 13번 방이 있다면, 당신의 방 바로 옆에 있을 거요.”

“글쎄요, 그렇긴 합니다. 다만 제가 문득 생각난 게요. 즉, 어제 밤에 그 복도에 13이라는 번호가 붙은 문이 있는 것을 본 것 같았거든요. 정말로, 제가 틀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전 밤에도 똑같이 그 문을 보았으니까요.”

물론 앤더슨이 예상했던 대로, 크리스텐젠 씨는 이 주장을 비웃으며 웃었다. 그는 그 호텔에 13호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자신 이전에 존재했던 적도 없다고 거듭 강조하며 말했다.

앤더슨은 그 확신 덕분에 어느 정도 안도했지만, 여전히 의아했다. 그는 자신이 환각에 사로잡혔는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저녁 늦게 주인에게 방으로 올라와 시가를 함께 피자고

초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가 지니고 있던 영국 도시들의 사진 몇 장은 그 제안을 꺼내기에 충분히 좋은 변명이 되었다.

크리스텐센은 초대에 큰 영광을 느꼈고, 기꺼이 승낙했다. 그는 열 시쯤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었다. 그전까지 앤더슨은 써야 할 편지가 있어, 집필을 위해 방으로 물러났다.

그는 이 사실을 고백하자면 부끄러움을 느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열셋 호의 존재 여부에 대해 그가 점점 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이 있거나 있어야 할 자리 앞을 지나야 한다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 그는 열한 호를 경유해 자신의 방으로 들어섰다.

방에 들어서자 그는 급하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하지만 그가 불안을 가질 만한 것은 없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작아 보이는 듯한, 정의하기 어려운 공기감 말고는.

오늘 밤 그의 여행가방이 있든 없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는 직접 가방의 내용을 꺼내어 침대 밑에 숨겨두었다. 그는 열셋 호에 대한 생각을 억지로 떨쳐내고, 집필에 착수했다.

옆방 사람들은 충분히 조용했다. 드물게 복도에서 문이 열리며 부츠 한 켤레가 밖으로 던져지거나, 가방을 든 상인이 중얼거리며 지나가곤 했다. 가끔씩 바깥에서는 수레가 흉악한 조약돌 길을 울리듯 지나갔고, 빠른 발걸음이 포석길을 따라 급히 지나갔다.

앤더슨은 편지를 다 쓰고 위스키 소다를 주문한 뒤, 창가로 걸어갔다. 맞은편의 죽어 있는 듯한 벽과 그 위에 드리운 그림자를 자세히 살펴봤다.

기억이 나는 한, 14호실은 한 변호사의 거처였다. 그는 단정하고 말수가 적은 사내였는데, 식사 시간에는 접시 곁에 쌓아 둔 작은 종이를 거의 내내 들여다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분명히 본성을 드러냈던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왜 춤을 추고 있었겠는가? 옆방에서 비친 그림자는 그가 춤추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다. 얇은 형체가 창문 앞에 수차례 지나갔고, 팔은 휘둘렀으며, 가느다란 다리는 놀라울 정도로 민첩하게 차올랐다. 그는 맨발로 보였고, 바닥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잘 깔려 있었는지 그의 움직임에서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았다. 밤 열 시, 호텔 방에서 춤추는 사그포에르 안데르스 엔센은 거장 스타일의 역사화 한 점에 어울리는 피사체처럼 보였다. 앤더슨의 생각은 『우돌포의 신비』의 에밀리처럼 다음과 같은 시로 정리되기 시작했다.

저녁 열 시, 호텔 방으로 돌아왔을 때, 종업원들은 내가 몸이 나쁜 줄 알았다. 나는 그들을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방 문을 잠그고, 부츠를 밖에 내다놓은 뒤면, 나는 밤새도록 바닥에서 춤을 춘다.

설령 이웃들이 맹세하며 항의한다 해도, 나는 더 격렬하게 춤을 출 것이다. 나는 그 법을 잘 알고 있기에, 그들의 헛된 소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항의를 비웃으며 춤추기 때문이다.

이때 주인장이 문두드리는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독자는 한참 동안이나 긴 시 한 편을 읽었을지도 모른다. 방에 들어선 크리스텐센의 놀란 표정을 보아하니, 앤더슨이 느꼈던 것과 같은 이상한 기운을 그는 느꼈던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앤더슨의 사진들은 그를 크게 흥미롭게 했고,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는 데 이를 소재로 삼았다.

그런데 만약 이때 변호사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대화는 어떻게든 13호실로 자연스럽게 흘러갔을까? 그는 노래를 불렀고, 그 목소리는 그가 심하게 취했거나 미쳐버렸음을 의심할 여지 없이 보여주고 있었다. 들리는 목소리는 높고 가늘었으며,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마른 듯했다. 가사나 선율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 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높은 곳까지 올라가더니, 마치 빈 굴뚝을 스치는 겨울바람이나 갑자기 바람이 끊기는 오르간처럼 절망적인 신음과 함께 내려갔다. 정말 끔찍한 소리였다. 앤더슨은 만약 혼자였다면, 어쩔 수 없이 이웃 상인들의 방으로 피난을 갔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주인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그는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다.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말했다. “끔찍한 소리다. 한 번은 이미 들은 적이 있지만, 그 소리가 고양이인 줄로 확신했다.”

“그가 미쳤나?” 앤더슨이 물었다.

“그렇지 않을 수 없겠지. 정말 슬픈 일이야. 듣기로는 사업도 잘되고, 아주 좋은 손님이었거든. 키울 어린 아이들도 있고.”

그때 문에서 재촉하는 듯한 두드림 소리가 났다. 그는 들어오라고 말도 기다리지 않고 문을 열고 들어섰다. 변호사였다. 그는 차림새가 흐트러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엉망진창이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그가 말했다. “부디 그만두셨으면 합니다.”

그때 그는 멈춰 섰다. 바로 앞의 인물 중 누구도 그 소란을 일으키지 않았음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잠시 소리가 잦아들더니, 이내 이전보다 더 격렬하게 다시 울려 퍼졌다.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이요?” 변호사가 외쳤다. “그건 어디에 있는 거요? 누구요? 내가 미쳐가는 건가?”

“확실히 연센 씨, 그 소리는 옆방에서 나는 게 아닙니까? 굴뚝에 고양이 같은 것이 끼어 있지는 않습니까?”

앤더슨이 생각해 낼 수 있는 최선의 말은 이것뿐이었다. 그는 말을 내뱉는 순간 그 말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달았다. 하지만 그저 서서 그 끔찍한 목소리를 듣는 것, 그리고 땀을 줄줄 흘리며 의자 팔걸이를 짹 쥐고 전전긍긍하는 주인장의 넓고 하얀 얼굴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이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불가능해요. 여기에는 굴뚝이 없어요. 저는 그 소리가 여기서 나는 줄 알고 찾아왔거든요. 분명히 제 방 바로 옆 방에서 들렸으니까요.”

“당신 방과 제 방 사이에 문이 없었나요?” 앤더슨이 재촉하듯 물었다.

“아니요, 선생님.” 엔센 씨가 다소 날카롭게 말했다. “적어도 오늘 아침에는 아닙니다.”

“아!” 앤더슨이 말했다. “오늘 밤에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는 망설이는 듯 말했다.

다음 방에서 울리던 울음소리가, 혹은 노래소리가 갑자기 찾아들었다. 이어서 노래하던 자가 중얼거리며 자조적으로 웃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를 듣고 세 사람은 실제로 오싹하며 몸을 떨었다. 이어서 고요함이 찾아왔다.

“자, 말씀하시오, 크리스텐센 씨. 이 일이 대체 무슨 뜻인가?” 변호사가 물었다.

“세상에나!” 크리스텐센이 말했다. “어떻게 알 수 있겠소. 나도 당신들보다 더 아는 바가 없소. 다시는 저런 소리를 듣지 않기를 빌 뿐이오.”

“나도 그래.” 엔센이 말했다. 그리고는 입술 사이로 무언가 중얼거렸다. 앤더슨은 그것이 시편의 마지막 구절인 ‘\_omnis spiritus laudet Dominum\_’처럼 들렸다고 생각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무언가 해야 합니다,” 앤더슨이 말했다. “우리 세 사람이요. 옆방으로 가서 조사해 볼까요?”

“하지만 그것은 엔센 씨의 방이에요.” 집주인이 비명처럼 소리쳤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분께서 직접 그곳에서 오셨거든요.”

“저도 그렇게 확신하진 못하겠습니다.” 엔센이 말했다. “이 분이 옳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쓸 수 있는 방어 수단은 지팡이와 우산뿐이었다. 두 사람은 떨리는 마음을 간신히 진정하며 복도로 나섰다. 밖은 죽음처럼 고요했지만, 바로 옆 문 아래로 희미한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앤더슨과 엔센이 그 문으로 다가가자, 엔센이 손잡이를 돌리더니 힘껏 밀쳤다. 소용없었다. 문은 단단히 잠겨 움직이지 않았다.

“크리스텐센 씨,” 엔센이 말했다. “집에서 가장 힘이 센 하인을 불러 오게. 이 일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장소를 벗어나려 재빨리 물러났다. 그곳을 떠나는 것이 그에게는 안도감이었다. 엔센과 앤더슨은 밖에서 문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바로 13번이요. 보시오.” 그가 말했다.

“네, 저쪽이 당신 문이고, 저쪽이 내 문이오.” 엔센이 말했다.

“제 방은 낮에는 창문이 세 개 있습니다.” 앤더슨이 말하며, 간신히 긴장된 웃음을 삼켰다.

“이런, 내 것도 그래!” 변호사가 뒤돌아 앤더슨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등은 이미 문 쪽을 등지고 있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한 팔이 밖으로 뻗어나와 그의 어깨를 움켜쥐었다. 팔에는 누렇게 찢어진 린넨 옷감이 감겨 있었고, 드러난 피부에는 길고 회색빛 털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앤더슨은 혐오와 공포의 외침과 함께 가까스로 제때 엔센을 그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끌어냈다. 하지만 문이 다시 닫히자, 낮은 웃음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엔센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하지만 앤더슨이 그가 얼마나 큰 위험을 무릅썼는지 황급히 말하자, 그는 큰 동요에 빠졌다. 그리고는 그 일을 접고 자신의 방 중 하나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그 계획을 구체화하던 중, 주인과 건장한 두 남자가 현장에 도착했다. 세 사람 모두 얼굴이 굳어 있고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예센은 그들을 맞으며 설명과 묘사를 쏟아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오히려 싸움에 나설 마음을 꺾는 데 더 도움이 되었다.

남자들은 들고 온 지렛대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자기는 그 악마의 소굴에서 목숨을 걸지 않겠다고.

주인은 초조하고 망설이는 모습이었다. 위기를 직시하지 않으면 자신의 호텔은 망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 위험을 감당하기를 매우 꺼리고 있었다.

다행히 앤더슨이 무너져 내린 사기를 다잡을 방법을 떠올렸다.

“이것이 내가 많이 들었던 덴마크의 용기란 말인가?” 그가 말했다. “안에는 독일인이 없지. 설령 독일인이 있다 한들, 우리는 다섯 대 하나다.”

이 말에 두 하인과 옌센은 비로소 움직임을 취했다. 그들은 문 쪽으로 다급히 달려갔다.

“멈춰!” 앤더슨이 외쳤다. “당황하지 마라. 주인장, 당신은 밖에서 불빛을 들고 기다리고, 두 사람 중 한 명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하지만 문이 열리자마자 안으로 들어가지는 마라.”

남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젊은이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서서 철제 막대기를 들어 올리고, 문 위쪽 판자에 거친 힘을 실어 내리쳤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나무가 갈라지거나 찢어지는 소리는 나지 않았다. 다만, 단단한 벽을 두드리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질 뿐이었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도구를 떨어뜨렸고, 팔꿈치를 문지르기 시작했다. 그의 비명은 잠시 동안 다른 이들의 시선을 그의 쪽으로 돌렸다.

그때 앤더슨이 다시 문을 바라보았다. 문은 사라져 있었다. 복도의 회반죽 벽이 그의 눈앞에 드러났고, 철제 막대기가 내려친 자국이 벽에 큼지막한 균열로 남았다. 13호실은 존재 자체를 잃어버린 것이다.

잠시 동안 그들은 움직이지도 않고 말도 없이, 텅 빈 벽을 응시했다. 아래 마당에서 일찍이 닭이 울어 대는 소리가 들렸다. 앤더슨은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긴 복도 끝의 창문을 통해 동쪽 하늘이 새벽빛에 희미하게 물들어 가는 것을 보았다.

“아마도,” 주인이 망설이며 말했다. “여러분, 오늘 밤 다른 방으로 옮기실까요? 침대가 두 개 있는 방이요?”

에센과 앤더슨은 그 제안에 반대하지 않았다. 최근의 일을 겪은 뒤로, 그들은 둘이 짝을 지어 움직이는 것이 더 낫다고 느꼈다. 밤에 쓸 물건을 챙기러 각자 방으로 갈 때면, 서로 동행하며 촛불을 들어주는 것이 편리했다. 두 사람은 12호와 14호 방에 창문이 세 개씩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다음 날 아침, 같은 사람들이 12호에서 다시 모였다. 집주인은 외부 인력을 쓰는 것을 피하려 했지만, 그 집의 그 부분과 얽힌 수수께끼는 반드시 풀어야 했다. 그래서 두 하인을 목수로 내세웠다. 가구를 치우고, 많은 널판리가 영영 망가지는 대가를 치르며, 14호 바로 옆 바닥을 들추어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뼈다귀, 일레로 마그 니콜라스 프랑켄의 유해가 발견되었으리라 짐작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었다. 그들이

실제로 찾아낸 것은 바닥을 받치는 목재들 사이에 놓여 있던 작은 구리 상자였다. 상자 안에는 깔끔하게 접힌 양피지 문서가 들어 있었다. 문서에는 약 스무 줄의 글이 적혀 있었다. 앤더슨과 예센(그는 꽤나 훌륭한 고문서 해독자임이 드러났다)은 이 발견에 큰 흥분을 느꼈다. 이 발견이 기이한 현상들의 열쇠를 쥐어줄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나는 한 번도 읽지 않은 점성술 책 한 권을 소장하고 있다. 이 책 앞장에는 한스 세발트 베함(Hans Sebald Beham)이 그린 목판화가 실려 있는데, 여러 현자들이 원탁에 둘러앉은 모습을 담고 있다. 이 디테일만으로도 식견 있는 이들은 이 책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 책의 제목이 기억나지 않는다. 지금 당장 가까이에 있지도 않다. 하지만 책의 여백에는 글이 가득 적혀 있다. 내가 이 책을 소유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 글이 어떤 방향으로 읽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더구나 그것이 어떤 언어로 적힌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할 나위도 없다.

구리 상자에 담긴 문서를 장시간에 걸쳐 검토한 앤더슨과 예센(Jensen)의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틀 동안 그 글자를 들여다보던 예센이, 두 사람 중 더 담대한 기개를 지닌 자였다. 그는 문득 이런 추측을 내놓았다. 이 언어는 라틴어가거나, 아니면 고대 덴마크어일지도 모른다고.

앤더슨은 아무런 추측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 상자와 양피지를 비보르 역사학회에 넘기는 데 전혀 주저함이 없었다. 학회는 이를 그들의 박물관에 전시할 계획이었다.

몇 달 후, 우리가 읍살라 근처의 숲에 앉아 있을 때, 나는 그에게서 그 이야기를 모두 들었다. 그곳의 도서관을 방문한 뒤였다. 그곳에서 나는—아니, 정확히 말해 나 혼자—다니엘 살테니우스가 사탄에게 자신을 판 계약서를 보며 웃었다. 그는 나중에 쾨니히스베르크의 히브리 어 교수가 된 인물이다. 앤더슨은 전혀 웃지 않았다.

“바보 같은 놈!” 그는 살테니우스를 가리키며 말했다. 살테니우스는 그 무례한 짓을 저지를 당시 아직 학부생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상대와 교제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았겠는가?”

내가 으레 하는 합리적인 설명들을 제기했을 때, 그는 그저 툭툭거리는 소리로만 답했다. 같은 날 오후, 그는 내가 방금 읽은 이야기를 내게 털어놓았다. 하지만 그는 그 이야기로부터 어떤 추론을 끌어내려 하지 않았고, 내가 그에게 역지로 결론을 지어주려 해도 단호히 거부했다.

#### 카운트 마그누스

이 책들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그중 하나는 여행기를 묶은 책들이다. 1840년대와 50년대에 흔히 출판되던 그런 책들이다. 호레이스 매리어트의 『유티란트와 덴마크 제도 체류기』가 내가 말하려는 그런 부류의 좋은 예다.

이 책들은 보통 유럽 대륙의 미지의 지역을 다뤘다. 목판화나 강판화 일러스트가 실렸다. 오늘날 잘 짜인 안내책자에서 기대하듯, 호텔 숙소 정보와 교통편 같은 세부 사항도 담겼다. 지적인 외국인, 특색 있는 여관 주인, 수다스러운 농민들과의 대화도 많이 실렸다. 한마디로, 이 책들은 수다스러운 책들이었다.

나는 처음엔 그런 책을 위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기록이 진행되면서 내 글은 단 하나의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증언으로 변모해 갔다. 이 기록은 사건의 종말, 아니 거의 그 직전까지 이어졌다.

화자는 래크솔 씨였다. 내가 그를 아는 것은 오직 그가 남긴 글들뿐이다. 그 글들을 통해 나는 그가 중년을 넘긴 남자였으며, 어느 정도 사회적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세상에서 매우 고독하게 지냈음을 추론할 수 있었다.

그는 영국에 정착된 거주지가 없었다. 대신 호텔이나 하숙집을 오가며 살았다. 언젠가는 정착해서 살아가려던 생각을 품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날은 결코 오지 않았다.

1870년대 초에 발생한 판테크니콘의 화재는 아마도 그의 과거를 밝히는 중요한 자료들을 대부분 태워버렸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재산 중 일부가 그곳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한두 번 언급한 바 있다.

더 나아가 래크솔 씨가 책을 하나 출판했다는 사실도 분명해 보인다. 그 책은 그가 브르타뉴에서 보낸 한 번의 휴가에 관한 것이었다. 그

의 저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수 없다. 서지학 관련 문헌을 철저히 검색해 본 결과, 그 책은 익명으로 혹은 가명으로 출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그의 인품에 관해서는 표면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는 분명 지혜롭고 교양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옥스퍼드 대학의 브라즈노스 칼리지에서 펠로우가 되기 직전까지 갔을 것으로 보인다. 캘린더를 통해 나는 그렇게 판단한다. 그의 가장 큰 결점은 분명히 지나친 호기심이었다. 여행자로서는 나쁜 성질이 아닐지라도, 결국 이 여행자는 그 대가를 매우 비싼 값으로 치렀다.

그가 마지막으로 떠난 탐험에서 그는 또 다른 책을 집필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40년 전만 해도 영국인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스칸디나비아는 그에게 흥미로운 연구 대상처럼 느껴졌다. 그는 아마도 스웨덴 역사나 회고록 관련 구문헌들을 발견했을 터이고, 스웨덴의 몇몇 명문 가문들의 역사적 일화를 여행기 속에 자연스럽게 섞어 내는 책이 나올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에 그는 스웨덴의 일부 귀족들에게 소개장을 받아 1863년 초여름, 그곳으로 떠났다.

그의 북부 여행이나 스톡홀름에서의 몇 주간의 체류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다. 다만 그곳에 거주하던 한 학자가 그에게 베스테르고틀란드에 위치한 고대 영주의 저택과 관련된 중요한 가문 문서들의 존재를 알려주었고, 그가 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허락까지 받아냈다는 사실만 짚어내면 충분하다.

문제가 되는 저택, 혹은 스웨덴어로 \_herrgård\_라 불리는 이 곳은 라백(Råbäck, ‘루백’에 가까운 발음)이라 불리지만, 그것이 실제 이름은 아니다. 이 건물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훌륭한 건축물 중 하나다. 1694년에 판각된 달렌베리의 『수에키아 안티쿠아 에트 모데르나(Suecia antiqua et moderna)』에 실린 이 저택의 그림은, 오늘날 관광객이 볼 수 있는 모습과 거의 흡사하다. 이 저택은 1600년 초에 지어졌으며, 붉은 벽돌에 석재로 마감한 외관과 양식 면에서 당시 영국의 가옥과 매우 닮아 있다. 이 저택을 세운 사람은 거대한 가문인 데 라 가르디(De la Gardie) 가문의 후손이었으며, 그의 후손들이 현재까지 이 저택을 소유하고 있다. 이후 이 가문을 언급할 필요가 생길 때, 나는 데 라 가르디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지칭할 것이다.

그들은 Wraxall 씨를 매우 친절하고 정중하게 맞이했으며, 그의 연구가 끝날 때까지 집안에 머물 것을 권했다. 그러나 Wraxall 씨는 독립된 생활을 선호했고, 스웨덴어로 대화할 자신이 없었기에 마을 여관에 묵기로 했다. 그 여관은 특히 여름철에는 전혀 부족함 없이 편안했다. 이렇게 하면 매일 자택과 저택 사이를 1마일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거리를 왕복하는 것을 의미했다.

저택 자체는 공원에 자리 잡고 있었고, 커다란 오래된 목재들이 우뚝 솟아 마치 건물 자체가 그들 사이에서 자라난 것처럼 보호받고 있었다. 근처에는 담으로 둘러싼 정원이 있었고, 그 너머로는 작은 호수들이 점점이 박힌 풍경의 끝자락을 따라 밀림이 이어졌다. 그 뒤로는 사유지의 담장이 나왔고, 당신은 흙이 얇게 덮인 가파른 바위 언덕을 올

랐다. 그 정상에는 교회 건물이 우뚝 서 있었는데, 키 큰 어두운 나무들이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다.

이 교회는 영국인 눈에는 다소 낯선 양상이었다. 중앙 nave와 측랑은 낮았고, 좌석과 발코니로 가득 차 있었다. 서쪽 발코니에는 화려하게 칠해지고 은빛 관들이 달린 아름다운 오래된 오르간이 놓여 있었다. 천장은 평평했고, 17세기 화가가 그 위에 기괴하고 끔찍한 ‘최후의 심판’을 그렸다. 형형한 불꽃, 무너져 내리는 도시들, 불타는 배들, 비명 지르는 영혼들, 그리고 갈색을 띠며 미소 짓는 악마들이 묘사되어 있었다. 천장에서는 아름다운 낫쇠 화환들이 매달려 있었고, 설교석은 작은 그림이 그려진 나무 천사들과 성인들로 장식된 인형의 집 같았다. 설교대에는 세 개의 모래시계가 달린 받침대가 경첩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러한 광경들은 오늘날 스웨덴의 많은 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교회를 특별하게 만든 것은 원래 건물에 덧붙여진 부분이었다. 북쪽 측랑의 동쪽 끝에는 저택 건축주가 자신과 가족을 위한 납골당을 지었다. 그것은 비교적 큰 팔각형 건물로, 일련의 타원형 창문으로 빛을 받았고, 돔형 지붕을 가지고 있었다. 지붕 위에는 스웨덴 건축가들이 매우 좋아했던 형태로, 종탑으로 솟아오른 호박 모양의 장식이 있었다. 지붕 외부의 구리는 검은색으로 칠해졌고, 교회 벽과 마찬가지로 벽면은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얗게 칠해져 있었다. 이 납골당으로 들어가는 길은 교회 내부에서는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북쪽 면에는 별도의 출입구와 계단이 있었다.

교회 묘지 너머로 마을로 이어지는 길이 있다. 그곳에서 여관 문까지 걸어가면 고작 삼사 분이면 충분하다.

라벡에 머문 첫날, 랍살 경은 교회 문이 열린 채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교회 내부의 모습을 기록했는데, 내가 요약한 바로는 그런 내용이었다.

하지만 묘실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막혀 있었다. 그는 열쇠 구멍을 통해 안을 들여다볼 수 있을 뿐이었다. 그 틈으로 그는 아름다운 대리석 조각상과 구리 관, 그리고 화려한 문장 장식이 가득한 것을 희미하게 볼 수 있었다.

그 광경은 그에게 깊은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시간을 들여 그 안을 자세히 조사하고 싶었다.

그가 영저에서 조사하기로 한 문서들은 그의 책에 딱 맞는 자료로 판명되었다. 가장 오래된 소유주들의 가족 서신, 일지, 그리고 장부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매우 신중하게 보관되었고 또렷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 안에는 재미있고 생생한 디테일이 가득했다.

그들 중 첫 번째로 등장하는 드 라 가르디는 강인하고 유능한 남자로 묘사되었다. 저택이 지어진 직후, 그 지역은 극심한 곤란을 겪었다. 농민들이 봉기하여 여러 성채를 공격하고 피해를 입혔다. 라벡크의 소유주는 그 혼란을 진압하는 데 선봉에 섰다. 문서에는 주모자들을 처형하고, 아낌없이 가혹한 처벌을 내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이 마그누스 데 라 가르디의 초상은 집안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 중 하나였다. 래크솔 씨는 하루 일과를 마친 뒤면 이 초상을 적지 않은 흥미를 느끼며 바라보곤 했다.

그는 초상에 대한 상세한 묘사는 남기지 않았으나, 내 추측에 따르면 그 얼굴은 아름다움이나 선함보다는 위압적인 힘으로 그를 강하게 자극했던 듯하다. 실제로 그는 카운트 마그누스가 거의 기이할 정도로 추한 남자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날 Wraxall 씨는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한 뒤, 아직 선명한 빛이 남아 있는 늦은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교회 묘지의 납골당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묘지 관리인에게 부탁해야 한다”라고 그는 적었다. 그는 이미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같았다. 내가 오늘 밤 그를 계단 위에 서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마치 문을 잠그거나 열거나 하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워락스얼 씨는 집주인과 어떤 대화를 나눴다. 그 내용을 이렇게나 길게 기록한 것을 처음에는 의아하게 여겼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내가 읽고 있던 글들은, 적어도 초반부에는 그가 구상하던 책의 밑거름이었음을. 그것은 대화 내용을 적절히 섞어 넣을 수 있는, 일종의 준(準) 저널리즘식 산문이었을 것이다.

그의 목적은, 그가 말하길, 그 신사의 활동 무대였던 장소에 카운트 마그누스 데 라 가르디에 대한 전통적인 이야기가 남아 있는지, 그리고

대중이 그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었다. 그는 카운트가 확실히 인기 없는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만약 그의 세입자들이 영주의 권리에 따라 일해야 할 날에 늦게 출근하면, 그들은 나무 말 위에 앉히거나, 영주 집 마당에서 채찍질을 당하고 낙인이 찍혔다. 영주의 영토를 침범한 땅을 점유했던 몇몇 남성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집은 겨울밤에 온 가족이 안에 있는 채로 신비롭게 불탔다. 하지만 여관주인의 마음에 가장 강하게 남아 있던 것은, 카운트가 '블랙 필그림메이지(Black Pilgrimage)'에 다녀왔고,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데리고 돌아왔다는 점이었다. 그는 이 주제에 대해 여러 번 다시 언급했다.

당신은 자연스럽게 Wraxall 선생이 그랬듯 묻게 될 것이다. ‘블랙 순례’가 대체 무엇이었는지 말이다. 하지만 당신의 궁금증은 당분간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Wraxall 선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인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하려 하지 않았다. 아예 대답 자체를 피했다. 잠시 부름을 받은 그는, 마지못해라는 티를 내며 재빨리 자리를 떴다. 몇 분 뒤, 그는 문틈으로 고개만 내밀었다. 스카라로 불러 나갔다고 했다. 저녁이 되어야 돌아올 테니 기다리라고 했다.

그리하여 위락설은 만족스럽지 못한 채로 저택으로 그날의 일을 하러 가야 했다.

그가 그 당시 집중하고 있던 서류들은 그의 생각을 다른 방향으로 돌렸다. 그는 1705년부터 1710년까지 스톡홀름의 소피아 알베르티나와 라바크의 울리카 레오노라 사이의 서신 교환을 검토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 편지들은 스웨덴의 그 시대의 문화상을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끌었다. 스웨덴 역사 문서 위원회의 간행물에 게재된 이 편지들의 완전한 판본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오후가 되어 그는 그 일들을 모두 끝냈다. 그리고 상자들을 원래 선반에 다시 돌려놓은 뒤, 그는 자연스럽게 그 근처에 있는 책 몇 권을 내려놓았다. 내일 가장 먼저 조사할 주제가 될 만한 책을 가려내기 위해 서였다. 그가 손댄 선반에는 대개 카운트 마그누스의 필적으로 된 장부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중 한 권은 장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16세기 다른 필체로 된 연금술 및 기타 논고들의 모음집이었다.

Wraxall 박사는 연금술 문헌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생략해도 될 분량을 할애해 각 논고들의 제목과 시작 부분을 나열했다. ‘피닉스의 책’, ‘삼십 단어의 책’, ‘두꺼비의 책’, ‘미리암의 책’, ‘철학자들의 군중(Turba philosophorum)’ 등등. 그러곤 그는 상당한 장황함을 더해, 책 중간쯤에 처음부터 비워둔 한 장에 카운트 마그누스 자신의 글씨가 적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기쁨을 드러냈다. 그 글의 제목은 ‘Liber nigræ peregrinationis’였다.

실제로 쓰인 줄은 몇 줄에 불과했지만, 그 정도면 충분했다. 방금 아침에 주인이 언급한 믿음이 적어도 카운트 마그누스 시대에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며, 아마도 마그누스 자신도 공유하던 것이었음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여기에 적힌 내용의 영문 번역은 다음과 같다.

“누구든 장수를 원한다면, 충실한 사신을 얻고 원수의 피를 보고 싶다면, 먼저 호라진의 성으로 가서 왕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

이 대목에서 한 단어가 지워졌다. 지우기가 그리 철저하지 않아, Wraxall 박사는 그 단어를 ‘aëris(공기의)’로 읽은 것이 맞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 뒤로는 더 이상 본문이 이어지지 않았다. 다만 라틴어 한 줄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Quære reliqua hujus materie inter secretiora.—

(이 일의 나머지는 더 비밀스러운 곳들 사이에서 찾아보라.)

그것은 카운트의 취향과 신념을 다소 생생하고도 음울한 빛으로 비추어 보였다. 하지만 약 3세기라는 시간적 간격을 둔 Wraxall 경에게, 카운트가 일반적인 강인함 외에도 연금술을, 나아가 연금술과 비슷한 무언가의 마법을 가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그를 더 한 폭의 그림 같은 인물로 만들어줄 뿐이었다.

홀에 걸린 자신의 초상화를 꽤 오랫동안 응시한 후, Wraxall 경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나섰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카운트 마그누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주변 경치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고, 숲의 저녁 향기나 호수 위에 내리쬐는 저녁 빛깔도 느끼지 못했다.

그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서 있을 때, 자신이 이미 교회당 묘지 입구에 서 있고, 저녁 식사까지 몇 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그의 시선이 납골당으로 떨어졌다.

“아,” 그가 말했다. “마그누스 백작님, 여기 계시군요. 정말 만나고 싶었습니다.”

“혼자 지내는 사람들이 흔히 그러하듯, 저도 혼자 중얼거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어나 라틴어 조사처럼 제가 대답을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실히, 어쩌면 이 일과 관련해 다행인지도 모르겠지만, 목소리도, 저를 주시하는 이도 없었습니다. 다만 교회 청소부라 여겨지는 한 여자가 바닥에 금속성 물건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 짹 하는 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그누스 백작은 아마도 폭 잘 자고 있을 겁니다.”

그날 저녁, 여관 주인은 래크솔 씨가 교회의 서기나 부제(스웨덴어로 그렇게 부른다)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들은 바 있어, 그를 여관 거실에서 그 직원에게 소개해 주었다. 다음 날 데 라 가르디 가문의 묘실로 가는 일은 곧 약속되었고, 이어 약간의 잡담이 오갔다.

래크솔 경은 스칸디나비아의 부제(deacon)들이 견진예식을 앞둔 수험생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는 성경의 한 구절에 대해 자신의 기억을 되살려보기로 했다.

“고라신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그가 물었다.

부제는 깜짝 놀란 기색이었으나, 곧 그 마을이 한때 정죄받았었음을 쉽게 상기시켜 주었다.

“물론이죠,” 래크솔 경이 말했다. “지금쯤이면 완전히 폐허가 됐겠군요?”

“저도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부제가 대답했다. “우리의 옛 사제들 중에는,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더군요. 그리고 몇 가지 전설도 전해지고 있어—”

“아! 그건 무슨 이야기인가?” 래크솔 경이 끼어들었다.

“이야기라든가, 내가 말하려던 건데, 다 잊어버렸군요.” 부제가 말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밤인사를 하고 떠났다.

주인은 이제 혼자 남았다. 래크솔의 손아귀에 완전히 놓인 셈이었다. 그리고 그 조사관은 그를 쉽게 놓아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닐슨 씨,” 그가 말했다. “저는 블랙 필그림메이지에 대해 뭔가 알아냈습니다. 알고 있는 대로 다 말해 주시죠. 백작은 무엇을 가지고 돌아왔습니까?”

스웨덴 사람들은 대개 대답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리는 편이다. 아마도 그 집주인이 예외였는지도 모른다. 나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래크솔 경은 집주인이 아무 말도 하기 전에 적어도 일 분 동안이나 그를 응시했다고 기록했다. 그러자 집주인은 손님 쪽으로 다가가, 애써 입을 열었다.

“래크솔 씨, 이 짧은 이야기 하나만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은 아닙니다. 이야기를 다 한 뒤에는 어떤 질문도 하지 마십시오.

내 할아버지 시절, 정확히 말하면 구십이 년 전의 일입니다. 두 명의 남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작은 죽었다. 우리는 그를 대수롭지 않

게 여긴다. 오늘 밤 그 숲에서 마음껏 사냥을 하리라.’ 그가 말한 숲은 Råbäck 뒤쪽 언덕에 있는, 당신이 본 적 있는 긴 숲이었습니다.

이를 들은 사람들은 경고했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걷지 말아야 할 이들이 걷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쉬어야 할 존재이지, 걷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두 남자는 웃었습니다. 그 숲을 지키는 숲지기가 없었습니다. 그곳에 살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집안 사람들은 저택에 없었습니다. 이 두 남자는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좋아, 그들은 그날 밤 숲으로 향했다. 할아버지는 이 방에 앉아 계셨다. 여름이었고 환한 밤이었다. 창문을 열어 두셨기에, 할아버지는 밖으로 숲을 내려다보실 수 있었고, 소리를 들으실 수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두세 명의 남자가 그와 함께였다. 그들은 귀를 기울여 들었다.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다 누군가의 비명이 들려왔다. 거리가 꽤 떨어져 있었지만, 그 비명은 마치 영혼의 가장 깊은 부분이 찢겨져 나가는 듯 고통스러웠다. 방 안의 사람들은 모두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은 그렇게 사십오 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그때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약 300 엘(ells) 정도 떨어진 곳에서였다. 그들은 누군가 크게 웃는 소리를 들었다. 그 웃음은 그 두 남자 중 어느 한 사람이 낸 것이 아니었다. 실제로 모두들 그 웃음은

어떤 인간이 낸 것이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그 후, 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해가 막 동틀 무렵, 그들은 모두 사제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신부님, 가운데 라프를 입으시고 이 사람들을 묻으러 오십시오. 안데르스 비외른센과 한스 토르비외른이요.”

“그들은 저들이 죽었다고 확신했다. 그래서 그들은 숲으로 향했다. 할아버지는 이 일을 잊지 않으셨다. 할아버지는 그들 모두 마치 죽은 사람들 같았다고 말씀하셨다. 사제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하얀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가 말하기를, 그들이 그에게 왔을 때:

“밤에 한 번의 비명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웃음소리도 들렸죠. 그걸 잊을 수 없다면, 저는 다시는 잠을 청할 수 없을 거예요.”

그들은 숲으로 향했다. 그리고 숲 가장자리에서 이들을 발견했다. 한스 토르비외른은 나무 한 그루에 등을 기댄 채 서 있었다. 그는 손으로 무엇인가를 밀어내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자신에게서 떨어뜨리려는 듯이. 그는 아직 죽지 않았다.

그들은 그를 부축해 나르며 닐뢰핑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는 겨울이 오기 전에 죽었지만, 죽는 내내 손으로 밀어내는 동작을 멈추지 않았다. 안데르스 비외른센도 함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죽어 있었다.

안데르스 비외른센에 대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이다. 그는 한때 아름다운 남자였으나, 지금은 그의 얼굴이 없었다. 살이 뼈에서 빨려 나갔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는가? 나의 할아버지는 그것을 잊지 않으셨다.

그들은 가져온 상여에 그를 눕혔다.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 천을 덮었다. 사제가 앞장섰다. 그들은 죽음을 위한 시편을 최대한 성심껏 노래하기 시작했다.

첫 구절의 끝부분을 노래하고 있을 때, 상여 앞쪽을 메고 있던 한 사람이 쓰러졌다. 다른 이들이 뒤를 돌아보았다. 천이 벗겨져 내린 것을 보았다. 안데르스 비외른센의 눈이 위로 뜨고 있었다. 그를 감쌀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광경을 견딜 수 없었다. 사제는 천을 다시 그 위에 덮어쓰고 삼을 가져오라고 명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 그를 매장했다.

다음 날, 래크솔 경은 아침 식사 직후에 부제가 자신을 찾아왔다고 기록한다. 부제는 그를 교회와 묘실로 데려갔다. 래크솔은 묘실의 열쇠가 강론대 근처 못에 걸려 있는 것을 눈치챘다. 평소 교회 문이 잠겨 있지 않았던 만큼, 만약 묘비들에 처음 보았을 때보다 더 흥미로운 것이 있다면, 두 번째이자 좀 더 사적인 방문을 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그는 그 공간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위엄 있다고 느꼈다. 묘비들은 대부분 17세기에서 18세기에 세워진 거대한 구

조물들로, 화려함 속에서도 단정한 품위를 지니고 있었다. 묘비명들과 문장(紋章)은 풍부하게 새겨져 있었다. 돛형 방의 중앙 공간에는 정교하게 조각된 문양으로 장식된 세 개의 구리 관이 놓여 있었다. 덴마크와 스웨덴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그중 두 개의 관 뚜껑에는 큰 금속 십자가가 올려져 있었다.

세 번째 관, 즉 마그누스 백작의 관에는 십자가 대신 전신상 부조가 새겨져 있었다. 관 가장자리에는 다양한 장면을 묘사한 유사한 문양띠들이 여러 줄 둘러져 있었다. 그중 하나는 대포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성벽이 있는 마을, 그리고 창병들이 있는 전투 장면이었다. 다른 하나는 처형 장면을 보여주었다.

세 번째 장면에서는 나무들 사이를 한 남자가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날리고 팔은 뻗어 있었다. 그 뒤를 이상한 형체가 따라오고 있었다. 화가가 인간을 의도했지만 필요한 형상을 표현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괴물처럼 만들었는지 말하기 어려웠다. 나머지 그림이 얼마나 정교하게 그려졌는지를 고려할 때, 래크솔 경은 후자의 가능성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 형체는 지나치게 작았으며, 대부분 땅을 쓸어 다니는 두건 달린 옷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 보호막 밖으로 드러난 부분은 어떤 손이나 팔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래크솔 경은 그것을 문어 촉수에 비유했다. 그는 이렇게 계속했다.

“이것을 보고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분명히 어떤 알레고리적 표현일 것이다. 영혼을 쫓는 악마 말이다. 이것이 마그누스 백작과 그의

신비로운 동반자에 대한 이야기의 기원일지도 모른다. 사냥꾼이 어떻게 그려졌는지 확인해보자. 의심할 여지 없이 뿔을 부는 악마일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런 극적인 형상은 없었다. 다만 언덕 위에 망토를 두른 사내의 형상이 있을 뿐이었다. 그는 지팡이에 기대어 서서, 조각가가 그의 자세로 표현하려 했던 것처럼 사냥을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래크슬은 관을 고정하고 있던 정교하면서도 단단한 강철 자물쇠 세계를 확인했다. 그중 하나는 분리되어 바닥에 놓여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부제에게 시간을 끌거나 자신의 일정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저택으로 향했다.

“이른바 ‘익숙한 길을 되돌아갈 때, 주변 사물은 완전히 무시한 채 생각에 깊이 잠기게 되는 현상’은 참으로 기이하다”라고 그는 적었다.

“오늘 밤도 두 번째로,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걷고 있었다. 나는 묘지 안의 묘실로 몰래 들어가 비문을 베껴 쓰려던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문득 정신이 든 나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교회당 묘지 정문으로 들어서는 나를 발견했다. 그리고 나는 아마도 다음과 같은 가사를 흥얼거리거나 읊조리고 있었을 것이다. ‘깨어 계십니까, 마그누스 백작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마그누스 백작님?’ 그 뒤로 내가 기억해 내지 못하는 다른 말들이 이어졌을 것이다. 나는 내가 이런 터무니없는 행동을 이미 꽤 오랫동안 이어왔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기대했던 곳에 무덤의 열쇠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의 대부분을 베껴 적었다. 사실 그는 빛이 스러지기 시작할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보다. 내 백작의 관에 달린 자물쇠 중 하나가 열려 있다고 썼지만, 오늘 밤 확인해 보니 두 개가 풀려 있었다. 나는 두 자물쇠를 모두 들어 올린 뒤, 닫아보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창턱 위에 올려놓았다. 나머지 한 개는 여전히 단단히 잠겨 있다. 스프링식 자물쇠인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여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만약 내가 그 자물쇠를 풀 수 있었다면, 아마도 관을 열어볼 용기를 냈을 것이다. 사납고 음울한 노귀족의 성격에 대해 내가 느끼는 이 호기심은 참으로 기묘하다.”

다음 날이 Wraxall 씨의 Råbäck 체류 마지막 날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그는 영국으로 돌아가야 할 만한 투자 관련 서한들을 받았다. 그는 이미 문서들 속에서 할 일을 거의 다 끝냈고, 여행은 언제나 느리게 진행되기 마련이었다. 그는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자신의 노트에 마무리 작업을 한 뒤 떠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마지막 인사와 작별의 말을 나누는 데는, 알고 보니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걸렸다. 호의적인 가족들은 그가 저녁 식사에 머물러 달라고 고집했다. 그들이 먹는 시간은 세 시였지만, 그가 라백(Råbäck)의 철제 문 밖으로 나섰을 때는 이미 여섯 시 반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호숫가를 따라 걷는 모든 걸음마다 마음을 다져, 이제야말로 그곳을 마지막으로 밟는다고 생각하며 그 장소와 시간의 정서를 온전히 체득하려 했다. 교회 묘지의 언덕 정상에 다다랐을 때, 그는 오랫동안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과 멀리까지 이어진 숲의 광활한 풍경을 응시했다. 하늘은 액체 같은 푸른빛을 띠고 있었고, 그 아래 모든 숲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마지막으로 돌아서려 할 때, 그는 데 라 가르디가 가문의 다른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마그누스 백작에게도 작별 인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교회는 불과 이십 야드 떨어져 있었고, 그는 묘지의 열쇠가 어디에 걸려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거대한 구리 관 앞에 서 있었다. 평소처럼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당신도 예전에는 좀 악당이었을 테지만, 그래도 저는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바로 그 순간,” 그가 말한다. “내 발에 무언가 강타를 가하는 것을 느꼈다. 나는 재빨리 발을 빼냈고, 무언가가 바닥에 떨어지며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를 냈다. 그것은 관을 묶고 있던 세 개의 자물쇠 중 마지막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주우려 몸을 굽혔고—하늘이 증인이시니 나는 오직 있는 그대로의 진실만 쓰고 있음을 증언한다—일어서기 전에 금속 경첩이 빠격거리는 소리가 났고, 뚜껑이 위로 움직이는 것이 또렷이 보였다. 나는 비겁자처럼 행동했을지 모르지만, 단 한 순간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나는 내가 글을 쓰는 시간보다 더 짧은 시

간, 거의 내가 그 단어를 말하기만 하면 될 만큼 빠른 속도로 그 끔찍한 건물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내가 자물쇠에 열쇠를 돌려 잠그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금 나는 내 방에 앉아 이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스무 분도 지나지 않은 일인데도, 그 금속이 빠걱거리는 소리가 계속되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그것이 계속되었는지 아닌지 나는 알 수 없다. 나는 내가 쓴 것 이상으로 나를 놀라게 한 무언가가 있었음은 알겠으나, 그것이 소리였는지 시각적 현상이었는지 기억해 내지 못한다. 내가 지금 뭘 한 걸까?”

불쌍한 Wraxall 씨! 그는 계획대로 이튿날 잉글랜드로 떠났다. 무사히 도착했다. 하지만 그의 글씨체가 변하고, 일기 조각들이 일관되지 못한 것을 보면, 그는 이미 망가진 사람이었다. 그의 서류들과 함께 내게 온 작은 노트 여러 권 중 하나에는, 그의 경험을 설명하는 열쇠라기 보다는, 그 실마리가 담겨 있었다. 그의 여정의 대부분은 운하 배를 타고 진행되었고, 나는 그의 동승자들을 열거하고 묘사하려는 고통스러운 시도가 적어도 여섯 번이나 있음을 발견했다. 기록들은 다음과 같은 형태였다.

24. 스코네 지방의 마을 목사. 평소 검은 코트에 부드러운 검은 모자를 썼다. 25. 스톡홀름에서 트롤레한으로 가는 상업 여행상. 검은 망토에 갈색 모자를 썼다. 26. 긴 검은 망토와 챙이 넓은 모자를 쓴 남자. 매우 구식인 차림새였다.

이 항목은 선으로 지워졌고, 그 옆에 다음과 같은 메모가 적혀 있다.  
“아마 13번과 동일인물일 것이다. 아직 그의 얼굴은 보지 못했다.” 13번 항목을 다시 확인해 보니, 그는 검은 가운을 입은 로마 사제였다.

계산의 결과는 언제나 동일하다. 그가 열거한 명단에는 스물여덟 명이 나오는데, 그중 한 명은 늘 긴 검은 망토와 넓은 모자를 쓴 남자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어두운 망토와 후드를 쓴 작은 키의 인물”이다. 반면에 식사에는 언제나 스물여섯 명의 승객만 모습을 드러낸다. 망토를 걸친 남자는 아마도 결석했을 것이고, 작은 키의 인물은 분명히 빠져 있었다.

영국에 도착한 Wraxall은 하위치(Harwich)에 상륙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즉각 자신을 쫓아오는 특정 인물들, 혹은 그들 무리로부터 벗어나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들을 누구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자신을 추적하는 자들로 여겼다.

그는 기차 대신 마차를 선택했다. 밀폐된 마차였다. 그는 철도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는 시골길을 가로질러 벨샴프 세인트 폴(Belchamp St Paul) 마을로 달렸다.

그가 마을 근처에 다다랐을 때, 달빛이 비치는 8월의 밤은 이미 아홉 시쯤 지났다. 그는 몸을 앞으로 내밀고 앉아 창밖으로 달리는 들판과 수풀을 바라보고 있었다. 보이는 것은 그뿐이었다.

갑자기 마차는 십자길에 도착했다. 모퉁이에는 두 명의 인물이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둘 다 어두운 망토를 입고 있었다. 키가 큰 쪽은

모자를 쓰고 있었고, 키가 작은 쪽은 후드를 쓰고 있었다. 그는 그들의 얼굴을 볼 시간이 없었다. 또한 그가 알아챌 만한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말은 격렬하게 놀라더니 질주하기 시작했다. Wraxall은 절망감에 가까운 감정으로 마차 좌석에 몸을 웅크렸다. 그는 그들을 전에 본 적이 있었다.

벨샴프 세인트 폴에 도착한 그는 운이 좋게도 가구가 잘 갖춰진 숙소를 구할 수 있었다. 그 후 하루(24시간) 동안, 그는 비교적 평온하게 지냈다. 그의 마지막 일기는 바로 이 날에 기록된 것이다.

일기 내용은 너무 단편적이고 절박한 어조라 전체를 여기에 실을 수는 없지만, 그 요지는 명확하다. 그는 추격자들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언제, 어떻게 올지는 알 수 없었다. 그의 입에서는 끊임 없이 “그가 무엇을 했단 말인가?” “소망은 없는가?”라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의사들은 그를 미친 사람이라 부르겠고, 경찰들은 그를 비웃을 것이다. 목사는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그는 문에 자물쇠를 채우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벨샴프 세인트 폴 사람들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수년 전 어느 8월 밤, 낯선 신사가 찾아왔던 일을.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 그가 죽어 있는 것이 발견됐다는 사실도. 시신이 발견되자 즉각 심문관이 소환됐고, 시신을 검시하던 배심원 중 일곱 명이 기절했다. 그들은 자신이 본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최종 판정은 ‘신의 심판’으로 내려졌

다. 그 집을 지키던 사람들은 그 주 안에 모두 집을 비우고 그 지역을 떠났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그 미스터리의 실마리가 조금이라도 밝혀졌거나, 밝혀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우연히도 작년에 이 작은 집이 유산의 일부로 내 것이 되었다. 1863년부터 비어 있던 이 집은 임대할 전망도 없어 보였다. 그래서 나는 집을 헐어버렸고, 그 과정에서 가장 좋은 침실의 창문 아래 숨겨진 낡은 찬장 속에서 문서들을 발견했다. 내가 앞서 요약해 준 바로 그 문서들이었다.

“휘파람을 불어라, 내 친구. 내가 곧 달려가리.”

“이제 풀 학기가 끝났으니, 교수님, 곧 떠나시게 되겠군요.”

친절한 세인트 제임스 칼리지의 강당에서 열린 연회에서, 두 사람은 서로 옆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이야기의 등장인물이 아닌 한 인물이 온 토그래피 교수에게 이렇게 말을 건넸다.

교수는 젊었고, 단정했으며, 말도 정확했다.

“네,” 그가 말했다. “이번 학기 동안 친구들이 저를 골프에 빠뜨렸고, 저는 제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동부 해안, 정확히는 번스투우로 떠나려 합니다. (당신도 그 곳을 아실 겁니다.) 내일 떠나길 바랍니다.”

“오, 파킨스,” 반대편 이웃이 말했다. “번스투우로 가신다면 성전기사단 관구(preceptory) 터를 한번 둘러봐 주시겠소? 여름에 그곳을 파보면 어떤지, 제게 알려주세요.”

이 말을 한 이는 고고학에 뜻을 둔 사람이었음은 짐작할 만하다. 하지만 그는 이 서문에서만 잠깐 모습을 비추므로, 그의 직함이나 신분을 자세히 밝힐 필요는 없다.

“물론입니다,” 교수가 말했다. “그곳이 어디에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 제가 돌아왔을 때 그 땅의 형세를 최대한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현재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편지로 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귀찮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마워요. 다만 제가 가족들과 함께 여름 방학(the Long) 때 그쪽으로 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생각해보니 영국 내 대부분의 연수처(preceptories)는 제대로 설계되지 않았더군요. 그래서 쉬는 날에 조금이라도 유용한 일을 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교수는 성전기사단 관구(preceptory)를 설계하는 일이 무슨 쓸모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에 코웃음을 쳤다. 그의 이웃이 말을 이었다.

“그 장소는—지상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지금은 해변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그 해안가 일대에서는 바다가 엄청나게 육지를 침식해 왔습니다. 지도를 보면 글로브 인

에서 북쪽으로 약 3/4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묵으실 생각입니까?”

“글로브 여관이에요, 정확히는.” 파킨스가 말했다. “거기서 방을 하나 예약했어요. 다른 곳에서는 방을 구할 수가 없었거든요. 겨울철에는 대부분 숙소를 닫아둔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지금으로선 제가 쓸 수 있는 유일한 넓은 방이 침대가 두 개 있는 방이라고 해요. 다른 침대는 보관할 공간도 없대네요. 그렇지만 저는 어느 정도 넓은 방이 필요했어요. 책을 몇 권 가지고 내려가서 조금이라도 작업을 하려고 했거든요. 비어 있는 침대, 그것도 두 개가 있는 방에서 지내는 게 그리 기쁘지는 않지만, 머무는 기간이 짧으니 어떻게든 견딜 수 있겠죠.”

“방에 침대 하나를 더 둔다고 ‘고생’이라고 부르냐, 파킨스?” 맞은편의 직설적인 사내가 말했다. “나도 내려가서 잠시 그 방을 쓰게. 너에게 친구가 되어주겠지.”

교수는 몸을 떨었지만, 어찌어찌 예의 바르게 웃음을 지어 보였다.

“당연히 하죠, 로저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루하실까 봐 걱정입니다. 골프를 치시지 않죠?”

“아니요, 천만다행이죠!” 무례한 로저스 씨가 말했다.

“글쎄, 내가 글을 쓰지 않을 때는 아마 골프 링크에서 시간을 보낼 테니, 말했듯이 그건 당신에게 다소 지루할 거야, 걱정스럽군.”

“글쎄, 잘 모르겠군. 내 아는 사람이 분명 있을 테니까. 하지만 물론, 네가 원치 않으면 말해라, 파킨스. 나는 상하지 않을 거다. 진리는 네가 늘 말하듯, 결코 불쾌하지 않다고.”

파킨스는 정말로 신중하게 예의를 지키며, 엄격하게 진실만을 말했다. 로저스 씨는 때때로 이러한 그의 성격을 이용해 속이기도 했을 것이 두려웠다. 파킨스의 가슴 속에서는 격렬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잠시 동안 그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는 말했다.

“자, 정확한 진실을 알고 싶다면, 로저스. 내가 고민한 건 그 방이 우리 둘이 편히 지낼 만큼 정말 넓으냐는 거였어. 그리고 네가 내 일에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지. (네가 강요하지 않았으면 이 말은 하지 않았을 거야.)”

로저스가 큰 소리로 웃었다.

“잘했네, 파킨스!” 로저스가 말했다. “괜찮아. 네 일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마라. 원하지 않으면 안 들어갈 테지만, 유령을 쫓아내려 그런다고 생각했지.” 이때 그는 옆 사람에게 눈짓을 하고 툭 치는 모습이 보였다. 파킨스도 얼굴이 붉어지는 것이 눈에 띄었다. “미안해, 파킨스.” 로저스가 계속 말했다. “그런 말을 해서 안 됐어. 이런 주제에 장난스러운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는 걸 깜빡했군.”

“그래,” 파킨스가 말했다. “네가 그 이야기를 꺼냈으니, 솔직히 말해 내가 네가 유명이라 부르는 것에 대한 무분별한 수다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숨기지 않겠다. 내 처지에선,” 그는 목소리를 조금 높이며 이어갔다. “이런 주제에 대한 대중의 믿음을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을, 내가 보기에 지나칠 정도로 조심해야 한다. 내가 알다시피, 로저스. 아니면 알아야 마땅한 일이지. 내가 내 견해를 한 번도 숨긴 적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니, 당신은 확실히 그렇지 않아, 이 사람아.” 로저스가 낮은 목소리로 끼어 들었다.

“나는 그런 것들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시각에 조금이라도 양보하는 태도는, 내가 가장 성스럽게 여기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마도 내 말에 귀 기울이지 못한 것 같아 아쉽군.”

“블림버 박사가 실제로 하신 말씀은 ‘온전한 주의’였습니다.” 로저스가 정확성을 간절히 바라는 듯한 태도로 말을 끊었다. “하지만 실례했습니다, 파킨스. 제가 당신을 방해하고 있군요.”

로저스 씨는 틀렸다. 『돈비와 아들』 제12장을 보라.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파킨스가 말했다. “블림버는 기억나지 않네요. 아마 제 시대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뜻인지 잘 아실 테니까요.”

“네, 맞아요.” 로저스가 다소 급하게 말했다. “그건 번스토우에서, 아니면 다른 곳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기로 해요.”

위 대화 내용을 되풀이하며 나는 파킨스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 인상을 최대한 살리려 했다. 그는 다소 노파 같은 구석이 있었다. 작은 습관들까지도 아마도 닮처럼 여겨질 만했다. 안타깝게도 유머 감각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확신에 찬 담대함과 진정성을 지녔다. 그는 가장 큰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 독자가 그 점을 충분히 감지했든 아니든, 파킨스의 성격은 바로 그와 같았다.

다음 날, 파킨스는 바랐던 대로 대학을 빠져나와 번스토우에 도착했다. 글로브 여관에서서는 성심껏 환영받았고, 앞서 언급한 넓은 더블룸에 무사히 안착했다. 잠들기 전, 그는 작업할 자료를 차곡차곡 정리했다. 방 한쪽 끝에는 널찍한 책상이 놓여 있었고, 그 주변 세 면에는 바다를 향해 난 창문이 있었다. 중앙 창문은 정면으로 바다를 내려다보았고, 좌우 창문은 각각 북쪽과 남쪽 해안을 따라 펼쳐진 풍경을 조망할 수 있었다. 남쪽으로는 번스토우 마을이 보였지만, 북쪽에는 건물이 하나도 없었다. 오직 해변과 그 뒤를 받치고 있는 낮은 절벽만이 펼쳐져 있을 뿐이었다.

여관에서 바다까지의 거리는 처음부터 얼마나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지금은 60야드도 채 되지 않았다. 방 바로 앞에는 낮은 담과 원치 등 잡동사니가 흩어진 거친 초지가 있었고, 그 너른 길이 이어졌으며, 그 끝에 해변이 있었다.

여관에는 다른 손님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골프를 치러 온 사람들이었다. 특별히 묘사할 만한 이들은 드물었다.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한 노장교였다. 그는 런던의 한 사교클럽의 서기였으며, 놀라울 정도로 힘이 센 목소리를 지니고 있었다. 그의 신앙관은 뚜렷한 개신교적 성향을 띠고 있었다.

그는 목사의 설교를 들은 뒤면, 자신의 견해를 주저 없이 토로하곤 했다. 목사는 훌륭한 인물이었지만, 관습적으로 화려한 의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는 동앵글리아의 전통을 존중하며, 그 화려한 의전을 최대한 억누르고 있었다.

파킨스 교수는 용감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번스토우에 도착한 후 그는 하루 대부분을 ‘실력 향상’에 할애했다. 그와 함께한 것은 월슨 대령이었다.

오후 내내 두 사람은 골프를 쳤다. 실력 향상의 여파였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였을까. 오후가 깊어갈수록 월슨 대령의 태도는 점점 더 흥포해졌다. 그의 기색이 너무 흥악해지자, 파킨스 교수조차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다.

교수는 잠시 그 날카롭게 서 있는 수염과 붉게 달아오른 얼굴을 흘끗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결심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둘이 마주쳐야 할 때를 피하는 것이 현명하겠다고. 차와 담배가 대령의 기분을 가라앉히기를 기다려야겠다고.

“오늘 밤 해변을 따라 집으로 걸어가 볼까.” 그는 생각했다. “그래, 디즈니가 말했던 유적지를 한번 살펴보자. 충분히 밝을 거야.”

그 유적지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그는 잘 알지 못했다. 하지만 어쨌든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그 일을 아주 말 그대로, 즉 문자 그대로 성취했다. 링크에서 자갈 해변으로 길을 걸어가던 중, 그의 발이 가시금작화 뿌리와 큰 돌 사이에 걸렸기 때문이다. 그는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니, 그는 작은 함몰지와 언덕이 섞인 다소 울퉁불퉁한 땅 한복판에 서 있었다. 그는 그 언덕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것은 단순히 모르타르로 붙여진 부싯돌 덩어리들이었고, 그 위에는 잔디가 자라고 있었다. 그는 이 장소가 자신이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던 전수관(preceptory)의 터임에 틀림없다고, 그리고 그 추론은 매우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곳은 탐험자의 삽을 통해 충분한 보상을 받을 만해 보였다. 기초의 일부는 아마도 그리 깊지 않은 곳에 남아 있어, 전체적인 배치에 대해 많은 것을 밝혀줄 것이었다. 그는 템플 기사단이 이 터를 소유하고 있었을 때, 원형 교회들을 짓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을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에게 가까운 언덕들의 한 연쇄가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와 완전히 동떨어진 분야에서 약간의 아마추어적 연구를 시도하지 않을 유혹을 거의 모두 떨쳐버리지 못한다.

단지 진지하게 착수했다면 얼마나 성공적이었을까를 보여줌으로써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그러나 우리 교수는 이런 하찮은 욕망을 느꼈을지라도, 동시에 디즈니 씨를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는 진정한 열망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이 발견한 원형 영역을 신중하게 두 발로 재어 보았고, 그 대략적인 치수를 수첩에 적어 넣었다. 그런 다음 그는 원형 중앙의 동쪽에 위치한 직사각형 모양의 높은 곳을 살펴보았다. 그곳은 플랫폼이나 제단의 기초일 가능성이 있어 보였다. 그 높은 곳의 한쪽 끝, 북쪽 끝에서는 잔디가 벗겨져 있었다. 어떤 소년이나 야생동물이 떼어낸 것이었다. 그는 이곳의 토양을 찢어 살펴 석조물의 흔적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는 칼을 꺼내어 흙을 긁어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작은 발견이 이어졌다. 그가 흙을 긁자, 일부 토양이 안쪽으로 무너져 작은 구멍이 드러났다. 그는 구멍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성냥을 하나씩 켜보았지만, 바람이 너무 강해 모두 꺼지고 말았다. 그러나 칼로 구멍의 벽을 두드리고 긁어봄으로써, 그것이 석조물 안에 인공적으로 파인 구멍임을 알아챌 수 있었다. 그 구멍은 직사각형이었고, 벽, 천장, 바닥은 실제로 회반죽이 발려 있지 않은 것만 매끄럽고 규칙적이었다.

물론 그 구멍은 비어 있었다. 아니! 그가 칼을 빼내자 금속성이 강한 딸랑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가 손을 넣자, 구멍 바닥에 놓인 원통형 물체가 그의 손에 닿았다. 자연스럽게 그는 그것을 들어 올렸

고, 이제 빠르게 어두워지는 빛 속으로 가져왔을 때, 그것 역시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볼 수 있었다. 길이가 약 4인치 되는 금속 관이었으며, 분명히 상당한 나이를 먹은 것이었다.

돌아설 때 마지막으로 바라본 풍경은 쓸쓸하고 엄숙했다. 서쪽 하늘에는 희미한 노란빛이 감돌았고, 그 빛 속에서 몇몇 인영이 클럽하우스 쪽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왜소한 마텔로 탑, 올드시 마을의 불빛, 검은 목조 방조제가 간격을 두고 가로지른 회색 모래사장, 그리고 흐릿하게 웅웅거리는 바다까지.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매서웠지만, 그는 글로브(Globe)로 향할 때는 바람을 등에 업고 있었다. 자갈밭을 빠르게 지나 모래사장에 올라섰다. 몇 야드마다 놓인 방조제를 넘겨야 했지만, 그 외의 길은 걷기에 좋고 고요했다.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성벽만 남은 템플러 교회에서 떠난 이후 얼마나 거리를 벌렸는지 재보기 위해서였다. 그 시야에 한 명의 인물이 보였다. 그는 매우 희미하게 보였으나, 급히 따라오려는 듯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진전은 미미했다.

그의 동작은 달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와 파킨스 사이의 거리는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았다. 파킨스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 사람은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분명했고, 따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생각했다. 이 외로운 해변에서라면, 동행자가 있다면 정말 반가울 텐데. 단, 그 동행자를 내가 고를 수 있다면 말이다.

그는 무지했던 시절, 이런 장소에서 벌어지는 만남에 관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었다.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끼칠 만큼의 이야기였다. 그는 집까지 오는 내내 그 이야기들을 떠올렸다. 특히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해 보았을 한 장면을 떠올렸다.

“지금 내가 꿈에서 본 바에 따르면, 크리스천이 아주 짧은 거리를 간 직후, 그는 들판을 가로질러 다가오는 더러운 악마를 보았다.”

파킨스는 생각했다. 만약 뒤를 돌아보아 노란 하늘에 선명하게 드리워진 검은 형체를 보고, 그에게 뿔과 날개가 달려 있다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서 있을 것인가, 도망칠 것인가.

다행히 뒤따르는 신사는 그런 종류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처음 봤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다.

좋다. 이대로라면 그 사람은 나보다 늦게 저녁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 이제 15분도 채 남지 않았다.달려야 해!

파킨스는 사실 옷을 차려입을 시간이 거의 없었다. 저녁 식사 때 대령을 만나자, 피스—그 남자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가 다시 그 군인의 가슴속에 군림했다. 저녁 식사 이후 이어진 브리지 게임 시간에도 피스는 물러나지 않았다. 파킨스가 꽤 괜찮은 선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자정을 향해 밤늦게 침실로 돌아갈 때, 자신의 저녁을 매우 만족스럽게 보냈다고 느꼈다. 그리고 비슷한 조건 아래라면, 길어야 보름이나 삼 주 정도는 글로브에서의 삶도 견딜 만하리라고 생각했다. “특히,” 그는 생각했다. “내가 내 기량을 계속 향상시킨다면.”

그가 복도를 따라 걷고 있자 Globe 호텔의 구두닦이가 나타났다. 구두닦이는 그를 막아 서며 말했다.

“실례합니다, 신사님. 방금 신사님 외투를 털고 있었는데 주머니에서 뭔가가 떨어졌습니다. 신사님 방의 서랍장 위에 올려뒀어요. 파이프 조각 같은 것이었는데요. 감사합니다, 신사님. 서랍장 위에 있을 겁니다. 네, 신사님. 잘 주무세요, 신사님.”

그 말은 파킨스에게 오후에 발견한 그 작은 물건이 떠올랐다. 그는 촛불을 켜고 그것을 손으로 만져보며 꽤나 호기심을 품었다. 그것은 청동으로 되어 있었고, 현대의 개 호루라기처럼 생겼다. 사실 그것은 호루라기였다. 그는 그것을 입에 대려고 했지만, 그것은 미세한 모래나 흙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흔들려도 나오지 않았고, 칼로 긁어내야 했다. 파킨스는 항상 깔끔한 습관을 가진 사람이라, 그 흙을 종이 위에 털어내고 창문으로 가서 버렸다. 밤은 맑고 밝았다. 그는 창문을 열자마자 바다를 바라보며, 여관 앞 해변에 서 있는 늦은 시간까지 돌아다니는 한 사람을 발견했다. 그는 잠시 멈춰서 바다를 바라보며, 버니스트우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늦게까지 일어나 있는 것에 대해 약간 놀랐다. 그리고 다시 호루라기를 불빛에 비춰보았다. 왜, 분명히 표식이 있었다. 단순히 표식뿐만 아니라 글자도 있었다. 아주 살짝 문지르자

깊게 새겨진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다. 하지만 교수는 진지하게 생각한 끝에, 그 의미가 벨사살의 벽에 적힌 글자처럼 자신에게는 여전히 수수께끼임을 인정해야 했다. 호루라기의 앞면과 뒷면 모두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하나는 다음과 같이 읽혔다:

플라 푸르 비스 플레

다른 하나는

그는 누구인가, 그가 오고 있다

“해독할 수 있어야 해.” 그가 생각했다. “하지만 라틴어가 조금은 녹슬었나 보다. 생각해보니 피리나 호루라기라는 단어조차 기억나지 않는 것 같다. 긴 쪽의 표기는 꽤 단순해 보인다. ‘누가 오고 있는가?’라는 뜻이겠지. 알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분명히 그를 부르는 피리를 붙여 보는 거야.”

그는 조심스럽게 불었다가, 갑자기 멈췄다. 그가 만들어낸 소리에 놀랐지만, 동시에 기분이 좋아졌다. 그 소리에는 끝없는 거리의 정서가 담겨 있었다. 소리는 매우 작았지만, 그는 어딘가에서 수 마일 떨어진 곳까지 들릴 것만 같았다. 그 소리는 또한 뇌리에 이미지를 형성하는 힘(많은 향기가 지닌 그런 힘)을 지니고 있는 듯했다. 그는 잠시 동안 선명하게 하나의 환상을 보았다. 밤하늘 아래 넓고 어두운 공간, 그리고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곳. 한가운데에는 외로운 한 인물이 있었다. 그 인물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는 알 수 없었다. 아마도 그 인물이 더 많이 보였을 것이다. 만약 그 장면이 갑자기 그의 창문에 부딪히

는 돌풍의 물결에 의해 깨지지 않았다면. 그 돌풍은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가 고개를 들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어둠 속 창문 너머 어딘가에서 바다새 날개의 희미한 빛을 보았다.

휘슬 소리가 그를 너무 매료시켜, 그는 또 한 번 붙어보고 말았다. 이번에는 더 과감하게. 소리는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되풀이된 소리는 환상을 깨뜨릴 뿐이었다. 그는 반쯤 기대했던 그림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건 대체 뭐지? 맵소사, 바람이 이렇게 세게 불다니! 정말 거센 돌풍이야! 봐, 내가 말했지, 이 창문 잠금장치는 소용없다고! 아, 생각했지. 양초 두 개가 모두 꺼졌어. 이 방을 통째로 뜯어갈 기세야.'

우선 창문을 닫아야 했다. 스물을 셀 만한 짧은 사이, 파킨스는 작은 창문과 씨름했다. 그 압력이 얼마나 세던지, 마치 단단한 도둑을 밀어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자 그 힘이 갑자기 풀렸고, 창문이 쿵 하고 닫히며 자동으로 잠겼다. 이제 촛불을 다시 켜서, 만약 손상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했다. 아니,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았다. 창문의 유리가 깨진 자국조차 없었다. 하지만 그 소음은 분명히 집안 사람들 중 적어도 한 명을 깨웠을 것이다. 위층에서 대령이 양말 신은 발로 바닥을 구르며 거친 소리를 내는 소리가 들렸다.

바람은 갑자기 불기 시작했지만, 곧바로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집 주변을 맴돌며 비명처럼 몰아쳤다. 때로는 너무 처절하고 외로운 비명이라, 파킨스는 냉정하게도 말했다.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라면 그 소리에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심지어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들

도, 15분쯤 지나서야 깨달았지만, 그 소리가 없었더라면 더 나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바람 때문이었을까, 골프의 흥분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수도원 유적지 조사에 대한 열의 때문이었을까. 파킨스는 자신이 왜 잠들지 못하는지 확실히 알 수 없었다. 어쨌든 그는 오랫동안 눈을 뜨고 있어야 했다.

그런 상황에서는 나도 종종 그렇듯, 그는 온갖 치명적인 질환의 희생자가 된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혔다. 그는 누운 채 자신의 심장 소리를 세며, 심장이 언제라도 멈출 것 같다고 확신했다. 동시에 폐나 뇌, 간 등에도 심각한 의심을 품었다.

이 의심들은 아침이 밝아오면 저절로 사라질 것임을 그는 알았다. 하지만 해가 뜨기 전까지, 그 의심들은 결코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누군가 자신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생각으로 위안을 삼았다. 가까운 이웃도(어둠 속이라 어느 쪽인지 가늠하기 어려웠다) 침대에서 뒤척이며 바스락거리고 있었다.

다음 단계는 파킨스가 눈을 감고 잠을 청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주기로 마음먹는 것이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과잉된 흥분이 다른 형태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바로 환상, 즉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경험한 자의 말을 믿으라.’ 눈을 감고 잠을 청하는 이의 눈꺼풀 뒤에는 실제로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간다. 그것들은 종종 그 사람의 취향에 맞지 않아, 결국 눈을 뜨고 그 환상들을 흠뻑려버리게 만든다.

파킨스의 이번 경험은 매우 고통스러웠다. 그가 본 그림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었다. 눈을 뜨면 그림은 사라졌지만, 눈을 감으면 다시 금 선명하게 떠올랐고, 이전과 똑같은 속도로 계속 재생되었다. 그가 본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모래사장이 경계선을 이루는 자갈밭이 길게 이어졌다. 짧은 간격마다 검은 방파제가 물가까지 내려섰다. 이 풍경은 오후에 걸었던 곳과 너무 닮아 있었다. 눈에 띄는 랜드마크가 없었기 때문에, 두 곳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빛은 흐릿했다. 곧 폭풍이 몰아칠 것 같은 기운이 느껴졌다. 늦겨울 저녁, 차가운 비가 살짝 내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이 황량한 무대에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멀리서 검은 물체가 요동치듯 나타났다. 잠시 후, 그것은 한 남자가 달리는 모습이 되었다. 그는 방파제를 뛰어넘고, 기어올랐다. 그리고 몇 초마다 다급하게 뒤를 돌아보았다.

그가 가까워질수록 그의 불안은 더 뚜렷해졌다. 그는 두려움에 질려 있었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공포에 떨고 있음이 분명했다. 게다가 그는 거의 힘이 다 떨어진 상태였다.

그는 계속 나아갔다. 넘어야 할 장애물이 하나둘 다가올수록, 그의 발걸음은 더 무거워졌다.

‘저 사람은 다음 방파제를 넘을까?’

파킨스는 생각했다. ‘다른 것보다 조금 더 높아 보인다.’

남자는 기어올라가며 몸을 던졌다. 결국 방파제를 넘었다. 그리고 반대편(관객에게 가장 가까운 쪽)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듯했다. 방파제 아래 웅크린 채, 고통스럽고 불안한 표정으로 위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지금까지 그 달리는 자를 두려워할 만한 이유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해안선 너머, 멀리서 희미한 빛깔의 무언가가 빠르게, 불규칙하게 흔들리며 움직이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점점 더 커졌고, 흐릿하게 흐르는 창백한 옷자락을 휘날리는 인물의 형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의 움직임은 파킨스를 가까이서 보고 싶지 않게 만들었다. 그것은 잠시 멈추더니 팔을 들어 올리고 모래 위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러곤 굽신거리며 해변을 가로질러 물가까지 달려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는 곧장 일어서서, 놀랍고도 무서운 속도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때가 되자, 추격자는 달리던 남자가 숨어 있던 방파제에서 불과 몇 야드 밖을 좌우로 맴돌기 시작했다. 몇 번의 헛된 탐색 끝에, 그것은 멈춰 섰다. 팔을 높이 들어 올린 채로 서 있다가, 곧장 방파제 쪽으로 돌진했다.

그때가 되면 파킨스는 항상 눈을 감기로 한 결심을 무너뜨리고 말았다. 시력 저하의 징후, 과도한 뇌, 지나친 흡연 등 갖가지 이유를 대며

그는 결국 양초에 불을 붙이고 책을 꺼내 밤을 새우기로 마음을 접었다. 그날 낮에 산책하며 머릿속에 맴돌았던 생각들이 만들어낸 병적인 환상일 뿐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지만, 그 끊임없이 펼쳐지는 풍경에 시달리기보다는 깨어 있는 밤을 보내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 것이다.

성냥을 켜는 소리와 빛의 눈부심은 아마 밤의 어떤 생물들을 놀라게 했을 것이다. 쥐라든가 그런 것들이 침대 옆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바닥 위를 달아나는 소리가 들렸다.

아, 안 돼! 성냥이 꺼졌네! 바보 같은 놈!

하지만 두 번째 성냥은 더 잘 타올랐다. 촛불과 책을 손에 쥔 파킨스는 그 위에 몰두했고, 곧 건강한 수면이 그를 덮쳤다. 생각보다 훨씬 짧은 시간이었다.

그는 질서 정연하고 신중한 자신의 삶에서 처음으로, 촛불을 끄는 것을 잊었다. 다음 날 아침 여덟 시에 깨어났을 때, 침대 속에는 아직 불꽃이 떨리고 있었고, 작은 탁자 위에는 녹아내린 양초 기름이 지저분하게 엉켜 있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그는 자신의 방에서 골프복을 다듬고 있었다. 운명도 다시 대령을 그의 파트너로 정해 준 것이었다. 그때 한 여종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실례합니다, 선생님.” 그녀가 말했다. “침대에 이불을 더 깔아 드릴까요?”

“아, 고맙소.” 파킨스가 말했다. “네, 하나 있으면 좋겠군. 날씨가 좀 더 추워질 것 같으니까.”

잠시 후, 하녀가 담요를 들고 돌아왔다.

“어느 침대에 올려놓아야 하나요, 선생님?” 그녀가 물었다.

“뭐? 왜, 그거요—어젯밤 제가 잤던 바로 그 침대 말입니다.” 그가 그것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선생님. 두 침대 모두 사용하신 것 같았거든요. 적어도 오늘 아침에는 두 개를 모두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정말요? 너무 터무니없군요!” 파킨스가 말했다. “나는 다른 침대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저 물건을 올려놓았을 뿐이죠. 정말로 누군가 잤던 것처럼 느껴졌나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하녀가 대답했다. “무엇보다도 모든 물건들이 구겨지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실례지만, 선생님, 정말로 밤새도록 제대로 잠을 못 자고 지낸 사람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저런.” 파킨스가 말했다.

“아, 괜찮습니다. 짐을 풀다가 실수로 어지럽힌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더 많이 뒤섞여 있었네요. 번거롭게 해 드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곧 제 친구가 올 텐데요. 케임브리지에서 온 신사분인데, 하룻밤 이틀 정도 묵으실 거예요. 괜찮으시겠죠?”

“네, 물론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전혀 귀찮은 일이 아니에요.” 여종이 말하며 곁으로 물러났다. 그녀는 동료들과 함께 수군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파킨스는 자신의 기량을 끌어올리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길을 나섰다.

나는 그 일이 어느 정도 잘 풀렸음을 보고할 수 있어 기쁘다. 그는 이 사업에서 꽤나 성공을 거두었고, 그 덕분에 대령의 태도도 달라졌다. 대령은 처음에는 그와 함께 하루 더 경기해야 한다는 생각에 다소 불만을 품고 있었지만, 아침이 깊어질수록 입이 트이며 말이 많아졌다. 그의 목소리는 평원을 울려 퍼졌는데, 우리 중 소수 시인들이 말했듯 “대성당 탑의 거대한 저음 종소리처럼” 깊고 웅장했다.

“어젯밤에 그 바람이 참으로 기이했소.” 그가 말했다. “우리 고향에서는 누군가 휘파람으로 바람을 불러냈다고 했을 거요.”

“정말요!” 파킨스가 말했다. “당신 지역에서는 아직도 그런 미신이 통용되고 있습니까?”

“미신 같은 건 잘 모르겠습니다.” 대령이 말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 그리고 요크셔 해안가에서도 사람들은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으로는, 잘 기억해 두시라, 시골 사람들이 대대로 믿어온 것들 밑바닥에는 대체로 무언가 진실이 숨어 있더군요. 하지만 이제 당신이 칠 차례군요.” (혹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골프를 즐기는 독자들은 적절한 간격에 맞춰 알맞은 에피소드를 상상해 주셔야 합니다.)

대화가 재개되자, 파킨스는 약간의 망설임 섞인 어조로 말했다.

“방금 하신 말씀과 관련해, 대령님, 제 의견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주제에 대해 제 견해는 매우 확고합니다. 사실, 저는 이른바 ‘초자연적’ 현상을 믿지 않는 단호한 회의론자입니다.”

“뭐라고? 너는 제2의 시야라든가, 유령, 혹은 그런 것들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냐?” 대령이 물었다.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파킨스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음,” 대령이 말했다. “하지만 그 말씀대로라면, 선생님, 당신은 사두개파 신자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파킨스는 대답하려다 말았다. 그는 구약성경에서 사두개인들이 가장 현명한 인물들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책에 사두개인에 대한 언급이 얼마나 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 비난을 웃어 넘기기로 했다.

“아마도 그럴지도 모르지.” 그가 말했다. “하지만—여기, 내 클리크를 가져다 줘, 소년!—잠시만 참아 주시게, 대령.”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제 바람을 부르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내 이론을 들려주마. 바람을 지배하는 법칙은 사실 전혀 완벽하게 알려지지 않았어. 어부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예 알려지지 않았지.

이상한 습관을 가진 사람, 혹은 낮선이가 비정상적인 시간에 해변에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휘파람을 부는 모습이 목격된다. 얼마 후 격렬한 바람이 불어닥치지. 만약 그 사람이 하늘을 완벽하게 입을 줄 알거나 기압계를 가지고 있었다면, 바람이 올 것을 예견했을 거야.

어촌의 소박한 사람들은 기압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 날씨를 점치는 데는 대략적인 규칙 몇 가지만 있을 뿐이지. 그렇다면 내가 가정했던 그 이상한 인물이 바람을 일으켰다고 여겨지는 것이, 혹은 그 사람이 그런 능력을 가진 소문을 얻으려 애쓰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인가?

지금, 어젯밤의 바람을 생각해 보라. 우연히도 나 자신이 휘파람을 불고 있었어. 나는 두 번 휘파람을 불었고, 바람은 내 부름에 절대적으로 답하듯 불어왔지. 만약 누군가 나를 목격했다면—”

그 연설을 듣던 청중들은 조금씩 불안한 기색을 드러냈다. 파킨스의 말투도, 내가 두려워하는 바대로, 어느새 강연자의 톤으로 기울고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문장을 끝내자, 대령은 말을 멈췄다.

“휘파람을 불었던 말이야?” 그가 말했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휘파람을 썼지? 먼저 이 샷부터 치게.” 잠시 멈춤.

“대령, 그 휘슬에 대해 물어보시던데, 꽤 이상한 물건입니다. 제 방에 있는데…… 아, 아니요. 제가 아까 방에 두고 나왔네요. 사실은 어제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파킨스는 호각을 발견한 경위를 이야기했다. 그 말을 들은 대령은 툭툭거리며, 만약 자신이 파킨스 자리라면 자신도 조심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가톨릭 신자들의 소지품이었으니까. 일반적으로 말해서, 가톨릭 신자들은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

이 화제에서 대령은 신부의 만행으로 화제를 돌렸다. 신부는 지난 주일에 금요일이 사도 토마스 축일이며,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예식이 있다고 통보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대령의 생각에 신부가 은밀한 가톨릭 신자이며, 아니 예수회원일 수 있다는 강력한 추정을 구성했다. 파킨스는 이 영역에서 대령을 쉽게 따라가지 못했지만, 딱히 반대 하지는 않았다. 사실, 그들은 아침에 매우 잘 지냈고, 점심 후에 헤어 질 것에 대해서는 어느 쪽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오후 내내 두 사람은 경기를 잘 이어 갔다. 적어도 빛이 어두워지기 전까지는 다른 생각은 모두 잊고 오직 경기에만 집중했다.

그제야 파킨스는 자신이 예전 관저에서 더 조사를 해볼 생각이었다 는 것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 하루는 다른 하루와 다를 바 없었다. 그는 대령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집 모퉁이를 돌던 중, 대령은 한 소년에게 거의 쓰러질 뻔했다. 소년 은 온 힘을 다해 돌진하듯 대령에게 들이닥쳤으나, 도망가지는 않았다. 오히려 대령에게 매달린 채 혈떡거렸다.

전사라 자부하는 대령의 첫 마디는 당연히 책망과 꾸지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곧장 소년이 공포에 질려 말을 잊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처음에는 어떤 질문도 통하지 않았다. 소년이 숨을 고르자 울부짖기 시작했고, 여전히 대령의 다리에 매달려 있었다. 겨우 떼어냈으나, 소년은 울부짖음을 멈추지 않았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대체 뭘 하고 다녔어? 대체 뭐를 본 거야?” 두 남자가 물었다.

“창문 너머로 저게 저한테 손짓했어요.” 소년이 울부짖었다. “저걸 보면 기분이 나빠져요.”

“어떤 창문 말이오?” 성난 대령이 말했다. “자, 정신 차리시오, 내 친구.”

“호텔 앞쪽 창문이었어요.” 소년이 말했다.

이때 파킨스는 그 소년을 집으로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대령은 거절했다. 그는 그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고 싶었다. 그는 말했다. 이런 무서운 놀람을 아이에게 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며, 만약 사람들이 장난을 친 것이 밝혀진다면 그들 역시 어떤 형태로든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그리고 일련의 질문들을 통해 그는 이 이야기를 밝혀냈다.

소년은 글로브 호텔 정면의 잔디밭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었다. 그러다 그들은 차를 마시러 집으로 돌아갔고, 소년도 막 떠나려던 참이었다. 그때 그는 우연히 정면 창문을 올려다보았고, 그곳에서 무언가가 자신을 향해 손짓하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어딘지 모르게 사람의 형상을 한 것이었다. 소년이 알기로는 하얀색이었다. 얼굴은 볼 수 없었지만, 그 존재가 자신을 향해 손짓하고 있었다.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었다. 아니, 옳지 않은 사람이라 해야 할까.

방 안에 불이 켜져 있었느냐고 물었다. 소년은 불이 켜져 있는지 확인해 보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어느 창문이냐고 물었다. 맨 위 층이냐, 두 번째 층이냐고.

두 번째 층이었다. 양옆으로 작은 창문이 두 개 달린 큰 창문이었다.

“좋아, 소년아.” 대령이 몇 가지 더 질문을 한 뒤 말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아마 누군가 너를 놀리려던 짓이었겠지. 다음부터는 용감한 영국 소년답게 행동해라. 돌을 던진단가—아니, 그건 아니지만—웨이터나 여관주인 심슨 씨에게 다가가서, 내가 그렇게 하라고 조언했다고 말해라.”

소년의 얼굴에는 심슨 씨가 자신의 불만을 들어줄 리가 없다는 의심이 스쳤다. 하지만 대령은 그 기색을 눈치채지 못한 듯, 계속 말을 이었다.

“여기 육펜스 있네—아, 아니, 실링이로군. 집으로 돌아가. 이제 이 일은 잊어라.”

청년은 초조한 감사의 인사를 남긴 채 얼른 자리를 떴다. 대령과 파킨스는 글로브 호텔 정면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들을 괴롭혀 왔던 설명과 일치하는 창문이 단 하나뿐임을 확인했다.

“음, 참 이상하군요.” 파킨스가 말했다. “저 소년이 말한 창문은 분명 내 것이야. 월슨 대령, 잠시 올라오시겠습니까? 내 방에 누가 함부로 들어왔는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들은 곧 복도에 들어섰다. 파킨스는 문 열 듯이 움직이다가, 갑자기 멈춰 섰다. 그는 주머니를 더듬었다.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하군.”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에 문에 자물쇠를 채웠던 게 기억나네. 지금도 문은 잠겨 있고, 더 중요한 건 여기 열쇠가 있다는 거야.” 그는 열쇠를 들어 보였다. “이제 말인데, 만약 하인들이 내가 외출한 낮 시간에 방에 드나드는 습관이 있다면, 나는 그것에 대해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군.”

그는 결론이 다소 약하게 느껴진 듯, 급히 문을 열고 양초에 불을 붙이는 일에 정신을 팔았다. 문은 정말로 잠겨 있었다. “아니, 아무것도 어지러워진 게 없군.”

“침대를 제외하고는요.” 대령이 끼어들었다.

“실례합니다. 그건 제 침대가 아닙니다.” 파킨스가 말했다. “저는 그 쪽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장난을 친 것 같아 보이네요.”

분명했다. 옷들은 가장 비틀리고 꼬인,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상태로 뭉쳐져 있었다. 파킨스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게 맞겠군.” 그가 마침내 말했다. “어제 짐을 풀면서 옷을 어지럽혔지. 그래서 그 이후로 다듬지 못한 게 분명해. 아마 누군가 다듬으러 들어갔고, 그 소년이 창문을 통해 그들을 봤을 거야. 그런데 누군가 부른 탓에 나가버리고, 문도 잠그고 간 모양이야. 그래, 내가 생각해도 그게 맞을 거야.”

“그럼 벨을 눌러 물어보게.” 대령이 말했다. 그 말은 파킨스에게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받아들여졌다.

하녀가 모습을 드러냈다. 긴 이야기를 짧게 줄이자면, 그녀는 아침에 신사가 방 안에 있을 때 침구를 정리했고, 그 이후로는 그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녀는 다른 열쇠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심슨 씨가 열쇠를 관리하고 있었으며, 누군가 방에 올라왔는지 여부는 심슨 씨가 신사에게 알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수수께끼였다. 조사를 해 보니, 아무런 가치 있는 물건도 가져가지 않은 것이 분명했다. 파킨스는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작은 물건들의 배치가 어땠는지 잘 기억하고 있었기에, 그것들에 누가 손댄 적이 없으리라고 확신했다. 심슨 부부도 그날 하루 동안 방의 열쇠 사본을

그 누구에게도 건네주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공정한 성품의 소유자였던 파킨스에게도 주인, 여주인, 하녀의 태도에서 죄의식이 드러나는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그 소년이 대령을 속였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했다.

그는 저녁 식사 내내, 그리고 밤늦게까지 유난히도 침묵을 지켰다.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가 파킨스에게 밤인사를 건넬 때, 그는 거친 낮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밤에 내가 필요하면 내가 어디 있는지 알 거야.”

“아, 네, 감사합니다, 월슨 대령.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당신을 방해할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가 덧붙이며 말했다. “제가 말했던 그 낡은 호루라기를 보여줬나요? 아마 안 보여줬을 겁니다. 여기 있습니다.”

대령은 촛불 아래에서 그 물건을 조심스럽게 뒤집어 들었다.

“이 글귀를 읽어내실 수 있습니까?” 파킨스가 그것을 다시 받아들며 물었다.

“아니, 이 빛으로는 안 돼. 대체 그걸로 뭘 하려는 거야?”

“아, 좋소. 케임브리지로 돌아가면 그곳의 고고학자들 몇몇에게 보여주며 의견을 들어볼 거요. 그리고 그들이 이를 가치 있다고 판단한다면, 아마도 박물관 중 하나에 기증할지도 모르겠소.”

“‘M’이군요?” 대령이 말했다. “음,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아는 건 오직 이것뿐입니다. 만약 그 물건이 제 것이라면, 저는 주저 없이 바다에 던져버릴 테니까요. 말로써는 어쩔 수 없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경우엔 직접 겪어 봐야 배우는 거겠지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그는 등을 돌렸다. 파킨스는 계단 아래에서 말을 건넌 참이었으나, 그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곧 두 사람은 각자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한 시간 넘게 푹 잤을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들리며 그를 깨웠다. 매우 달갑지 않은 방식이었다.

순간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다. 그가 신중하게 설치한 가림막이 무너진 것이다. 그리고 서리 내린 달빛이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추고 있었다. 이는 매우 짜증나는 일이었다.

일어나서 가림막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아니면 그대로 자는 것도 가능할까?

몇 분간 그는 누운 채 여러 가능성을 곰곰이 생각했다. 그러다 갑자기 몸을 뒤집고, 눈을 뜬 채 숨을 죽이며 귀를 기울였다. 방 건너편 빈 침대에서 무언가 움직인 것이 분명했다. 내일 아침에는 그 침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 했다. 쥐라도 들끓고 있는 게 분명했다. 지금은 조용했다. 아니, 다시 소동이 시작되었다. 살랑거리는 소리와 흔들리는 소리. 쥐 하나로는 도저히 낼 수 없는 소리였다.

나는 교수가 겪었을 당혹감과 공포를 조금은 짐작할 수 있었다. 30년 전 꿈속에서 나도 똑같은 광경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자가, 아니, 아무도 그가 얼마나 끔찍한 상황에 처했는지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는 자신이 비어 있다고 믿었던 침대에서 갑자기 형체가 드러나 앉아 있는 것을 보았으니까.

그는 단숨에 자신의 침대에서 뛰어내려 창가로 돌진했다. 창가에는 그의 유일한 무기가 놓여 있었다. 그가 가림막을 받쳐 두었던 지팡이였다.

하지만 이것이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잘못된 행동이었다. 빈 침대 위에 있던 존재가 매끄럽고도 갑작스러운 동작으로 침대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두 침대 사이에 팔을 벌린 채 서서 문 앞을 막아선 것이다.

파킨스는 그 광경을 끔찍한 혼란 속에서 지켜보았다. 어째서인지 그 존재를 지나쳐 문으로 탈출한다는 생각은 건딜 수 없을 정도로 혐오스러웠다. 그가 그 존재를 만지는 것조차 참을 수 없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그 존재가 자신에게 닿는 것보다는 차라리 창문을 뚫고 밖으로 뛰어드는 것이 나았다.

그 존재는 잠시 어두운 그림자 속에 서 있었다. 파킨스는 아직 그 얼굴이 어떤 모습인지 보지 못했다.

그때 그 존재가 몸을 구부린 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순식간에 목격자는 약간의 공포와 약간의 안도감을 느끼며 깨달았다. 그것이 눈이 멀었음이 틀림없다는 것을. 그것은 두꺼운 옷으로 감싼 팔을 앞뒤로 헤매며 무작위로 더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존재는 그에게서 반쯤 돌아서다가, 그가 막 떠나온 침대를 의식한 듯 그곳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베개 위를 더듬는 동작을 취했는데, 그 모습은 파킨스로 하여금 평생 상상하지 못했을 정도의 오한을 느끼게 했다.

몇 초도 지나지 않아 그 존재는 침대가 비어 있음을 깨달은 듯했다. 그리고 빛이 비치는 영역으로 걸어 나와 창가를 향해 섰다. 그리고 드디어, 그것이 어떤 존재인지 모습을 드러냈다.

파킨스는 이 일에 대해 질문받는 것을 몹시 싫어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 내 귀로 직접 그 일을 묘사한 적이 있었다. 내가 들은 바로는, 그가 가장 선명하게 기억해 내는 것은 ‘구겨진 린넨 천으로 된’ 끔찍하고도 극도로 끔찍한 얼굴이었다.

그 얼굴에 어떤 표정이 담겨 있었는지, 그는 알지 못했거나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 광경을 목격한 공포가 그를 거의 미치게 만들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가 그 광경을 오래 지켜볼 여유는 없었다. 무서운 속도로 그 존재가 방 한가운데로 다가왔다. 더듬고 흔들리는 동안, 그 존재가 걸친 천의 한 모서리가 파킨스의 얼굴을 스쳤다. 그는 그 소리가 얼마

나 치명적인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혐오감을 억누를 수 없었다.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그 소리는 곧바로 그 존재에게 단서를 제공했다.

순간적으로 그 존재가 그를 향해 뛰어올랐다. 다음 순간, 파킨스는 창문을 통해 반쯤 뒤로 넘어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낼 수 있는 가장 높은 비명들을 연신 지르며, 그 천으로 된 얼굴이 자신의 얼굴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느꼈다. 거의 마지막 순간, 구원이 찾아왔다. 대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고, 창문 근처의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 그가 그 존재들에게 다다랐을 때, 단 하나의 존재만 남아 있었다. 파킨스는 의식을 잃고 방 안으로 쓰러졌고, 그의 앞에는 구겨진 이불 더미가 바닥에 놓여 있었다.

월슨 대령은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다른 이들이 방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냈고, 파킨스를 다시 침대로 모셨다. 대령 자신은 담요를 두른 채 다른 침대에 누워 밤새 그 자리를 지켰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로저스가 도착했다. 그는 하루 전이었다면 그리 반갑지 않았을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무척 반가운 사람이었다. 세 사람은 교수의 방에서 매우 긴 회의를 가졌다.

회의가 끝난 후 대령은 호텔을 나섰다. 그의 손가락과 엄지 사이에는 작은 물체가 낀 채였다. 그는 그 물체를 자신의 매우 긴장한 팔이 던질 수 있는 가장 멀리, 바다 속으로 던져버렸다.

나중에는 글로브 여관의 뒷마당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다.

호텔 직원들과 방문객들에게 어떤 변명이 꾸며졌는지, 나는 솔직히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교수는 급작스러운 의심, 즉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환각 증세에서 그럭저럭 벗어날 수 있었고, 호텔 역시 불길한 집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만약 대령이 그 순간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파킨스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창문 밖으로 떨어졌거나, 정신을 잃었을 것이다.

그러나 호각 소리에 응답해 나타난 그 존재가 그 이상의 일을 할 수 있었을지는 분명치 않다. 그것은 단지 놀라게 할 뿐이었다. 그 존재의 실체는 거의 없었다. 이불로 몸을 만들어냈을 뿐, 다른 물질적인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대령은 인도에서 이와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었다. 그는 파킨스가 그 존재와 맞붙었더라면, 실제로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존재가 가진 유일한 힘은 공포를 자아내는 것이었다.

전체적인 사건은, 그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 가진 견해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고 대령은 말했다.

사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하지만 짐작컨대, 교수님의 어떤 점에 대한 견해는 예전만큼 명확하지 않게 변했다. 그의 신경도 많이 상했다. 지금도 문에 걸린 성직자용 겹옷을 보면 심란함을 떨쳐버리지 못한다. 겨울 오후 늦게 들판에 서 있는 허수아비의 모습은 교수님에게 여러 차례 불면의 밤을 안겨 주었다.

**\*\*아בות 토마스의 보물\*\***

지금도 여러 성직자들은 토마스 수도원장이 숨겨둔 보물에 대해 떠돌고 다닌다. 스테인펠트 사람들은 그 보물을 찾기 위해 수없이 노력했지만,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토마스 수도원장이 아직 젊고 왕성한 시절에, 수도원 주변에 거대한 금덩이를 묻어두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사람들은 그 보물이 어디 있는지 수없이 물었지만, 그는 늘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곤 했다.

“옴, 요한, 그리고 스가랴가 너희나 너희 후손에게 알려주겠지.”

그는 때때로 덧붙이기도 했다. “내가 찾은 자는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그가 남긴 다른 업적들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 있다. 그는 자신의 교회 남쪽 날개 동쪽 부분에 큰 창문을 설치했는데, 그 유리에는 그림이 아주 정교하게 그려져 있었다. 그 창문에는 그의 초상화와 문장도 함께 새겨져 있어, 그가 직접 설계하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그는 수도원 관사를 거의 전체적으로 재건했다. 안뜰에는 우물을 파고, 그 주변을 아름다운 대리석 조각으로 장식했다.

그는 72세의 나이로, 다소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세상을 떠났다. 주님의 탄생 1529년이였다.

“이건 결국 번역해야겠군.” 고문서 연구자는 혼자 중얼거렸다. 방금 그 희귀하고도 장황한 책, 『슈타인펠덴세 노베르티눔(Sertum

Steinfeldense Norbertinum)』 [5]에서 위 구절들을 베껴 적은 뒤였다. “어차피 해야 한다면, 일찍 끝내는 게 낫지.”

그는 곧바로 다음과 같은 번역문을 작성했다.

아이펠의 슈타인펠트 프레모나스트르장회 수도원에 대한 기록과 수도원장들의 전기. 크리스티안 알베르트 에르하르트가 1712년 쾰른에서 출판했다. 에르하르트는 그 지역의 거주자였다. ‘노베르티눔’이라는 별칭은 성 노베르트가 프레모나스트르장회 창시자였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지금도 성직자들 사이에서는 토마스 수도원장이 숨겨둔 보물에 대한 소문이 끊이지 않는다. 슈타인펠트 출신들은 그 보물을 찾기 위해 여러 차례 수색을 벌였으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이야기에 따르면, 토마스는 생전에 매우 많은 양의 금을 수도원 어딘가에 숨겨두었다. 사람들은 그가 금을 어디에 뒀는지 자주 물었고, 그는 항상 웃으며 이렇게 답했다.

“옴, 요한, 즈카리아가 당신이나 당신의 후계자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그는 때로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다. 만약 누가 그 보물을 찾아낸다면, 그는 결코 원한을 품지 않을 것이라고.

이 수도원장이 수행한 다른 사업들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 있다. 그는 교회 남쪽 복도의 동쪽 끝 창문에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진

유리창을 설치했는데, 그 창에 그의 초상화와 문장이 새겨져 있는 것이 그 사실을 증명한다. 또한 그는 수도원장의 숙소를 거의 전체적으로 수리했고, 안뜰에 우물을 파서 대리석으로 아름다운 조각을 새겼다.

그는 1529년, 일흔두 살의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당시 고고학자가 손에 쥔 과제는 슈타인펠트 수도원 교회의 그림 유리창 행방을 추적하는 것이었다.

프랑스 대혁명 직후, 독일과 벨기에의 해산된 수도원들에서 수많은 그림 유리창들이 영국으로 흘러들어왔다. 지금도 우리는 여러 교구 교회와 성당, 사설 예배당에서 그들의 자취를 확인할 수 있다.

슈타인펠트 수도원은 이러한 ‘예술적 자산’에 대한 불가피한 기여자들 중 가장 중요한 곳이었다.

고고학자가 직접 쓴 책의 다소 무거운 서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수도원에서 나온 유리창의 대부분은, 장소가 명시된 수많은 비문이나 여러 명확한 연작이나 이야기로 구성된 창문의 주제들을 통해 비교적 쉽게 식별할 수 있다.

이야기의 서두에서 언급했던 구절은 고고학자에게 또 다른 실마리를 제공했다. 그는 어느 개인 예배당에서 세 개의 거대한 형상을 보았다. 각각이 창문의 한 칸을 가득 채우고 있었으며, 분명히 같은 화가의 작품이었다. 그들의 양식은 그 화가가 16세기 독일인이었음을 명확히

보여줬다. 하지만 그 형상들의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는 일은 지금까지도 난제였다.

그 형상들은 누구였을까? 놀라지 않겠는가? 그들은 각각 욥, 요한, 즈카리아를 나타냈다. 각 인물은 손에 책이나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으며, 그 위에는 자신의 저서에서 발췌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고고학자는 당연히 이를 기록했고, 자신이 검토할 수 있던 불가타 성경의 어떤 텍스트와도 다르게 표현된 그 문구들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예를 들어, 욥의 손에 든 두루마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_Auro est locus in quo absconditur\_ (원문은 \_conflatur\_이어야 함). 요한의 책에는 \_Habent in vestimentis suis scripturam quam nemo novit\_ (원문은 \_vestimento scriptum\_이며, 이어지는 단어들은 다른 구절에서 가져온 것)라고 적혀 있었다. 즈카리아의 경우 \_Super lapidem unum septem oculi sunt\_ (세 가지 중 유일하게 변형되지 않은 원문)라고 적혀 있었다.

금이 숨겨지는 장소가 있다.

그들의 옷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

한 돌에는 일곱 개의 눈이 새겨져 있었다.

그 세 인물이 왜 한 창문에 함께 배치되었는지, 조사관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깊은 당혹감에 빠졌다. 역사적 연고도, 상징적 의미도, 교리적 연관성도 그들 사이에는 없었다. 조사관은 이들이 아마도 매우 거대한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연작 중 일부였을 것이라고 추측할 뿐이었

다. 만약 그렇다면, 아마도 넓은 교회의 상부 창문 전체를 채우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Sertum』의 구절은 상황을 바꿔놓았다. 그 구절은 현재 D 경의 예배당에 걸려 있는 유리에 그려진 실제 인물들의 이름이, 슈타인펠트의 토마스 폰 에센하우젠 수도원장이 입에 달고 자주 언급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이 수도원장은 1520년경 자신의 수도원 교회 남쪽 복도에 그림이 그려진 창문을 설치했다.

세 인물이 토마스 수도원장의 헌납물 중 일부였을 것이라는 추측은 그리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었다. 게다가 이 추측은 유리를 다시 한번 면밀히 조사함으로써 확인하거나 기각할 수 있는 것이었다. 소머턴 씨는 여유가 있는 신사였기에, 그는 지체 없이 개인 예배당으로 순례를 떠났다.

그의 추측은 완전히 확인되었다. 유리의 양식과 기법이 요구되는 시대와 장소에 완벽하게 부합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예배당의 다른 창문에서 토마스 수도원장의 문장이 새겨진 유리 조각을 찾아냈다. 이 유리 조각은 앞서 발견된 인물들과 함께 구매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소머턴 씨는 조사하는 내내 숨겨진 보물에 대한 소문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그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점점 더 분명해졌다. 만약 원장이 질문자들에게 던진 수수께끼 같은 대답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다면, 그것은 그 보물이 수도원 교회에 설치한 창문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는 뜻일 것이다.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창문에 있는 스크롤 중 첫 번째로 신중하게 선택된 구절이, 숨겨진 보물을 암시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는 점이었다.

소머튼은 확신했다. 수도원장이 후세를 위해 남긴 수수께끼를 풀 열쇠는 모든 특징과 흔적에 담겨 있다고. 그는 그 어떤 단서도 놓치지 않으려 꼼꼼히 기록했다. 버크셔의 고향 저택으로 돌아온 그는 밤늦게까지 초롱불을 켜고 자신의 필사본과 스케치에 매달렸다.

두세 주쯤 지났을까. 어느 날 소머튼은 하인에게 짐을 싸라고 명했다. 주인과 하인의 짐을 모두 챙겨, 짧은 해외 여행에 대비하라는 것이었다. 그가 어디로 향하는지는 잠시 뒤에서야 알게 될 일이다.

## II

그레고리 목사는 파즈버리 교구장이었다. 아침 식사 전, 가을날 선선하고 맑은 공기가 흐르는 아침이었기에, 그는 우편배달부를 기다리며 마차 진입로 끝의 문까지 산책하듯 나섰다. 차가운 공기를 마시고 싶어서였다. 하지만 그의 목적은 둘 다 이루어졌다.

그가 아이들과 함께 나온 지 얼마 안 되어, 우편배달부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그를 향해 갖가지 질문을 쏟아냈고, 그레고리 목사는 열댓 개쯤 답하기도 전에 우편배달부에게 닿았다. 아침 우편물 더미 속에는 외국 우표와 우편 날짜가 찍힌 한 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그 편지는 즉시 어린 그레고리 형제자매들의 각축장이 되

었다. 편지봉투에는 교육받지 않은 듯하지만 분명히 영어로 된 필체로 주소가 적혀 있었다.

목사가 편지를 열어 서명란을 확인했다. 그 편지는 친구이자 지주인 소머턴 씨의 비서 시종이 보낸 것이었다.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존경하는 선생님,

저는 지금 큰 불안에 휩싸여 이 편지를 씁니다. 선생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시간을 내어 잠시 들러 주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인께서 극심한 충격을 받으셔서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저앉은 주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놀랄 일도 아닙니다. 선생님을 모셔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인께서 말씀하시길, 코블린스(Cobblince)로 가는 지름길로 나가서 마차를 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불안과 밤의 피로로 인해 머리가 복잡해져 글이 엉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대강의 상황은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제가 감히 말씀드려도 된다면, 선생님처럼 정직한 영국인의 얼굴을 이 낯선 이방인들 사이에서 뵈게 된다면 얼마나 기쁠지 모릅니다.

존경하는 선생님, 저는 당신의 충실한 종인 윌리엄 브라운입니다.

참고: 마을 이름은 스티넬드(Steenfeld)다. 저는 그곳을 ‘읍’이 아니라 ‘마을’이라 부르겠습니다.

1859년, 평온했던 버크셔의 교구 목사의 집이 편지 한 통으로 인해 어떤 충격과 혼란, 그리고 급박한 준비에 휩싸였을지 독자가 상상해 보기 바란다. 내게는 더 이상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날 오후, 런던행 열차를 무사히 탔고, 그레고리 씨는 안트베르펜행 배의 선실과 코블렌츠행 열차의 좌석을 모두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 중심지에서 슈타인펠트까지의 이동 역시 어렵지 않게 처리되었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나에게 중대한 불리함이 하나 있다. 나는 슈타인펠트(Steinfeld)를 직접 방문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사건의 주요 인물들, 즉 내 정보를 제공해 준 두 사람은 그 장소의 모습을 흐릿하고 다소 음울한 상으로만 전달할 수 있었다.

내가 파악하기로 그곳은 작은 마을이었다. 고대의 장식품들이 약탈 당해 버린 거대한 교회 하나가 있고, 그 주변에는 17세기 양식의 폐허가 된 듯한 큰 건물들이 몇 채 둘러싸고 있었다. 대개 유럽 대륙의 수도원들이 그랬듯, 슈타인펠트의 수도원도 당시 주민들이 사치스럽게 다시 지었던 것이다.

나는 그곳을 방문하기 위해 돈을 낭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설령 소머튼 씨나 그레고리 씨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매력적인 곳일지라도, 그곳에서 볼 만한 것은 거의, 아니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 내가 보고 싶지 않은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말이다.

영국인 신사와 그의 하인이 묵었던 여관은 그 마을에 있는 유일한, 아니 유일했던 여관이였다. 그레고리 씨는 운전사의 안내를 받아 곧장 그곳으로 향했고, 문 앞에서 브라운 씨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버크셔의 자택에서 ‘비밀을 잘 지키는 수염 난 신사’들의 모범이자 침착한 신사 하인으로 통하던 브라운 씨는 지금 완전히 제 모습을 잃고 있었다. 그는 가벼운 트윙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초조해하며 거의 짜증을 내는 듯한 모습이었다. 상황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과는 거리가 먼, 평범한 하인의 모습이었다. 그가 목회자인 그레고리 씨의 ‘정직한 영국인의 얼굴’을 본 안도의 표현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였지만, 그 감정을 설명할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는 그저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선생님. 주인님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브라운 씨, 당신의 주인은 정말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레고리 씨가 재촉하듯 끼어들었다.

“제 생각에는 좀 나아지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은 좀 주무시고 계실 거라고 바라고 있지만...”

“무슨 일이 있었길래? 편지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 사고라도 당한 건가?”

“음, 선생님, 제가 이 이야기를 해도 될지 정말 망설여집니다. 주인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야겠다고 아주 신중하게 지시하셨거든요. 하지만 뼈가 부러진 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의사가 뭐라 했소?” 그레고리 씨가 물었다.

그때 그들은 이미 소머튼 씨의 침실 문 밖에 서 있었다. 둘은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렸다. 앞장서 있던 그레고리 씨는 손잡이를 더듬다가, 우연히 손가락으로 문의 판자를 스쳤다. 브라운이 답하기도 전에, 방안에서 끔찍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도대체 저자는 누구요?” 그들이 처음 들은 말이었다. “브라운이 오?”

“네, 신사님. 저와 그레고리 씨가요.” 브라운이 서둘러 대답했다. 그러자 상대방으로부터 안도한 듯한 한숨 소리가 또렷이 들려왔다.

그들은 오후의 햇살을 막아 어둡게 처리된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레고리 씨는 놀라움과 동정이 교차하는 심정으로 친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평소 차분하던 친구의 얼굴은 얼마나 야위어 있고, 공포의 땀방울로 젖어 있었는가. 커튼으로 둘러싸인 침대에서 몸을 일으킨 친구는 떨리는 손을 내밀며 그를 맞이했다.

“당신을 뵈는 게 더 좋습니다, 친애하는 그레고리,”라는 것이 목사의 첫 질문에 대한 답이었고, 그것은 분명히 진실이었습니다.

오 분쯤 이야기를 나누자, 소머튼은 며칠 만에 가장 제 모습을 되찾았다. 브라운이 나중에 보고한 내용이다. 그는 떳떳할 정도로 양호한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었고, 스물네 시간 안에 코블렌츠까지 여행해도 땀을 만큼 건강해졌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토록 격앙된 모습은 그레고리 씨에게 그리 기쁘게 보이지 않았다. “제발 그걸 해주게, 친애하는 그레고리.” 그는 그레고리의 손을 잡으며 어떤 간섭도 미리 차단했다. “무엇인지, 왜 해달라는 건지 묻지 말게. 아직 설명할 준비가 안 돼 있어. 말하면 다시 무너질 거야. 네가 와주며 내게 가져다준 모든 평화가 물거품이 될 테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야. 네가 그것을 해낸들 아무런 위험도 없다는 것과, 브라운이 내일 그것이 무엇인지 보여줄 것이라는 점. 단지 그것을 다시 제자리에 두는 것, 혹은 간직하는 것일 뿐이야. 아니, 아직 그건 말해선 안 돼. 브라운을 불러주겠나?”

“자, 소머튼.” 그레고리 씨가 방을 가로질러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당신이 설명할 마음이 들 때까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 그리고 만약 그 일이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간단하다면, 내일 아침 가장 먼저 그 일을 대신 맡아주겠다.”

“아, 그대도 그러리라 믿었소, 그레고리. 내가 그대를 믿어도 되리라고 확신했소. 그대에게 더할 나위 없는 감사를 표하오. 자, 이제 브라운이군. 브라운, 잠깐 말 좀 하시오.”

“제가 갈까요?” 그레고리 씨가 끼어들었다.

“전혀 아닙니다. 세상에, 아니요. 브라운, 내일 아침 일찍—(그레고리, 일찍 일어나는 거 싫어하지 않죠)—당신은 목사님을 모시고—여기, 아시죠?”(브라운이 진지하고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그것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으세요. 전혀 겁 먹을 필요 없습니다. 낮에는 완전히 안전합니다. 제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것은 계단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우리가 놓았던 곳에요.”(브라운은 목을 한두 번 크게 삼키며 말하지 못했고, 결국 고개만 숙였다.) “그리고—네, 그게 다입니다. 다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친애하는 그레고리. 만약 당신이 이 일에 대해 브라운에게 묻지 않도록 할 수 있다면, 저는 더더욱 감사할 것입니다. 내일 저녁, 늦어도 그 때까지라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저는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밤인사 드립니다. 브라운이 저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그는 여기서 자요—만약 저라면, 문에 잠금장치를 할 것입니다. 네, 꼭 그렇게 하세요. 그들은—그들, 이곳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더 나은 일입니다. 안녕, 안녕.”

이렇게 이별한 후, 그레고리 씨는 새벽녘 잠에서 깨어 문 아래쪽에 서 어딘가 더듬거리는 소리가 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이상한 침대와 미스터리 한가운데에 갑자기 빠진 조용한 남자가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일 뿐이었다. 확실히 그는 생을 마감할 때까지 자정이 지나 새벽까지 두세 번 그런 소리를 들은 것으로 기억했다.

그는 해가 뜨자마자 일어났다. 브라운과 함께 곧장 밖으로 나섰다. 소머튼 씨가 부탁한 임무는 의아하기는 했으나, 어렵거나 무서운 일은 아니었다. 여관을 떠난 지 반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일은 끝이 났다. 그 일이 무엇이었는지, 나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

저녁 무렵이 되자소머튼 씨는 거의 평상시 상태로 회복되어 스테인 펠트를 떠날 수 있었다. 같은 날 저녁, 그가 약속한 설명을 시작했을 때의 장소는 코블렌츠였는지, 아니면 여행 중 어딘지 나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브라운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의 이해 범위 안에 그 사건의 전모가 완전히 드러났는지는 그가 결코 말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내면을 추측할 수도 없다.

삼

이것이 소머튼 씨의 이야기였다.

“여러분, 이 원정의 목적은 D 경의 개인 예배당에 걸려 있던 오래된 유화 유리창과 관련된 무언가를 추적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대략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이 모든 사건의 시작점은 오래된 인쇄본의 한 구절에 있습니다. 이 구절에 주목해 주십시오.”

그때서야 소머튼 씨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땅을 조심스레 다시 훑어보기 시작했다.

“예배당에 두 번째 방문했을 때,” 그가 말을 이었다. “내 목적은 유리에 새겨진 인물상과 글자, 다이아몬드로 긁어 새긴 자국, 그리고 우연히 생긴 것으로 보이는 흔적까지 가능한 한 모두 기록하는 것이었습

니다. 먼저 손댄 것은 두루마리에 새겨진 문구였습니다. 첫 번째, 즉  
옉의 글귀 ‘금의 숨겨진 곳이 있나니’가 고의적으로 변조된 것이니, 이  
는 분명히 보물을 가리키는 것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두 번째, 즉 성 요한의 글귀 ‘그들이 입은 옷에  
아무도 모르는 글자가 있도다’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인물들의 옷에  
새긴 글자가 있었느냐고?’ 저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세 인물  
모두 망토에 넓은 검은 테두리가 있었는데, 이는 창문에서 눈에 띄면서  
도 다소 흥측한 특징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스  
테인펠트 참사회원들이 제 전에 남긴 곳에서 더 이상 찾지 않았을 것입  
니다.

하지만 운명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유리 표면에는 먼지가 많이 끼어  
있었습니다. D 경이 우연히 지나치다가 제 검은 먼지투성이 손을 보고  
는, 창문을 청소하기 위해 터키식 솔빔을 가져오라고 친절히 지시했습  
니다. 솔빔에 거친 부분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우연이었는지, 솔이  
한 인물의 망토 테두리를 지나갈 때 저는 길게 굵은 자국이 남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노란 얼룩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잠시 작업을 멈추라고 요청하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그 자리를 자세히 살피었습니다. 노란 얼룩은 분명히 존재했습  
니다. 지워진 것은 두꺼운 검은 안료였는데, 이는 유리가 소성된 후에  
붓으로 덧칠한 것이 분명했고, 따라서 쉽게 긁어낼 수 있어 유리에는  
손상이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장 긁어냈습니다. 여러분은 믿기 어

려울 것입니다. 아니, 저는 여러분을 잘못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 검은 안료 아래, 맑은 바탕 위에 노란 얼룩으로 뚜렷하게 형성된 대문자 두세 개를 발견했습니다. 물론 저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D 경에게 흥미로울 만한 비문이 발견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비문 전체를 드러내도 되는지 여쭙봤죠. 경은 전혀 개의치 않으시더군요.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이미 정해진 약속이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게는 오히려 안도되는 일이었지만, 경은 자리를 뜨셔야 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일은 수월했습니다. 색소는 물론 시간이 지나며 부식되어 있었죠. 손끝으로 살짝 만져도 쉽게 벗겨졌습니다. 세 개의 창문 전체에 그려진 검은 테두리를 모두 깨끗이 청소하는 데, 총 두 시간 정도면 족했습니다.

비문에 적힌 대로, 각 인물들의 의복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발견으로 인해, 물론, 내 마음속에서는 내가 올바른 길에 올라섰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확실해졌다. 그리고 이제, 그 비문은 무엇이었는가? 내가 유리를 닦는 동안, 나는 거의 일부러 글자를 읽지 않으려 애썼다. 온전한 것을 얻은 후에야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일을 미뤘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나자, 나의 친애하는 그레고리, 나는 순수한 실망감 때문에 거의 울 수도 있었다. 내가 읽은 것은 모자에서 흔들려 나온 가장 희망 없는 글자의 혼란스러움이었다. 여기 있다:

욥. 드레비시오페드무웁스무빌리스리카비바스타오브트

요한. 르디에아믈레스이브스포드세이르셋타에스기아븐르

스가라. 드레비시오페드무웁스무빌리스리카비바스타오브트

처음 몇 분간 나는 머리가 하얘졌고, 아마 얼굴도 것처럼 공허해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실망은 오래가지 않았다. 나는 거의 즉각적으로 이것이 암호, 혹은 난독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제작 시기가 꽤 오래되었음을 고려할 때, 아마도 매우 단순한 종류의 암호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래서 나는 가장 신중을 기해 그 글자들을 모두 옮겨 적었다.

그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작은 단서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내가 암호라는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해주는 것이었다. 욥의 옷에 적힌 글자들을 복사한 뒤, 내가 실수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 수를 세어 보았다. 총 삼십팔 자였다.

그때 마침, 나는 테두리 가장자리에 날카로운 것으로 긁어 놓은 흔적이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로마 숫자로 ‘XXXVIII’, 즉 삼십팔이었다.

요약하자면, 다른 유리창들 역시 모두 비슷한 ‘메모’가 있었다. 이는 유리 세공 장인이 아바트 토머스로부터 글귀에 대해 매우 엄격한 지시를 받았고, 그것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각별히 신경을 썼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준다.

“그 발견 이후로는, 나는 더 이상의 단서를 찾기 위해 유리창 표면 전체를 살살이 뒤졌다. 물론 스가라의 두루마리에 적힌 글귀, 즉 ‘일곱 개의 눈이 하나의 돌 위에 있도다’라는 구절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금방 이것이 보물을 감춘 장소, 즉 제자리에 있는 돌에 새겨진 표식을 가리키는 것임을 깨달았다. 요컨대, 나는 가능한 모든 메모와 스케치, 그리고 전사본을 작성한 뒤, 여유를 가지고 암호를 풀기 위해 파즈버리로 돌아왔다. 오, 그토록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처음에는 내가 아주 영리하다고 생각했다. 암호의 열쇠는 분명히 비밀 문서를 다루는 고전들 중 하나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토마스 수도원장과 동시대에 살았던 요아킴 트리테미우스의 『스테가노그라피아(Steganographia)』가 특히 유망해 보였다. 그래서 나는 그 책과 셀레니우스의 『크립토그라피아(Cryptographia)』, 베이컨의 『학문증진론(de Augmentis Scientiarum)』, 그리고 몇 권 더 구해 왔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런 다음 나는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글자’의 원리를 시도해 보았다. 먼저 라틴어를 기준으로 삼았고, 그다음에는 독일어를 기준으로 삼았다. 하지만 그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것이 실제로 도움이 되어야 했는지 아닌지는 나도 명확하지 않다. 그러다 나는 다시 창문 자체로 돌아와 메모를 다시 읽기 시작했다. 거의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수도원장 자신이 어딘가에 내가 필요로 하는 열쇠를 직접 제공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서였다. 옷의 색깔이나 무늬로는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다. 부수적인 사물이 있는 풍경 배경도 없었고, 천

장 장식 안에도 아무것도 없었다. 남은 유일한 가능성은 인물들의 자세에 있었다.

‘옴: 왼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손의 집게손가락을 위로 뻗었다. 요한: 왼손에 글이 적힌 책을 들고, 오른손으로 두 손가락을 들어 축복한다. 스가랴: 왼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손은 위로 뻗었는데, 옴과 같되 세 손가락을 들어 올렸다.’

다시 말해, 옴은 ‘하나’의 손가락을, 요한은 ‘둘’의 손가락을, 스가랴는 ‘셋’의 손가락을 들어 올렸다. 여기에 숫자 열쇠가 숨겨져 있지 않을까?

“소머튼 씨가 친구의 무릎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내 친구 그레고리, 바로 그것이 열쇠였소. 처음에는 그 열쇠가 맞물리지 않는 것 같았지만, 두세 번의 시도 끝에 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소. 글귀의 첫 글자 다음에는 ‘하나’의 글자를 건너뛰고, 다음 글자 다음에는 ‘둘’의 글자를 건너뛰고, 그 다음에는 ‘셋’의 글자를 건너뛰시오. 이제 내가 얻은 결과를 보시오. 나는 단어를 이루는 글자들에 밑줄을 그었소:’

드레비오펜드무움스비빌리스카바스바타오프 디이아머를스푸스피 드세트타에스기안너 피이알인큐다이트모톤브카아트. 히.큐.이.

“보셨습니까? ‘\_Decem millia auri reposita sunt in puteo in at\_...’ (금화 만 개가 ...의 우물에 묻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어지는 단어는 ‘at’로 시작하지만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나머지 글자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해 보았지만,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저는 문장 끝 세 글자 뒤에 찍힌 점들이 다른 해석의 단서를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문득 ‘아바트 토마스 이야기를 다룬 ‘\_Sertum\_’이라는 책에 우물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았습니다. 그는 ‘\_puteus in atrio\_’(중정의 우물)를 지었다는 기록이 있었죠. 바로 그 ‘atrio’가 제가 찾고 있던 단어였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미 사용했던 글자를 제외하고, 비문에 남은 글자들을 모두 옮겨 적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것이 이 종이에 적힌 내용입니다.”

RVIIOPDOOSMVVISCAVBSBTAOTDIEAMLSIVSPDEERSETA  
EGIANRFEEALQDVAIMLEATTTHOVM CA.H.Q.E.

“이제 내가 필요로 했던 첫 세 글자가 무엇인지 알았다. 바로 ‘rio’였다. 이를 통해 ‘atrio’라는 단어를 완성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세 글자는 모두 앞의 다섯 글자 안에 들어 있다. 처음에는 ‘i’가 두 개나 나와서 잠시 당황했지만, 곧 깨달았다. 나머지 비문에서는 매번 한 글자씩 건너뛰어야 한다는 것을. 직접 풀어보시라. 첫 번째 ‘라운드’가 멈춘 지점부터 이어지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리오 도무스 아바치알리스 데 스타인펠트 아 메, 토마, 키 포스위 쿠스토템 수페르 에아. 가 레 키클라 톡’.

드디어 모든 비밀이 드러났다.

“스테인펠드 수도원장의 집 마당 우물 속에 금화 만 개를 묻어두었다. 나는 토마스다. 그 보물을 지키는 수호자를 세워두었다. ‘만진 자는 경계하라.’”

“마지막 구절은 토머스 원장이 고안해 낸 장치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D 경의 집에서 다른 유리 조각에 새겨진 그의 문장과 함께 발견했죠. 원장은 이를 자신의 암호 체계에 그대로 끌어들이었으나, 문법적으로는 조금 어색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지, 그레고리, 내 처지에 있던 평범한 인간이라면 무엇을 했을까? 나도 모르게 스테인펠트로 향했고, 그 비밀의 근원까지 따라갔지. 다른 이라면 어땠을까? 나는 믿을 수 없다. 어쨌든 나는 할 수 없었고, 문명이라는 자원이 나를 그곳으로 보낼 수 있는 즉시, 나는 스테인펠트에 도착했고, 네가 본 여관에 몸을 맡겼다. 나는 완전히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한쪽으로는 실망에 대한, 다른 한쪽으로는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토마스 수도원장의 우물이 완전히 사라졌을 가능성도 있었고, 암호를 알지 못하고 운에만 의존한 누군가가 나보다 먼저 보물을 발견했을 가능성도 있었다. 그리고 그 후”—여기서 목소리가 매우 뚜렷하게 떨렸다—“나는 보물의 수호자에 대한 말의 의미를 완전히 안심하고 있지 않았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만약 네가 괜찮다면, 그 이야기가 필요할 때까지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가장 먼저 가능한 순간을 기다리던 브라운과 나는 그 곳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나는 자연스럽게 수도원 유적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소개했고, 다른 곳으로 서둘러 떠나고 싶었지만 교회 방문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리창이 있던 자리, 특히 남쪽 복도 동쪽 끝의 창을 보는 것은 흥미로웠다. 그 창문의 트레이서리 칸 안에서 나는 일부 조각과 문장이 남아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아바트 토마스의 방패가 있었고, 작은 인물이 있었는데, 그 위에는 "Oculos habent, et non videbunt" (그들은 눈을 가지고 있지만 보지 못한다) 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이는 아바트가 그의 카논들에게 한 농담으로 보인다.

“물론 주요 목적은 수도원장의 집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수도원 설계도에 수도원장의 집을 위한 정해진 자리가 없습니다. 강당처럼 복도 동쪽에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도 없고, 침실처럼 교회 횡단부와 연결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많은 질문을 하면 보물에 대한 미미한 기억들이 깨어날까 봐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그리 길고 어렵지 않은 검색이었습니다. 교회 남동쪽에 있는 세 면으로 둘러싸인 마당, 주변에는 버려진 건물 더미와 풀이 무성한 포장도로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셨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이 아무 용도로 쓰이지 않고, 여관에서도 그리 멀지 않으며, 사람이 사는 건물에서 내려다보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안도했습니다. 교회 동쪽 경사지에는 과수원과 목초지만이 있었습니다.

화요일 오후의 다소 흐릿한 노을빛 아래, 그 아름다운 석재가 놀랄 정도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당신도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실 테니까요.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 우물의 가장자리는 이탈리아 대리석으로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각들도 아마 이탈리아 양식일 것입니다. 엘리에셀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이 라헬을 위해 우물을 여는 장면 등 부조가 새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하지만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수도원장은 자신의 냉소적이고 은유적인 비문을 일절 남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피했습니다.”

나는 이 구조물을 가장 날카로운 관심으로 조사했다. 네모난 우물 입구였다. 한쪽 면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다. 위에는 아치가 있었고, 밧줄이 지나가는 도르래가 있었다. 상태가 아주 좋았다. 60년 이내, 어쩌면 그보다 더 최근까지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완전히 최근은 아니었지만.

그런 다음 깊이를 재고 내부로 들어가는 방법을 고민했다. 깊이는 아마 60피트에서 70피트쯤 될 것이다. 다른 점, 즉 접근성에 관해서는, 수도원장이 탐험자들을 자신의 보물 창고 문까지 정확히 이끌어내려 한 것 같았다. 당신이 직접 확인했듯이, 벽돌 공법 안에는 큰 돌덩이들이 박혀 있었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물 내부로 내려가는 계단을 이루고 있었다. 계단은 안쪽을 따라 둥글게 이어져 있었다.

“너무나도 완벽한 상황이라 믿기 어려웠다. 혹시 함정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들이 무게를 받으면 쉽게 뒤집히도록 의도적으로 설치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내 몸무게와 지팡이로 여러 돌

을 직접 눌러 보았다. 모든 돌은 겉보기에도, 실제로도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물론 나는 브라운과 그날 밤 바로 실험을 진행하기로 마음 먹었다.

나는 철저히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내가 탐험해야 할 곳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에, 몸을 감쌀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로프와 웹빙 밴드를 챙겨 갔다. 또한 몸을 지탱할 수 있는 막대기, 등불, 양초, 그리고 크로우바까지. 이 모든 것은 한 개의 카펫백에 쏙 들어갈 만큼 컴팩트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만큼 자연스럽게 보였다.

나는 로프의 길이가 충분히 긴지, 그리고 양동이를 올리는 도르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직접 확인했다. 그 후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 저녁을 먹으러 갔다.

나는 주인의 태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그 결과, 밤 아홉 시쯤 하인을 데리고 산책을 나가 달빛 아래서 사원을 스케치하겠다고 하면, 주인은 그리 놀라지 않을 것 같았다. (하늘이 용서하시길!) 나는 우물에 대해서는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다. 스테인펠트 마을에 사는 그 누구보다도 나는 그 우물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적어도—몸이 저절로 떨어오는 것을 억누르며—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다.

이제 위기의 순간으로 넘어가자. 떠올리기 싫지만, 그레고리, 나는 모든 면에서 그 일을 그대로 회상하는 것이 더 낫다고 확신한다. 브라운과 나는 가방을 들고 밤 아홉 시쯤 출발했다. 우리는 아무도 눈치채

지 못한 채, 여관 마당 뒤쪽으로 슬쩍 빠져나와 마을 끝자락까지 이어지는 골목길로 들어섰다.

5분 뒤 우리는 우물가에 도착했다. 잠시 동안 우물 가장자리에 앉아 주변에 움직이는 사람이나 엿보는 눈이 없는지 확인했다. 들린 소리는 동쪽 경사선 너머, 보이지 않는 곳에서 풀을 뜯는 말들의 소리뿐이었다. 우리는 완벽하게 감시받지 않았고, 달이 유난히 환하게 빛나 로프를 도르래에 제대로 감는 데 충분한 빛을 제공했다.

나는 팔 아래로 로프를 몸통에 고정했다. 로프의 끝을 석조 구조물의 고리에 단단히 매달았다. 브라운은 커져 있는 등불을 들고 나를 따라왔고, 나는 크로우바를 들고 있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강을 시작했다. 발을 디디기 전에 매 단계를 확인하며, 표시된 돌이 있는지 벽을 살폈다.

계단을 내려가며 나는 반쯤 소리 내어 걸음 수를 세었다. 서른여덟 번째까지 내려왔을 때, 비로소 석조물의 표면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 자리에도 아무런 흔적은 없었다. 나는 속이 텅 비는 듯한 기분을 느끼며, 수도원장의 암호문이 정교한 사기극은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했다.

마흔아홉 번째 계단에서 계단은 끝이 났다. 심정이 가라앉은 채로 나는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 서른여덟 번째 계단에 돌아왔을 때, 브라운은 등불을 들고 나보다 한두 계단 위에 있었고, 나는 석조물의 그 작은 불규칙한 부분을 온 힘을 다해 살폈다. 하지만 흔적은커녕 자취조차 남아 있지 않았다.

그때 문득 표면의 질감이 나머지 부분보다 조금 더 매끄럽게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면 적어도 어딘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이다. 돌이 아니라 시멘트일 수도 있었다. 나는 철봉으로 그 부분을 힘껏 내려쳤다. 우물이어서 그런지 소리는 확실히 속이 빈 듯 울렸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커다란 시멘트 조각이 내 발등에 떨어졌고, 그 아래 돌에는 무언가 새겨진 자국이 보였다.

나는 그 수도원장을 추적해냈어, 그레고리. 지금도 생각하면 어느 정도 자부심을 느낀다. 시멘트를 모두 제거하는 데는 몇 번 더 두드리 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약 2피트 사방의 돌판 하나를 발견했다. 그 위에는 십자가가 새겨져 있었다. 다시 실망했지만, 잠시뿐이었다. 나를 안심시킨 건 바로 브라운이었지.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말을 했다. 기억이 맞다면:

“이상한 문양이군. 눈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아.”

나는 랜턴을 그의 손에서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에 사로잡혔다. 십자가가 정말로 일곱 개의 눈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네 개의 눈은 세로로, 세 개의 눈은 가로로 배치되어 있었다. 창문에 걸린 마지막 두루마리도 내가 예상했던 대로 해석되었다. 바로 ‘일곱 개의 눈을 가진 돌’이 그것이었다.

이제까지 수도원장의 자료는 정확했고, 그 사실을 생각하자마자 ‘수호자’에 대한 불안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하지만 나는 이제 물러서지 않기로 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나는 표시된 돌 주변을 모두 파내려 갔다. 그리고 지렛대로 오른쪽을 비틀어 들어 올리자, 돌이 바로 움직였다. 얇고 가벼운 판석 하나일 뿐이었다. 내가 혼자 들어낼 수 있을 정도였다. 그 돌은 구멍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막고 있었다.

나는 그 판석을 깨뜨리지 않고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계단 위에 올려놓았다. 나중에 다시 댈 수 있도록 해두는 것이 중요할지도 몰랐다. 그리고는 잠시 위쪽 계단에서 기다렸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무언가 끔찍한 것이 튀어나오지나 않을지 확인하려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나는 양초에 불을 붙여, 구멍 안으로 조심스럽게 넣었다. 공기가 상했는지 확인하고, 안에 무엇이 있는지 엿보기 위함이었다. 공기는 확실히 상해 있어 불꽃을 거의 꺼뜨릴 뻔했다. 하지만 잠시 후, 불꽃은 다시 안정적으로 타올랐다.

구멍은 안쪽으로 조금 깊이 들어갔고, 좌우로도 넓게 퍼져 있었다. 안에는 동그랗고 빛깔이 옅은 무언가가 보였다. 가방처럼 보였다. 더 이상 기다릴 필요는 없었다. 나는 구멍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안을 들여다보았다. 구멍 앞쪽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팔을 뻗어 오른쪽을 더듬어 보았다. 아주 조심스럽게….

“브라운, 코낙 한 잔만 주세요. 잠시 후 계속하겠습니다, 그레고리....”

“오른쪽으로 손을 뻗었더니, 손가락이 무언가 둥글게 휘어진 것에 닿았다. 촉감이—그렇다—거의 가죽 같았다. 축축했고, 분명히 무겁고 풍성한 물건의 일부였다. 하지만 나를 놀라게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더 용감해져, 가능한 한 양손을 모두 넣어 그 물건을 내 쪽으로 당겼다. 그것은 무거웠지만,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쉽게 움직였다. 입구 쪽으로 당겨가자, 왼쪽 팔꿈치가 촛불을 쳐서 꺼뜨렸다. 나는 그 물건을 구멍 입구 바로 앞에 위치시키고, 밖으로 끌어내기를 시작했다. 그때 브라운이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등불을 들고 계단을 급히 올라갔다. 그가 왜 그랬는지 곧 설명하겠다. 놀라 뒤를 돌아본 나는, 그가 잠시 맨 위에 서 있다가 몇 발자국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그가 부드럽게 ‘괜찮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완전한 어둠 속에서 그 큰 가방을 계속 끌어내렸다. 가방은 잠시 동안 구멍 가장자리에 걸려 있다가, 내 가슴 위로 미끄러져 내려왔다. 그리고 \_그것은 팔을 내 목에 둘러쌌다.\_”

“그레고리, 나는 지금 정녕 사실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야. 나는 인간이 정신을 잃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공포와 혐오의 한계에 다다랐다고 믿는다. 지금 내게 남은 힘으로는 그 경험의 뼈대만 간략히 늘어놓는 게 고작이다. 나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끔찍한 악취를 맡았고, 차갑고도 이상한 무언가가 내 얼굴에 밀착해 천천히 기어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내 몸에는 몇 개인지 모를 다리나 팔, 혹은 촉수 같은 것이 달라붙어 있었다.

브라운에 따르면, 나는 짐승처럼 비명을 지르며 서 있던 계단에서 뒤로 떨어졌다. 그 괴물은 아마도 같은 계단으로 미끄러져 내려갔을 것

이다. 다행히 나를 감싸고 있던 밧줄이 끊어지지 않았다. 브라운은 당황하지 않았고, 나를 꼭대기까지 끌어올려 재빨리 가장자리 너머로 던져냈다. 그가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해냈는지 나는 알 수 없고, 브라운 본인도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는 아마도 근처 버려진 건물에 우리의 도구를 숨긴 뒤, 엄청난 노력 끝에 나를 여관으로 되돌려 보냈을 것이다. 나는 설명할 상태가 아니었고, 브라운은 독일어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나는 수도원 유적지에서 크게 넘어졌다는 허구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말했고, 그들은 아마도 그것을 믿었을 것이다.

그런데 더 나아가기 전에, 나는 브라운이 그 몇 분 동안 겪은 일을 꼭 들어주길 원한다. 브라운, 내게 말했던 그대로 렉터에게 말해봐.”

“글쎄요, 나리.” 브라운은 낮고도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정확히 이런 일이었습니다. 주인이 구덩이 앞쪽에서 바쁘게 일하고 계셨고, 저는 등불을 들고 지켜보고 있었죠. 그러던 중 위에서 무언가 물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 생각에는 꼭 위에서 떨어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 보니, 누군가가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마 무언가 말했겠죠. 저는 등불을 들어 올리고 계단을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제 등불빛이 정확히 그 얼굴에 비쳤습니다. 나리, 그것은 정말 끔찍한 존재였습니다. 제가 본 적 있는 그중에서도 가장 나쁜 놈이었어요. 나이 든 사내였고, 얼굴은 매우 야위었으며,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말할 수 있는 최대한 빠르게 계단을 올라왔고, 땅에 내려섰을 때는 그 사내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

다. 그토록 나이 든 사내가 도망칠 시간조차 없었을 뿐더러, 우물 근처에 웅크리고 있을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그러자마자 주인이 끔찍한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고, 제가 본 것은 그가 밧줄에 매달려 있는 모습뿐이었습니다. 주인이 말씀하시듯, 제가 어떻게 그를 구해 올렸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거 들었나, 그레고리?” 소머턴 씨가 물었다. “그 일의 원인을 짐작할 수 있는가?”

“전체 상황이 너무 끔찍하고 비정상적이어서, 솔직히 말해 제 정신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혹시 함정을 설치한 사람이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는지 확인하러 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요.”

“그렇소, 그레고리. 정확히 그거요. 내 이야기에서 ‘그럴듯하다’ 같은 말이 어울릴 리 없지만, 어쩔 수 없이 그 단어를 써야 할 것 같소. 아마도 그 수도원장이었을 거요.

더 이상 할 말이 많지 않소. 나는 끔찍한 밤을 보냈소. 브라운이 내 곁을 지켰지. 다음 날도 내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소. 일어날 수도, 의사를 부를 수도 없었소. 만약 의사가 있었다 해도, 그가 나를 구해 줄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라오.

나는 브라운에게 당신에게 편지를 쓰게 했소. 그리고 또 한 번의 악몽 같은 밤을 보내야 했지. 그레고리, 나는 이것만큼은 확신하오. 첫 번째 충격보다 이 사실이 나를 더 깊이 파고들었소. 그 공포가 더 오래

지속되었기 때문이오. 밤새 내 문 밖에서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나를 감시하고 있었소. 아마도 둘이었을 거요.

어둠이 깔린 시간 내내 간헐적으로 들린 희미한 소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냄새가 있었소. 끈적한 곰팡이 냄새였지. 첫날 밤 내가 입고 있던 옷은 모두 벗어 버렸고, 브라운에게 치우게 했소. 그가 그의 방에 있는 난로에 그 옷들을 집어넣었을 거라 생각하오. 그럼에도 냄새는 지워지지 않았소. 우물에서 풍기던 냄새만큼이나 강렬했지. 더구나 그 냄새는 문 밖에서 들어오고 있었소.

하지만 새벽의 첫 빛이 비치자 냄새는 사라졌고, 소리도 그쳤소. 그 순간 나는 확신했소. 그 존재들이 어둠의 피조물이며, 햇빛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돌을 다시 제자리에 놓으면, 그 존재들은 힘을 잃고, 누군가가 다시 그 돌을 옮길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믿었소. 그 일을 끝내려면 당신이 올 때까지 나는 기다려야 했소.

물론 브라운 혼자 그 일을 하도록 보낼 수는 없었소. 더군다나 이 장소에 소속된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었지.

“자, 내 이야기가 다야. 믿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너는 믿는다고 생각해.”

“맞습니다,” 그레고리 씨가 말했다. “저도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봅니다.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물과 돌을 직접 목격했고, 구멍 안에 주머니 같은 것이 있거나 혹은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을 살짝 엿보았습

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소머턴 씨, 어제 밤 제 문도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지, 그레고리. 하지만 다행히 그 일은 끝났어. 그런데 그 끔찍한 곳에서의 방문담은 아무것도 없나?”

“별로 없어요.”

“브라운과 제가 슬래브를 제자리에 쉽게 옮겼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철제 못과 쇠기로 단단히 고정했죠. 표면에는 진흙을 발라 벽의 나머지 부분과 똑같이 보이게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우물 덮개의 조각 중 하나를 제가 눈치챈 게 있습니다. 아마 놓치셨을 거예요. 끔찍하고 기괴한 형상이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두꺼비에 가까워 보이더군요. 그 옆에는 ‘Depositum custodi’라는 두 단어가 새겨진 표식이 있었습니다.”

“네게 맡겨진 것을 지키라.”